

ETHER LIBRARY

0023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 1774

문학 ·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에테르 라이브러리 옮김

ETHER LIBRARY

원제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지은이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

옮긴이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1774년, 라이프치히 바이간트 출판사에서 지은이 이름 없이 펴냈다.
괴테가 손본 개정판은 1787년 괴셴판 『괴테 저작집』 제1권에 실렸다. 이 책은
1787년 개정판을 옮겼다.

일러두기

저본에 관하여

이 책은 **요한 볼프강 폰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을 독일어 원전에서 직접 옮긴 완역본입니다. 영어 번역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소설은 1774년 가을 라이프치히에서 지은이 이름 없이 처음 나왔고, 괴테는 열세 해 뒤인 1787년 『괴테 저작집』 제1권에 넣으며 제1부 끝과 제2부를 손보고 엮은이의 보고 상당 부분을 새로 썼습니다. 농군 머슴 이야기가 비극으로 이어지는 줄기도 이때 더해졌습니다. 이 책은 오늘날 표준으로 읽히는 이 **1787년 개정판**을 옮겼습니다. 함부르크판 괴테 전집 제6권의 본문을 옮겨 적은 퍼블릭도메인 독일어 전자 텍스트를 저본으로 삼았습니다.

엮은이의 머리말, 제1부, 제2부, 「엮은이가 독자에게」까지 원문 436문단을 한 문단도 합치거나 쪼개지 않고 옮겼습니다. 편지마다 붙은 날짜도 한 줄짜리 문단으로 그대로 두었습니다.

저본에서 바로잡은 것

저본 전자 텍스트에는 책 맨 앞 엮은이의 머리말 두 문단이 빠져 있습니다. 1787년판 본문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전자 텍스트로 옮겨 적는 과정에서 한 줄이 통째로 빠진 자리(제1부 무도회 날 뇌우 장면, 제2부 두 곳, 「셀마의 노래」의 한 행)와 글자가 뒤바뀐 낱말 스무 곳 남짓은 앞뒤 뜻과 1787년판 본문에 따라 바로 읽어 옮겼습니다.

1854년에 나온 보일런(R. D. Boylan)의 영역본을 확인용으로만 대조했고, 그 문장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제2부 오시안 편지의 날짜는 저본에 바로 앞 편지와 같은 「10월 10일」로 찍혀 있으나, 1787년판과 보일런 영역을 따라 「10월 12일」로 적었습니다.

1787년판에 있는 엮은이의 짧은 각주 몇 개는 저본에 없어 넣지 않았습니다. 원문이 일부러 지운 이름과 지명은 「……」와 「＊＊＊」로, 머리글자만 밝힌 이름은 「B 양」, 「C 백작」처럼 적었습니다.

두 목소리

이 소설에는 목소리가 둘입니다. 하나는 베르테르가 친구 빌헬름에게 거의 날마다 써 보낸 **편지**입니다. 감탄과 물음이 쏟아지고 문장은 숨 가쁘게 길다가 갑자기 끊깁니다. 그 호흡을 살리려고 긴 문장을 토막 내지 않았고, 원문에 있는 감탄은 다 살리되 없는 감정의 말은 하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편지를 모아 엮은 **엮은이**의 목소리입니다. 머리말에서 처음 들리고, 제2부가 끝난 뒤 「 엮은이가 독자에게 」 에서 베르테르의 마지막 나날을 침착하게 보고합니다. 엮은이의 문장은 해라체 과거형으로 담담하게 옮겼고, 그 사이에 끼운 베르테르의 편지와 쪽지는 곧바로 편지의 말투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어미가 바뀌는 그 순간이 이 책의 짜임입니다.

베르테르가 로테 앞에서 읽는 「셀마의 노래」는 괴테가 직접 독일어로 옮긴 오시안의 시입니다. 이 대목은 원문의 대구와 호격, 되풀이를 지키며 운율 있는 말로 옮겼습니다.

말투에 관하여

베르테르와 빌헬름은 허물없는 동무 사이라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반말로 옮겼습니다. 옛 번역에서 흔히 쓰던 하게체(「자네」, 「-네」)는 나이와 위계를 덧씌우므로 쓰지 않았습니다.

베르테르와 로테는 원문에서 끝까지 서로 Sie로 부릅니다. 그래서 둘의 대화와 편지는 해요체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베르테르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편지에서 처음으로 로테를 du라고 부릅니다. 이 전환을 살리려고 마지막 편지만 반말과 「당신」으로 옮겼습니다. 해요체에서 반말로 넘어가는 그 자리가 이 책의 마지막 고비입니다.

알베르트는 약혼 시절 로테에게 Sie를, 결혼한 뒤에는 du를 씁니다. 앞은 해요체로, 뒤는 반말로 옮겼습니다.

로테의 아버지 Amtmann은 제후 영지의 한 관할을 맡아 행정과 재판을 보는 관리여서 「법무관」으로 옮겼습니다. 로테의 어린 동생들이 부르는 Lottchen은 우리말 관습에 따라 「로테 언니」, 「로테 누나」로 옮겼습니다.

그 밖의 것

옮긴이 주는 달지 않았습니다. 낯선 이름과 작품은 본문 안에서 풀어 읽히게 했습니다.

편지의 날짜는 「1771년 5월 4일」, 「5월 10일」처럼 적었고, 나이와 사람 수는 「열한 살」, 「아홉 남매」처럼 한글로, 돈은 「25두카텐」처럼 아라비아 숫자로 적었습니다.

원문의 줄표는 쓰지 않고 문장을 나누거나 쉼표로 이었으며, 생각이 멎거나 말이 끊긴 자리만 말줄임표로 옮겼습니다.

차례

머리말 8

제1부 9

제2부 67

엮은이가 독자에게 104

머리말

가엾은 베르테르의 이야기에 관해 내가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든 정성껏 모아 여기 여러분 앞에 내놓으며, 여러분이 이 일로 내게 고마워하리라는 것을 나는 안다. 여러분은 그의 정신과 성품에 감탄과 사랑을, 그의 운명에 눈물을 아끼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대, 지금 그처럼 가슴을 몰아치는 충동을 느끼는 착한 영혼이여, 그의 슬픔에서 위안을 길어 올리고, 운명 탓이든 그대 자신의 잘못 탓이든 더 가까운 벗을 찾을 수 없거든 이 작은 책을 그대의 벗으로 삼아라!

제1부

1771년 5월 4일

떠나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내 좋은 친구, 사람의 마음이란 대체 무엇일까! 그토록 사랑하는 너를, 한시도 떨어져 지낸 적 없던 너를 두고 오면서 기뻐하다니! 너는 나를 용서해 주겠지. 나는 알아. 그 밖의 인연들은 꼭 나 같은 마음을 괴롭히려고 운명이 일부러 골라 놓은 것 같지 않았어? 가엾은 레오노레! 그래도 나는 잘못이 없었어. 그 아가씨의 자매가 부리는 제멋대로인 매력이 내게 즐거운 소일거리가 되어 주는 사이에, 그 가엾은 가슴속에서 정열이 자라났다고 해서 그게 내 탓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정말 나는 아무 잘못도 없을까? 그 아가씨의 감정을 내가 키워 준 게 아닐까? 우스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를 그토록 자주 웃게 만들던 그 아가씨의 꾸밈없는 천성의 표현을 나 자신도 즐기지 않았던가? 내가 혹시…… 아, 사람이란 대체 무엇이기에 제 신세를 한탄할 수 있단 말인가! 약속할게, 친구야, 정말로 약속해. 나는 달라지겠어. 운명이 우리 앞에 내놓는 자잘한 불행을 늘 그래 왔듯이 되새김질하는 짓은 이제 그만두겠어.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누리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로 두겠어. 네 말이 옳아, 내 좋은 친구. 사람들이 지나간 불행의 기억을 불러내는 데 상상력을 그토록 부지런히 쓰지 않고 그저 덤덤한 현재를 견디기만 한다면, 사람들 사이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 거야. 사람이 왜 그렇게 생겨 먹었는지는 하느님만 아시겠지!

어머니께는 네가 이렇게 좀 전해 줘. 맡기신 일은 내가 힘껏 잘 처리해서 곧 소식을 드리겠다고. 숙모님을 만나 뵈었는데 우리 집에서 다들 말하는 그런 못된 여자와는 거리가 멀었고, 쾌활하고 성미가 급하지만 더없이 착한 마음씨를 지닌 분이야. 나는 유산 몫을 내주지 않는다는 어머니의 불만을 숙모님께 설명드렸어. 숙모님은 숙모님대로 사정과 까닭을 말씀하시고, 어떤 조건이면 전부를, 그것도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내줄 생각이 있는지 일러 주셨어. 요컨대 지금은 그 이야기를 쓰고 싶지 않아. 어머니께 다 잘될 거라고 말씀드려 줘. 그리고 친구야, 이 자잘한 일을 겪으면서 나는 세상의 어긋남이 간계나 악의보다 오해와 게으름에서 더 많이 생겨나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 적어도 간계와 악의가 그보다 드문 것만은 분명해.

그건 그렇고 나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 이 낙원 같은 고장에서 고독은 내 마음에 더없이 귀한 향유가 되고, 젊음의 계절인 이 봄은 자주 떨리곤 하는 내 마음을 넘치도록 데워 준다. 나무마다 덤불마다 꽃다발이라서, 풍뎅이가 되어 향기의 바다 속을 떠다니며 거기서 먹을 것을 다 구할 수 있었으면 싶을 정도야.

시내 자체는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대신 사방으로 말로 다 할 수 없이 아름다운 자연이 펼쳐져 있지. 그래서 돌아가신 M 백작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더없이 아름답게 얽히며 더없이 사랑스러운 골짜기들을 이루는 이곳 언덕들 가운데 하나에 정원을 꾸몄어. 정원은 소박해서, 들어서자마자 학식 있는 정원사가 아니라 느낄 줄 아는 마음이, 여기서 스스로를 누리고 싶어 한 한 사람의 마음이 설계도를 그렸다는 것을 대번에 느끼게 돼. 그분이 가장 아끼던 자리이자 이제는 내가 아끼는 자리이기도 한 허물어진 작은 정자에서, 나는 고인을 생각하며 벌써 여러 번 눈물을 흘렸어. 머지않아 나는 이 정원의 주인이 될 거야. 겨우

며칠 사이에 정원사가 나를 따르게 되었으니, 그 사람도 손해 볼 일은 없을 거야.

5월 10일

놀라운 명랑함이 내 온 영혼을 사로잡았어. 내가 온 마음으로 누리는 이 달콤한 봄날 아침들처럼. 나는 혼자이고, 나 같은 영혼을 위해 지어진 이 고장에서 내 삶을 기뻐하고 있다. 나는 너무 행복해, 내 좋은 친구. 고요히 존재한다는 느낌 속에 너무나 깊이 잠겨 있어서 그 때문에 내 그림이 손해를 보고 있어. 지금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 선 하나도 못 긋겠어. 그런데도 지금 이 순간만큼 내가 위대한 화가였던 적은 없었어. 정다운 골짜기가 내 주위로 안개를 피워 올리고, 높이 뜬 해가 빛 한 줄기 스며들지 못하는 내 숲의 어둠 위에 머물러 있고, 몇 가닥 햇살만이 그 안쪽 성소로 몰래 숨어들 때, 그럴 때 나는 쏟아져 내리는 개울가 높은 풀숲에 누워 땅 가까이에서 수천 가지 풀잎이 하나하나 신기하게 눈에 들어온다. 풀줄기 사이에서 우글거리는 작은 세계를, 셀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온갖 벌레와 날벌레의 모습을 내 가슴 가까이 느끼고, 우리를 당신 모습대로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 곁에 계심을, 우리를 영원한 환희 속에 띄워 안고 지켜 주시는, 모든 것을 사랑하시는 분의 숨결을 느낀다. 친구야! 그러다 내 눈앞이 어스름해지고, 내 주위의 세계와 하늘이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처럼 온전히 내 영혼 속에 깃들면, 그때 나는 자주 그리움에 잠겨 생각해. 아, 이것을 다시 표현할 수 있다면! 네 안에서 이토록 충만하게, 이토록 따뜻하게 살아 있는 것을 종이에 불어넣어서, 네 영혼이 무한한 하느님의 거울이듯 그 종이가 네 영혼의 거울이 되게 할 수 있다면! 친구야…… 하지만 나는 그 때문에 무너지고 말아. 이 현상들이 지닌 장엄함의 힘에 눌려 쓰러지고 만다.

이 고장 주위에 사람을 홀리는 정령들이 떠도는 것인지, 아니면 내 주위의 모든 것을 이렇게 낙원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 내 마음속의

따뜻하고 거룩한 환상인지 나는 모르겠어. 마을 바로 앞에 샘이 하나 있는데, 나는 멜루지네와 그 자매들처럼 그 샘에 홀려 붙들려 있어. 작은 언덕을 내려가면 둥근 천장이 덮인 곳 앞에 이르고, 거기서 스무 개쯤 되는 계단을 내려가면 맨 밑에서 대리석 바위 사이로 더없이 맑은 물이 솟아난다. 위쪽을 빙 둘러싼 나지막한 담, 그 자리를 사방으로 덮은 키 큰 나무들, 그곳의 서늘함, 그 모든 것에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데가, 어딘가 으스스한 데가 있어. 내가 거기 한 시간씩 앉아 있지 않는 날은 하루도 없어. 그러면 시내에서 처녀들이 물을 길으러 와. 더없이 순박하고도 더없이 요긴한 일, 옛날에는 왕의 딸들이 몸소 하던 일이지. 거기 앉아 있으면 족장 시대의 정경이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난다. 옛 조상들이 샘가에서 서로 알게 되고 청혼하던 모습이며, 샘과 샘물 둘레에 은혜로운 정령들이 떠돌던 모습이. 아, 무더운 여름날 먼 길을 걸은 뒤 샘의 서늘함으로 기운을 되찾아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나 이 느낌을 함께 느끼지 못할 거야.

5월 13일

내 책을 보내 줄까 묻는 거야? 친구야, 제발 부탁이니 그것들을 내게서 치워 줘! 나는 이제 누가 이끌어 주고 북돋워 주고 부추겨 주는 걸 바라지 않아. 이 마음은 저 혼자서도 충분히 들끓으니까. 내게 필요한 건 자장가인데, 그걸 나는 내 호메로스에서 넘치도록 찾았어. 들끓는 내 피를 나는 얼마나 자주 달래어 재우는지 몰라. 이 마음만큼 들쭉날쭉하고 갈피를 못 잡는 것을 너는 본 적이 없을 테니까. 친구야! 내가 시름에서 방탕으로, 달콤한 우수에서 파멸을 부르는 정열로 넘어가는 것을 지켜보느라 그토록 자주 짐을 진 너에게 이걸 굳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내 여린 마음을 아픈 아이처럼 다뤄. 원하는 건 무엇이든 들어주지. 이 말은 다른 데 옮기지 마. 그걸 두고 나를 나무랄 사람들이 있으니까.

5월 15일

이곳의 가난한 사람들은 벌써 나를 알아보고 좋아해. 특히 아이들이 그래. 서글픈 사실을 하나 깨달았는데, 처음에 내가 그 사람들과 어울리며 이것저것 다정하게 물었을 때 몇몇은 내가 자기들을 놀리려는 줄 알고 아예 퉁명스럽게 쫓아 버리기까지 했다는 거야. 나는 그런 일로 언짢아하지 않았어. 다만 전부터 여러 번 느꼈던 것을 아주 생생하게 느꼈지. 신분이 좀 있는 사람들은 서민에게 다가가면 무언가 잃기라도 할 것처럼 늘 차갑게 거리를 둔다. 그런가 하면 몸을 낮추는 척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들의 오만을 더 따끔하게 느끼게 하는 경박한 사람들과 짓궂은 장난꾼들도 있다.

우리가 평등하지 않고 평등할 수도 없다는 건 나도 잘 알아. 그래도 나는 체면을 지키려면 이른바 천한 무리에게서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질까 봐 두려워 적을 피해 숨는 겁쟁이만큼이나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

얼마 전 샘에 갔더니 젊은 하녀 하나가 물동이를 맨 아래 계단에 내려놓고, 그걸 머리에 이는 걸 거들어 줄 동무가 오지 않나 두리번거리고 있었어. 나는 내려가서 그 아가씨를 바라보았다. "내가 거들어 줄까요, 아가씨?" 내가 말했다. 아가씨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아이고, 아니에요, 나리!" 아가씨가 말했다. "사양하지 말아요." 아가씨는 옷깃을 매만졌고, 나는 물동이를 이는 걸 거들어 주었다. 아가씨는 고맙다고 하고 계단을 올라갔다.

5월 17일

이것저것 아는 사람은 많이 생겼지만, 어울릴 만한 벗은 아직 찾지 못했어. 내게 사람을 끄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내게 매달려. 그래서 우리 길이 겨우 짧게만 겹칠 때면 마음이 아프다. 여기 사람들이 어떠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인류란 참 한결같은 것이다. 대부분은 먹고살기 위해 시간의 거의 전부를 일에 쏟고, 그러고도 조금 남는 자유가 오히려 겁이 나서 어떻게든 그것을 떨쳐 버릴 방도를 찾아다닌다. 오, 인간의 본분이여!

그래도 참 착한 사람들이야! 이따금 나도 나를 잊고, 잘 차린 식탁에 둘러앉아 터놓고 허물없이 농담을 주고받거나 알맞은 때에 마차나 들이나 춤판을 벌이는 것처럼 사람에게 아직 허락된 기쁨을 그들과 함께 누릴 때가 있어.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아져. 다만 내 안에 쓰이지 못한 채 썩어 가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숨겨 두어야 하는 다른 힘이 아직 얼마나 많이 잠들어 있는지는 떠올리지 말아야 해. 아,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온통 죄어든다. 그래도 어쩌겠어! 오해받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의 운명인걸.

아, 내 젊은 날의 벗이 세상을 떠나다니. 아, 내가 그 사람을 알았다니!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하겠지. 너는 바보야! 이승에서는 찾을 수 없는 것을 찾고 있잖아!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가졌었어. 그 마음을, 그 큰 영혼을 느꼈어. 그 사람 앞에 있으면 나는 실제의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된 것 같았지. 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었으니까. 하느님! 그때 내 영혼의 힘 가운데 쓰이지 않고 남은 것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내 마음이 자연을 끌어안는 그 놀라운 느낌을 나는 그 사람 앞에서 남김없이 펼쳐 보일 수 있지 않았던가?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은 더없이 섬세한 감정과 더없이 날카로운 재치가 끝없이 엮어 내는 피륙이 아니었던가? 그 재치는 무례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온갖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그 하나하나에 천재의 인장이 찍혀 있었어. 그런데 이제는! 아, 그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았던 만큼 나보다 먼저 무덤으로 갔다.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잊지 못할 거야. 그 굳센 마음도, 그 거룩한 너그러움도.

며칠 전에는 V라는 젊은이를 만났어. 터놓고 지내기 좋은 녀석이고 얼굴도 퍽 복스럽게 생겼는데, 대학을 갓 나온 참이라 스스로 현자라고 여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남보다는 더 안다고 믿는 눈치야. 이것저것 보니 공부도 열심히 한 모양이야. 한마디로 꽤 쓸 만한 지식이 있어. 내가 그림을 많이 그리고 그리스어를 할 줄 안다는 말을 듣더니(이 고장에서는 둘 다 별똥별처럼 드문 일이다) 내게 와서 아는 것을 잔뜩 늘어놓더라. 바퇴에서 우드까지, 드 필에서 빙켈만까지. 그러고는 줄처의 『이론』 제1권을 끝까지 다 읽었고, 고대 연구에 관한 하이네의 강의를 받아 적은 필사본까지 있다고 장담했어. 나는 그냥 내버려 두었지.

또 한 사람, 아주 훌륭한 사람을 알게 되었어. 제후의 법무관인데, 숨김없고 진실한 사람이야. 아이들 사이에 있는 그분을 보면 영혼이 기뻐진다고들 해. 아이가 아홉이나 되는데, 특히 맏딸 이야기를 다들 많이 해. 그분이 나를 초대해서, 머지않아 찾아가 볼 생각이야. 여기서 걸어서 한 시간 반 거리에 있는 제후의 사냥 별장에 사는데, 아내가 죽은 뒤 이곳 시내와 관아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리로 옮겨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대.

그 밖에 비뚤어진 괴짜 몇이 내 앞길에 굴러들어 왔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참을 수 없지만 그중에도 제일 못 참겠는 건 우정을 드러내는 짓거리야.

잘 있어! 이 편지는 네 마음에 꼭 들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일만 적었으니까.

5월 22일

사람의 삶이 꿈일 뿐이라는 생각은 벌써 많은 사람이 해 보았고, 이 느낌은 나에게도 늘 따라다닌다. 사람이 지닌, 일하고 탐구하는 힘이 얼마나 좁은 제약 속에 갇혀 있는지를 볼 때, 모든 활동이 결국 욕구를

채우는 데로 흘러가는데 그 욕구라는 것이 우리의 가엾은 생존을 늘이는 것 말고는 아무 목적도 없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무언가를 캐묻다가 어떤 대목에서 마음을 놓는 것도 꿈꾸는 체념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를 가두고 있는 벽에 알록달록한 형상과 환한 풍경을 그려 넣는 짓일 뿐이라는 것을 볼 때, 빌헬름, 그 모든 것 앞에서 나는 말을 잃는다. 나는 내 안으로 돌아가 거기서 하나의 세계를 찾아낸다! 하지만 그것도 분명한 모습과 살아 있는 힘보다는 예감과 어렴풋한 욕망 속의 세계여서, 모든 것이 내 감각 앞에서 아른거리고, 나는 꿈꾸듯 미소 지으며 세상 속으로 걸어간다.

아이들은 자기가 왜 무언가를 원하는지 모른다. 이 점에서는 학식 높은 학교 선생과 가정교사들의 의견이 모두 같다. 그런데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이 땅 위를 비틀거리며 돌아다니고, 아이들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참된 목적을 좇아 행동하지도 않으며, 아이들처럼 비스킷과 과자와 회초리로 다스려진다는 것, 그것은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내가 보기엔 손에 잡힐 듯 뻔한 일인데도.

네가 이 말에 뭐라고 할지 아니까 기꺼이 털어놓을게. 아이들처럼 그날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인형을 끌고 다니고, 옷을 벗겼다 입혔다 하고, 엄마가 과자를 넣고 잠가 둔 서랍 둘레를 잔뜩 공손하게 살금살금 맴돌다가, 마침내 바라던 것을 낚아채면 두 볼이 미어지게 먹으며 "더!" 하고 외치는 사람들 말이야. 그들은 행복한 피조물이다. 자기의 하찮은 소일거리나 심지어 자기의 정열에다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고, 그것을 인류의 구원과 복지를 위한 거대한 사업이라고 장부에 올리는 사람들도 형편이 좋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하겠지! 그러나 겸허하게 이 모든 것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아는 사람, 살 만한 시민마다 제 작은 뜰을 얼마나 알뜰하게 낙원으로 가꿀 줄 아는지, 불행한 사람도 짐을 진 채 얼마나 꿋꿋이 헐떡이며 제

길을 가는지, 그리고 모두가 이 햇빛을 일 분이라도 더 보려고 똑같이 애쓰는지를 보는 사람, 그래, 그런 사람은 말이 없다. 그도 제 세계를 제 안에서 지어내고, 사람이기에 그 역시 행복하다. 그리고 아무리 좁은 테두리에 갇혀 있어도 그는 늘 마음속에 자유의 달콤한 느낌을 간직한다.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이 감옥을 떠날 수 있다는 느낌을.

5월 26일

너는 예전부터 내 버릇을 알지. 어딘가 정이 가는 곳에 자리를 잡고 오두막을 하나 지어, 모든 것을 줄이고 그 안에 깃들어 사는 버릇 말이야. 여기서도 나를 끌어당기는 작은 곳을 하나 다시 찾아냈어.

시내에서 걸어서 한 시간쯤 되는 곳에 사람들이 발하임이라 부르는 마을이 있는데, 언덕에 기대앉은 자리가 아주 흥미로워서 오솔길을 따라 마을 위쪽으로 나가면 골짜기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보여. 나이가 들었어도 상냥하고 쾌활한 여주인이 포도주와 맥주와 커피를 파는 주막이 있고, 무엇보다 좋은 것은 보리수 두 그루야. 넓게 뻗은 가지로 교회 앞 작은 광장을 덮고 있는데, 광장은 빙 둘러 농가와 헛간과 마당으로 에워싸여 있어. 이렇게 정답고 아늑한 곳은 좀처럼 찾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주막에서 작은 탁자와 의자를 그리로 내다 놓게 하고, 거기서 커피를 마시며 내 호메로스를 읽어. 어느 맑은 오후에 우연히 처음 그 보리수 아래 갔을 때 그곳은 아주 한적했어. 다들 들일을 나갔고, 네 살쯤 된 사내아이 하나만 땅바닥에 앉아 있었지. 그 아이는 반 살쯤 된 다른 아기를 제 두 발 사이에 앉혀 두 팔로 가슴에 꼭 안고 있었는데, 그렇게 아기의 의자 노릇을 하면서 까만 눈으로 쾌활하게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 아주 얌전히 앉아 있었어. 그 모습이 즐거워서 나는 맞은편에 놓인 쟁기에 걸터앉아 형제의 그 모습을 퍽 신이 나서 그렸어. 바로 옆의 울타리와 헛간 문, 부서진 수레바퀴 몇 개도 모두 서 있는 차례 그대로 그려 넣었더니, 한 시간쯤 지나자 내 생각은 조금도

보태지 않았는데도 짜임이 좋고 아주 흥미로운 그림이 한 장 완성되어 있었어. 그 일로 나는 앞으로는 오로지 자연만 따르겠다는 결심을 굳혔어. 자연만이 끝없이 풍요롭고, 자연만이 위대한 예술가를 길러 낸다. 규칙을 편들어 할 말은 많겠지. 시민 사회를 칭찬하며 할 수 있는 말과 비슷한 말들 말이야. 규칙에 맞추어 자기를 다듬는 사람은 결코 멋없는 것, 형편없는 것을 만들어 내지 않을 거야. 법과 예의범절에 맞춰 빚어진 사람이 결코 견딜 수 없는 이웃이나 남다른 악당이 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 대신, 누가 뭐라고 하든, 모든 규칙은 자연의 참된 느낌과 그 참된 표현을 망가뜨리고 말 거야! 너는 이렇게 말하겠지. '그건 너무 심해! 규칙은 그저 테두리를 지어 주고, 웃자란 덩굴을 쳐 줄 뿐이야' 운운. 친구야, 비유를 하나 들어 볼까? 이건 사랑과 똑같아. 젊은 마음이 한 아가씨에게 온통 빠져서 하루의 모든 시간을 그 아가씨 곁에서 보내고, 자기가 그 아가씨에게 온전히 자신을 바친다는 것을 매 순간 보여 주려고 온 힘을, 온 재산을 쏟아붓는다고 하자. 그런데 거기에 속물 하나, 관직에 앉은 사람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말한다면. '젊은 양반! 사랑하는 것은 인간적인 일이오. 다만 인간답게 사랑해야 하오! 시간을 나누시오. 어떤 시간은 일에 쓰고, 쉬는 시간은 아가씨에게 바치시오. 재산을 따져 보고, 꼭 필요한 데 쓰고 남는 것이 있으면 그걸로 아가씨에게 선물을 하는 것까지 말리지는 않겠소. 다만 너무 자주는 말고, 생일이나 영명 축일 같은 때에나' 운운. 그 사람 말을 따르면 쓸모 있는 젊은이가 하나 생기겠지. 어느 제후에게든 그 젊은이를 관청에 앉히라고 나부터 권하겠어. 다만 그의 사랑은 그걸로 끝장이고, 그가 예술가라면 그의 예술도 끝장이야. 오, 친구들이여! 천재의 물줄기가 왜 그렇게 드물게 터져 나오는지, 왜 그렇게 드물게 높은 물결로 밀려들어 너희의 놀란 영혼을 뒤흔드는지 아니? 친구들이여, 그 강 양쪽 기슭에는 점잖은 양반들이 살고 있거든. 물이

넘치면 그들의 정자며 튤립 꽃밭이며 배추밭이 쓸려 가 버릴 테니, 그들은 미리 둑을 쌓고 물길을 돌려서 앞으로 닥칠지 모를 위험을 막을 줄 아는 거야.

5월 27일

보아하니 나는 황홀경에, 비유와 웅변에 빠져서 그 아이들이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끝까지 이야기하는 걸 잊었구나. 어제 편지에서 아주 토막토막 내보인 그 화가다운 느낌에 흠뻑 잠긴 채, 나는 그 쟁기 위에 두 시간은 앉아 있었어. 그러자 저녁 무렵 젊은 여자 하나가 작은 바구니를 팔에 걸고, 그동안 꼼짝도 하지 않던 아이들에게로 다가오며 멀리서 소리친다. "필립스, 정말 착하구나." 여자는 내게 인사를 했고, 나도 답례하고 일어나 가까이 가서 아이들의 어머니냐고 물었어. 여자는 그렇다고 하면서 큰아이에게 흰 빵 반 조각을 주고, 어린것을 안아 들어 어머니의 온 사랑을 담아 입을 맞추었다. "필립스한테 어린것을 봐 달라고 맡기고 저는 맏이를 데리고 시내에 갔다 왔어요. 흰 빵이랑 설탕이랑 죽 끓일 질냄비를 사러요." 여자가 말했다. 뚜껑이 떨어져 나간 바구니 안에 그 모든 것이 보였다. "우리 한스(막내 이름이 그랬다)한테 저녁에 수프를 끓여 주려고요. 큰 녀석, 그 말썽꾸러기가 어제 필립스하고 냄비 바닥에 눌어붙은 죽을 두고 다투다가 냄비를 깨 먹었거든요." 내가 맏이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더니, 여자가 풀밭에서 거위 몇 마리를 쫓아다니고 있다고 말하기가 무섭게 그 아이가 뛰어와 둘째에게 개암나무 회초리를 하나 건네주었다. 나는 그 여자와 이야기를 더 나누다가, 여자가 교사의 딸이고 남편은 사촌의 유산을 받으러 스위스로 길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 사람들이 남편을 속이려고 편지에 답장도 안 했대요. 그래서 남편이 직접 그리로 간 거예요. 무슨 사고나 없었으면 좋겠는데, 통 소식이 없어요." 그 여자와 헤어지기가 쉽지 않았어. 나는 아이들에게 크로이처 한 닢씩을 주었고,

막내 몫으로도 한 닢을 여자에게 주며 시내에 갈 때 그 애 수프에 넣을 흰 빵을 사다 주라고 했어. 그렇게 우리는 헤어졌다.

친구야, 내 감각이 더는 버티지 못할 때 그 온갖 소동을 가라앉혀 주는 건 이런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야. 행복한 평온 속에서 제 삶의 좁은 테두리를 걸어가고, 하루하루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 가고, 잎이 지는 것을 보면서도 겨울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밖에 하지 않는 사람 말이야.

그 뒤로 나는 자주 그리로 나가. 아이들은 나한테 아주 익숙해졌어. 내가 커피를 마실 때면 설탕을 얻어 가고, 저녁이면 버터 바른 빵과 신 우유를 나와 나눠 먹지. 일요일마다 크로이처 한 닢은 빠짐없이 받고, 내가 예배 시간이 끝난 뒤에 거기 가 있지 않으면 주막 여주인이 대신 내주라는 분부를 받아 두었어.

아이들은 나를 스스럼없이 대하고 온갖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특히 마을 아이들이 더 모여들 때 그 애들이 드러내는 정열과 꾸밈없이 터져 나오는 욕심을 보는 게 나는 아주 즐거워.

아이들이 나리를 성가시게 해 드릴까 봐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덜어 주느라 무척 애를 먹었어.

5월 30일

얼마 전에 그림에 관해 네게 한 말은 시에도 분명히 들어맞아. 뛰어난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감히 말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물론 몇 마디 안 되는 말에 많은 것이 담겼지만. 오늘 나는 한 장면을 보았는데, 있는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가가 될 거야. 하지만 시니 장면이니 목가니 하는 게 다 무슨 소용이야? 우리가 자연의 한 모습에 마음을 쏟으려면 꼭 그렇게 무언가를 깎고 다듬어야 하는 걸까?

이런 서두를 보고 무언가 고상하고 거창한 이야기를 기대한다면 너는 또 단단히 속은 거야. 나를 이렇게 생생하게 사로잡은 건 다름 아닌 농군

머슴 하나니까. 늘 그렇듯 나는 이야기를 서툴게 할 테고, 너는 늘 그렇듯 내가 과장한다고 여기겠지. 이번에도 발하임이야. 이런 귀한 일들을 낳는 건 언제나 발하임이야.

보리수 아래에서 사람들이 모여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 그 사람들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는 핑계를 대고 뒤에 남았지.

농군 머슴 하나가 이웃집에서 나와, 얼마 전 내가 그렸던 그 쟁기에 붙어 무언가를 손보기 시작했어. 그 사람 됨됨이가 마음에 들어서 나는 말을 걸고 형편을 물었는데, 우리는 곧 알게 되었고, 이런 부류 사람들과 늘 그렇듯 곧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어. 그 사람은 어느 과부 집에서 일하는데 대접을 아주 잘 받는다고 했고, 그 여주인 이야기를 어찌나 많이 하고 어찌나 칭찬하던지 그가 그 여자에게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 있다는 걸 금세 알아챌 수 있었지. 여주인은 이제 젊지 않고, 첫 남편에게 몹쓸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시집가지 않으려 한다고 했어. 그런데 그의 이야기에서는 그 여자가 그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매혹적인지, 그 여자가 자기를 골라 첫 남편의 잘못에 대한 기억을 지워 주게 해 주기를 그가 얼마나 바라는지가 너무나 또렷이 비쳐 나와서, 이 사람의 순수한 애정과 사랑과 신의를 네 눈에 그려 보이려면 그 말을 한 마디 한 마디 다 되풀이해야 할 정도야. 아니, 그의 몸짓에 담긴 표정과 목소리의 울림과 눈빛에 감춰진 불꽃까지 함께 생생하게 그려 내려면 가장 위대한 시인의 재능이 있어야 할 거야. 그래, 그의 온 존재와 표정에 깃들어 있던 그 섬세함은 어떤 말로도 나타낼 수 없어. 내가 옮길 수 있는 건 다 투박할 뿐이야. 특히 마음을 울린 건, 내가 그와 여주인의 사이를 엉뚱하게 생각하거나 그 여자의 행실을 의심하지나 않을까 그가 걱정하던 모습이야. 그가 그 여자의 생김새와 몸에 대해, 젊음의 매력은 없어도 그를 억누를 수 없이 끌어당겨 사로잡는 그 몸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게 얼마나 매혹적이었는지는, 나

혼자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나 되새길 수 있을 뿐이야. 나는 평생 그렇게 간절한 욕망과 뜨겁고 애타는 그리움을 이토록 순수한 모습으로 본 적이 없어. 아니, 이토록 순수한 것은 생각해 본 적도 꿈꿔 본 적도 없다고 해도 좋아. 나를 나무라지 마. 그 순진함과 진실함을 떠올리면 내 영혼 가장 깊은 곳이 달아오르고, 그 신의와 다정함의 모습이 어디든 나를 따라다니고, 나 자신이 거기 불이 붙기라도 한 것처럼 목말라 애태운다고 해도.

이제 그 여자도 되도록 빨리 한번 보려고 해. 아니, 곰곰 생각해 보니 그러지 않는 게 낫겠어. 그 여자는 그를 사랑하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나아. 내 눈으로 보면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모습과 다르게 보일지도 모르잖아. 그 아름다운 그림을 내가 왜 망쳐야 해?

6월 16일

왜 편지를 안 쓰느냐고? 그런 걸 묻다니, 너도 학식 있는 사람이면서. 내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쯤은 짐작했어야지.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내 마음에 바짝 다가온 사람을 알게 되었어. 나는…… 모르겠어.

더없이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차례대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거야. 나는 즐겁고 행복해. 그러니 좋은 역사가는 못 돼.

천사라니! 쳇! 누구나 제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하지, 안 그래?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완벽한지, 왜 완벽한지 네게 말할 재간이 없어. 이것만 말해 둘게. 그 사람이 내 온 마음을 사로잡았어.

그토록 영리하면서 그토록 순박하고, 그토록 굳세면서 그토록 착하고, 참되게 살며 부지런히 움직이면서도 영혼은 고요해. 내가 그 사람을 두고 하는 이런 말은 다 쓰레기 같은 헛소리야. 그 사람의 모습을 한 가닥도 그려 내지 못하는 지긋지긋한 추상일 뿐이야. 다음에…… 아니, 다음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야기할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못 할

거야. 우리끼리 얘기지만, 편지를 쓰기 시작한 뒤로 나는 벌써 세 번이나 펜을 내려놓고 말에 안장을 얹게 해서 그리로 달려가려 했어. 오늘 아침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맹세해 놓고도, 해가 아직 얼마나 높이 떠 있나 보려고 자꾸만 창가로 가. 이겨 내지 못했어. 그 사람에게 가야만 했어. 빌헬름, 이제 다시 돌아왔어. 저녁으로 버터 바른 빵을 먹으며 네게 편지를 쓸 거야. 정답고 쾌활한 아이들, 그 사람의 동생 여덟에게 둘러싸인 그 사람을 보는 게 내 영혼에 얼마나 큰 환희인지! 이대로 계속 쓰다가는 너는 끝에 가서도 처음만큼밖에 모르겠지. 그럼 들어 봐. 억지로라도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

얼마 전에 네게 썼지. S 법무관을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자기 은신처, 아니 자기의 작은 왕국에 곧 놀러 오라고 했다고. 나는 그걸 미뤄 두었고, 그 조용한 고장에 숨겨져 있던 보물을 우연이 내게 드러내 보이지 않았더라면 아마 영영 가지 않았을지도 몰라.

이곳 젊은이들이 시골에서 무도회를 열기로 했고, 나도 기꺼이 끼기로 해서, 이곳에 사는 착하고 예쁘지만 그 밖에는 별 볼 일 없는 아가씨에게 춤 상대가 되어 달라고 청했어. 그리고 내가 마차를 한 대 빌려 내 춤 상대와 그 사촌을 태우고 잔치가 열리는 곳으로 가면서, 가는 길에 샤를로테 S를 태워 가기로 정해졌지. "아름다운 아가씨를 알게 되실 거예요." 넓게 베어 낸 숲을 지나 사냥 별장으로 가는 길에 내 춤 상대가 말했어. "조심하세요." 사촌이 거들었다. "반하지 않게요!" "어째서요?" 내가 물었다. "벌써 임자가 있거든요." 춤 상대가 대답했다. "아주 훌륭한 남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안일을 정리하고 번듯한 자리도 구해 보려고 멀리 떠나 있어요." 그 소식은 내게 별 상관이 없었어.

우리가 마당 문 앞에 마차를 댔을 때 해가 산 너머로 지려면 아직 15분쯤 남아 있었어. 몹시 무더웠고, 아가씨들은 희끄무레하고 눅눅한 작은 구름들이 지평선 둘레에 모여드는 것을 보고 뇌우가 오지 않을까

걱정했어. 나는 날씨를 아는 척 큰소리를 쳐서 그 사람들의 걱정을 달랬지만, 실은 나도 우리 잔치가 낭패를 보겠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

마차에서 내리자 하녀 하나가 문으로 나와서, 로테 아가씨가 곧 나오실 테니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했어. 나는 마당을 지나 잘 지은 집으로 갔고, 앞 계단을 올라 문을 들어서는 순간 내 평생 본 것 가운데 가장 매혹적인 광경이 눈에 들어왔어. 현관방에서 열한 살부터 두 살까지 여섯 아이가 한 아가씨 둘레에서 북적거리고 있었어. 아가씨는 몸매가 아름답고 키는 중간쯤이었으며, 팔과 가슴에 연분홍 리본을 단 수수한 흰 옷을 입고 있었어. 검은 빵을 한 덩이 들고 둘러선 꼬마들에게 나이와 식욕에 맞추어 한 조각씩 잘라 주고 있었는데, 어찌나 다정하게 건네주던지. 아이들은 빵을 자르기도 전부터 작은 손을 한참 높이 뻗치고 있다가, 저마다 꾸밈없이 "고마워!" 하고 외치고는 저녁 빵을 들고 신이 나서 뛰어가거나, 좀 얌전한 아이는 낯선 손님들과 자기네 로테가 타고 갈 마차를 보러 마당 문 쪽으로 차분히 걸어갔어. "죄송해요." 아가씨가 말했다. "번거롭게 안까지 들어오시게 하고, 아가씨들을 기다리게 해서요. 옷을 차려입고 제가 없는 동안 집안일을 이것저것 일러두느라 아이들에게 간식 주는 걸 잊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 말고는 아무한테도 빵을 잘라 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나는 아무 의미 없는 인사말을 건넸지만, 내 온 영혼은 그 모습에, 그 목소리에, 그 몸가짐에 머물러 있었고, 놀란 마음을 겨우 가라앉혔을 즈음 아가씨는 장갑과 부채를 가지러 방으로 뛰어 들어갔어. 꼬마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나를 곁눈질로 바라보았고, 나는 막내에게 다가갔어. 더없이 복스러운 얼굴의 아이였어. 아이가 뒷걸음질 치는데 마침 로테가 문으로 나오며 말했어. "루이, 친척 아저씨께 손 내밀어

드려." 아이는 아주 스스럼없이 그렇게 했고, 나는 아이의 콧물 묻은 작은 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진심으로 입을 맞추고 말았어.

"친척 아저씨라고요?" 나는 로테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제가 아가씨와 친척이 될 만한 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머." 로테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우리 친척은 아주 넓게 퍼져 있거든요. 그 많은 친척 가운데 제일 못된 사람이 하필 베르테르 씨라면 서운하겠어요." 로테는 나가면서 자기 바로 아래 동생인 열한 살쯤 된 조피에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 아버지가 말 타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시면 안부를 전해 드리라고 일렀다. 꼬마들에게는 자기에게 하듯 조피 언니 말을 잘 들으라고 했고, 몇몇은 꼭 그러겠다고 다짐까지 했다. 그런데 여섯 살쯤 된 깜찍한 금발 꼬마 하나가 말했다. "그래도 조피 언니는 로테 언니가 아니잖아. 우린 로테 언니가 더 좋단 말이야." 큰 사내아이 둘은 마차 뒤에 기어올라 있었는데, 내가 사정해 주자 로테는 서로 장난치지 않고 꼭 붙잡고 있겠다고 약속하면 숲 앞까지 같이 타고 가도 좋다고 허락했다.

우리가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아가씨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서로의 옷차림, 특히 모자를 두고 한마디씩 하고, 무도회에 올 사람들을 한바탕 흉보았어. 그러는 사이 로테가 마부에게 마차를 세우게 하고 동생들을 내리게 했지. 아이들은 누나 손에 한 번 더 입을 맞추겠다고 졸랐고, 맏이는 열다섯 살 나이에 어울릴 만한 온갖 다정함을 담아, 둘째는 무척 거칠고 덜렁대며 입을 맞추었어. 로테는 꼬마들에게 다시 한번 안부를 전하라고 했고, 우리는 길을 계속 갔어.

사촌이 로테에게 얼마 전에 보낸 책을 다 읽었느냐고 물었어. "아뇨." 로테가 말했다. "마음에 안 들어요. 도로 가져가세요. 그 전 책도 더 나을 게 없었어요." 무슨 책이냐고 물었다가 로테의 대답을 듣고 나는 깜짝 놀랐어. 그 대답은…… 나는 로테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서 깊은 성품을

보았고, 말 한마디마다 그 얼굴에서 새로운 매력이, 정신의 새로운 빛줄기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았어. 내가 자기를 이해한다는 것을 느꼈는지, 그 얼굴은 차츰 즐겁게 피어나는 것 같았어.

"어렸을 때는 소설만큼 좋아한 게 없었어요." 로테가 말했다. "일요일에 어디 구석에 앉아 미스 제니의 행복과 불운을 온 마음으로 함께 느낄 수 있을 때면, 하느님은 아시겠지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책이 지금도 제게 어느 정도 매력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책을 손에 잡는 일이 워낙 드무니까 정말 제 취향에 맞는 책이어야 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는 그 안에서 제 세계를 다시 만나게 되는 사람, 제 주변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도 그 이야기가 제 집안 살림만큼이나 흥미롭고 마음에 와닿는 사람이에요. 제 살림이야 물론 낙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는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솟아나는 샘이거든요."

나는 이 말에 흔들리는 마음을 감추려고 애썼어. 물론 오래가지는 못했지. 로테가 지나가는 말로 『웨이크필드의 목사』며 ……에 대해 그토록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는 완전히 넋을 잃었고, 해야 할 말을 다 쏟아 냈어. 한참 뒤에 로테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돌렸을 때에야, 그 사람들이 그동안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처럼 눈만 뜨고 앉아 있었다는 걸 알아챘지. 사촌은 여러 번 비웃듯 콧날을 세우고 나를 쳐다보았지만,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어.

이야기는 춤추는 즐거움으로 넘어갔어. "이 정열이 잘못이라면 기꺼이 고백할게요." 로테가 말했다. "저는 춤만큼 좋은 게 없어요. 뭔가 머릿속이 복잡할 때 음이 어긋난 제 클라비어로 콩트르당스 한 곡을 두들기고 나면 다 괜찮아져요."

이야기하는 동안 내가 얼마나 그 까만 눈동자에 넋을 빼앗겼는지, 그 생기 있는 입술과 싱그럽고 발랄한 뺨이 얼마나 내 온 영혼을

끌어당겼는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의 근사한 뜻에 깊이 빠져서 그 사람이 어떤 낱말로 말하는지조차 얼마나 자주 듣지 못했는지, 너는 나를 아니까 짐작이 가겠지. 간단히 말하면, 무도회가 열리는 집 앞에 마차가 멈췄을 때 나는 꿈꾸는 사람처럼 마차에서 내렸고, 어스름 내린 세상 속에서 꿈에 잠겨 넋을 놓고 있었던 탓에, 불 밝힌 큰방에서 우리를 맞으며 울려 오는 음악 소리에도 거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

오드랑 씨 두 사람과 아무개라는 사람이(그 많은 이름을 누가 다 기억하겠어) 사촌과 로테의 춤 상대였는데, 마차 문 앞에서 우리를 맞아 자기 아가씨들을 데려갔고, 나는 내 아가씨를 모시고 위층으로 올라갔어.

우리는 미뉴에트를 추며 서로 빙빙 감돌았는데, 내가 아가씨들에게 차례로 춤을 청하자 하필 가장 견디기 힘든 아가씨들일수록 손을 내밀고 끝을 맺을 줄을 몰랐어. 로테와 그 춤 상대가 영국 춤을 시작했고, 줄지어 추다가 로테가 우리와 한 무리가 되어 춤 동작을 시작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을지 너도 느낄 수 있을 거야. 로테가 춤추는 걸 봐야 해! 봐, 그 사람은 온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춤에 빠져 있어. 온몸이 하나의 화음이고, 그토록 근심 없고 그토록 거리낌 없어. 마치 이것이 전부라는 듯이, 그 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다는 듯이. 그 순간에는 분명 다른 모든 것이 그 사람 앞에서 사라져 버릴 거야.

나는 로테에게 두 번째 콩트르당스를 청했어. 로테는 세 번째를 약속하더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럽게 스스럼없는 태도로 독일 춤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했어. "여기서는 한 짝인 사람끼리 독일 춤을 출 때는 끝까지 같이 추는 게 유행이에요." 로테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제 짝은 왈츠가 서툴러서, 제가 그 수고를 덜어 주면 오히려 고마워할 거예요. 함께 오신 아가씨도 왈츠를 못 추고 추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영국 춤을

추실 때 보니 왈츠를 잘 추시겠던데, 독일 춤을 저와 추고 싶으시면 가서 제 짝에게 허락을 받으세요. 저는 그쪽 아가씨에게 가 볼게요." 나는 손을 내밀어 약속했고, 우리는 그동안 로테의 짝이 내 춤 상대의 말벗이 되어 주기로 정했어.

드디어 춤이 시작되었고, 우리는 한동안 팔을 갖가지로 엮었다 풀었다 하며 즐겼어. 로테가 얼마나 매혹적으로, 얼마나 날렵하게 움직이던지! 그러다 마침내 왈츠가 시작되어 천체들처럼 서로를 감돌며 구르자, 처음에는 제대로 출 줄 아는 사람이 아주 드물어서 물론 조금 뒤죽박죽이 되었어. 우리는 영리하게 그 사람들이 실컷 날뛰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가장 서툰 사람들이 춤판을 비우자 끼어들어, 또 한 쌍인 오드랑과 그 춤 상대와 함께 끝까지 씩씩하게 버텼어. 그렇게 몸이 가볍게 움직인 적은 없었어. 나는 더는 사람이 아니었어. 더없이 사랑스러운 사람을 품에 안고 폭풍처럼 함께 날아다니니 주위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빌헬름,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때 맹세했어. 내가 사랑하는 아가씨, 내가 마음을 둘 권리가 있는 아가씨는, 설령 그 때문에 내가 파멸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 말고 다른 누구와도 왈츠를 추게 하지 않겠다고. 내 말 알겠지!

우리는 숨을 돌리려고 큰방을 몇 바퀴 걸어서 돌았어. 그러고 나서 로테가 자리에 앉았는데, 내가 한쪽에 챙겨 둔 오렌지가 이제 남은 것이라곤 그것뿐이어서 아주 요긴하게 쓰였어. 다만 로테가 예의상 염치없는 옆자리 아가씨에게 한 조각씩 나누어 줄 때마다 내 가슴은 바늘에 찔리는 것 같았지.

세 번째 영국 춤에서 두 번째 짝이 된 우리가 줄 사이를 춤추며 지나가는 동안, 하느님은 아시겠지만 나는 더없는 환희에 잠겨 로테의 팔과 눈에 매달려 있었어. 그 눈에는 더없이 활짝 열린 순수한 즐거움이 참되게 가득 담겨 있었지. 그러다 한 부인 곁에 이르렀는데, 이제 그리

젊지 않은 얼굴에 퍽 상냥한 표정이 어려 있어서 전부터 내 눈에 띄던 사람이야. 그 부인이 웃으며 로테를 바라보더니 을러대듯 손가락 하나를 치켜들고, 스쳐 지나가는 사이에 알베르트라는 이름을 두 번, 아주 의미심장하게 부른다.

"알베르트가 누구예요?" 나는 로테에게 물었다. "여쭤봐도 실례가 안 된다면요." 로테가 막 대답하려는데 큰 8자 돌기를 하느라 우리는 서로 떨어져야 했고, 그렇게 서로 엇갈려 지나칠 때 로테의 이마에 무언가 생각에 잠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 "숨길 게 뭐 있겠어요." 나란히 걷는 대목에서 내게 손을 내밀며 로테가 말했다. "알베르트는 훌륭한 사람이고, 저는 그 사람과 약혼한 거나 다름없어요." 그건 새로운 소식이 아니었어(오는 길에 아가씨들이 말해 주었으니까). 그런데도 너무나 새로웠어. 몇 순간 만에 내게 그토록 소중해진 로테와 이어서 그 일을 생각해 본 적은 아직 없었으니까. 아무튼 나는 정신이 어지러워져 나를 잊고 엉뚱한 짝 사이로 끼어드는 바람에 모든 게 엉망이 되었고, 로테가 침착하게 이리 끌고 저리 당기며 온 정신을 다 쏟고서야 겨우 금세 바로잡을 수 있었어.

춤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까부터 지평선에서 번쩍이는 것이 보였고 내가 줄곧 마른번개일 뿐이라고 둘러대던 번개가 훨씬 세지기 시작하더니 천둥소리가 음악을 덮어 버렸어. 아가씨 셋이 줄에서 뛰쳐나가고 그 짝들이 뒤따랐어. 소란이 온 방에 번졌고 음악이 멎었지. 즐거움 한가운데서 불행이나 무서운 일이 우리를 덮치면 여느 때보다 더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 당연해. 한편으로는 대비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쪽이 더 큰 까닭인데, 우리 감각이 이미 느낌을 향해 활짝 열려 있어서 그만큼 더 빨리 인상을 받아들이기 때문이야. 여러 아가씨가 터뜨린 기묘한 표정들도 이런 까닭으로 돌릴 수밖에 없어. 가장 영리한 아가씨는 한구석에 창을

등지고 앉아 귀를 막았어. 또 한 아가씨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첫 번째 아가씨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어. 세 번째 아가씨는 그 둘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눈물을 줄줄 흘리며 두 동무를 끌어안았지. 몇몇은 집에 가겠다고 했고,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더 모르는 다른 아가씨들은 우리 젊은 녀석들의 뻔뻔한 짓을 막을 만큼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녀석들은 하늘로 올라가야 할 겁에 질린 기도를 곤경에 빠진 미인들의 입술에서 죄다 가로채느라 무척 바빠 보였어. 우리 신사들 몇은 조용히 파이프 담배를 피우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나머지 일행은 덧문과 휘장이 있는 방을 내주겠다는 여주인의 영리한 제안을 마다하지 않았어. 그 방에 들어서자마자 로테는 의자를 둥글게 늘어놓느라 바빴고, 일행이 로테의 부탁대로 자리에 앉자 놀이를 하나 하자고 제안했어.

벌칙 놀음에서 달콤한 몫이라도 챙길까 하는 기대에 입술을 쪽 내밀고 몸을 쭉 펴는 사람이 여럿 눈에 띄었다. "숫자 세기 놀이를 해요!" 로테가 말했다. "자, 잘 들어요! 제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원을 따라 돌 테니, 여러분도 빙 돌아가며 자기 차례에 오는 수를 하나씩 세는 거예요. 불이 번지듯 빨리 이어져야 하고, 막히거나 틀리는 사람은 따귀를 한 대 맞아요. 그렇게 천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볼 만했다. 로테는 팔을 쭉 뻗고 원을 따라 돌았다. 첫 사람이 "하나" 하고 시작하자 옆 사람이 "둘", 그다음 사람이 "셋", 그렇게 차례로 이어졌다. 그러다 로테가 걸음을 재촉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빨리. 그러자 누군가 틀렸다. 철썩! 따귀 한 대. 다들 웃음을 터뜨리는 바람에 다음 사람도 틀렸다. 철썩! 그리고 점점 더 빨리. 나도 따귀를 두 대 얻어맞았는데, 로테가 다른 사람들에게 때리는 것보다 더 세게 때린 것 같아서 속으로 몹시 기뻤다. 천까지 다 세기도 전에 모두가 웃고 떠드는 통에 놀이는 끝나 버렸다. 가까운 사이끼리 서로 짝지어 한쪽으로 물러났고, 뇌우는 지나갔으며, 나는 로테를 따라 큰방으로 갔다. 가는 길에 로테가 말했다. "따귀

맞느라 다들 날씨고 뭐고 다 잊어버렸네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저도 제일 겁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였어요." 로테가 말을 이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려고 대담한 척하다 보니 정말 용감해졌지 뭐예요." 우리는 창가로 갔다. 천둥은 먼 데서 울리고, 고마운 비가 들판 위로 소리 없이 내렸으며, 더없이 상쾌한 향기가 따뜻한 공기에 가득 실려 우리에게로 올라왔다. 로테는 팔꿈치를 괴고 서서 바깥 풍경을 깊이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나를 보았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로테는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말했다. "클롭슈토크!" 나는 곧바로 로테가 마음에 품고 있던 장엄한 송가를 떠올렸고, 로테가 그 한마디 암호로 내게 쏟아부은 감정의 물결 속으로 빠져들었다.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로테의 손 위로 몸을 숙이고 더없이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그 손에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다시 그 눈을 올려다보았다. 고귀한 시인이여! 이 눈길 속에서 당신을 우러르는 마음을 당신이 보았더라면! 그토록 자주 더럽혀진 당신의 이름을, 나는 이제 다시는 남의 입에서 듣고 싶지 않다!

6월 19일

지난번 이야기를 어디까지 했는지 이제는 기억나지 않아. 다만 잠자리에 든 게 새벽 두 시였다는 것, 그리고 편지를 쓰는 대신 네 앞에서 수다를 떨 수 있었다면 아마 아침까지 너를 붙잡아 두었으리라는 것은 알아.

무도회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지. 오늘도 그럴 만한 날이 아니야.

더없이 장엄한 해돋이였어. 물방울 떨어지는 숲과 생기를 되찾은 주위의 들판! 함께 탄 아가씨들은 꾸벅꾸벅 졸았어. 로테는 나도 같이 눈을 붙이지 않겠느냐고, 자기 때문이라면 마음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이 눈이 떠 있는 걸 보는 동안은 아무 걱정 없어요." 나는 로테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리고 우리 둘은 로테네 대문 앞까지 끝내 버텼는데, 하녀가 조용히 문을 열어 주고는 로테가 묻자 아버지도 꼬마들도 잘 있고 다들 아직 자고 있다고 했어. 나는 그날 안에 다시 만나게 해 달라고 부탁하며 로테와 헤어졌어. 로테는 허락해 주었고, 나는 갔어. 그 뒤로는 해와 달과 별이 태평하게 제 살림을 꾸려 가도 상관없어. 나는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고, 온 세상이 내 주위에서 사라져 버렸어.

6월 21일

하느님이 성인들에게나 아껴 두시는 행복한 나날을 나는 살고 있으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든 삶의 기쁨을, 가장 순수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야. 너도 내 발하임을 알지. 나는 거기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 거기서 로테에게 가려면 반 시간밖에 안 걸려. 거기서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행복을 느껴.

발하임을 산책할 곳으로 골랐을 때, 그곳이 하늘과 이렇게 가까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내 모든 소망을 품고 있는 그 사냥 별장을, 나는 먼 길을 거닐다가 때로는 산 위에서, 때로는 들판에서 강 건너로 얼마나 자주 바라보았는지 몰라!

빌헬름, 나는 이것저것 생각해 보았어. 널리 퍼져 나가고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떠돌아다니고 싶어 하는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그리고 다시, 기꺼이 제약에 몸을 맡기고 익숙한 길을 따라 오른쪽도 왼쪽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굴러가고 싶어 하는 마음속 충동에 대해서.

참 신기한 일이야. 이곳에 와서 언덕 위에서 아름다운 골짜기를 내려다보았을 때, 사방의 모든 것이 나를 얼마나 끌어당겼는지. 저기 작은 숲! 아, 저 그늘 속에 섞여들 수 있다면! 저기 산꼭대기! 아, 저기서 넓은 고장을 내려다볼 수 있다면! 서로 사슬처럼 이어진 언덕들과 정다운 골짜기들! 오, 저 속에서 나를 잃어버릴 수 있다면! 나는 서둘러

가 보았다가 돌아왔고, 바라던 것을 찾지 못했어. 오, 먼 곳은 미래와 똑같아! 어스름에 싸인 커다란 전체가 우리 영혼 앞에 놓여 있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눈처럼 그 안으로 흐릿하게 풀어져 들어가. 그러면 우리는, 아! 우리의 온 존재를 바치고 싶어서, 단 하나의 크고 장엄한 느낌이 주는 온갖 환희로 우리를 가득 채우고 싶어서 애가 탄다. 그리고 아! 서둘러 가 닿아서 저기가 여기가 되고 나면, 모든 것은 전과 다름이 없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가난 속에, 우리의 좁은 테두리 속에 서 있고, 우리의 영혼은 빠져나가 버린 위안을 찾아 목말라한다.

그래서 가장 갈피를 못 잡는 떠돌이도 끝내는 고향을 다시 그리워하고, 제 오두막에서, 아내의 품에서, 아이들에 둘러싸여,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 속에서, 넓은 세상에서 헛되이 찾아 헤매던 환희를 찾아낸다.

아침마다 해가 뜰 때 내 발하임으로 나가서 주막 뜰에서 손수 완두를 따고, 자리에 앉아 꼬투리의 실을 벗기며 틈틈이 내 호메로스를 읽을 때, 작은 부엌에서 냄비를 하나 골라 버터를 떠 넣고 꼬투리째 불에 올려 뚜껑을 덮고 그 곁에 앉아 이따금 흔들어 줄 때, 그럴 때면 페넬로페에게 청혼하러 온 오만한 구혼자들이 황소와 돼지를 잡아 가르고 굽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 족장 시대 삶의 자취만큼 나를 고요하고 참된 감정으로 채워 주는 것은 없어. 하느님 덕분에 나는 그 자취를 꾸밈없이 내 살림살이에 엮어 넣을 수 있어.

자기가 손수 기른 배추 한 포기를 식탁에 올리면서, 그 배추만이 아니라 그것을 심던 맑은 아침과 물을 주던 사랑스러운 저녁들과 그것이 쑥쑥 자라는 것을 보며 기뻐하던 그 모든 좋은 날을 한순간에 다시 함께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느끼는 소박하고 순진한 환희를 내 마음도 느낄 수 있다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6월 29일

그저께 시내 의사가 법무관을 보러 이리로 나왔다가, 내가 로테의 동생들 틈에서 땅바닥에 뒹구는 걸 보았는데, 몇은 내 위로 기어오르고 몇은 나를 놀려 대고, 나는 아이들을 간질이며 함께 시끌벅적하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지. 그 의사는 아주 교조적인 꼭두각시인데, 말을 하면서 소맷부리 주름을 매만지고 목둘레의 주름 장식을 끝도 없이 잡아빼는 사람이야. 그는 이런 짓이 지각 있는 사람의 체면에 맞지 않는다고 여겼어. 그의 코를 보고 알았지. 하지만 나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가 아주 사리에 맞는 이야기를 늘어놓게 내버려 둔 채 아이들이 무너뜨린 카드 집을 다시 지어 주었어. 그 뒤로 그는 시내를 돌아다니며, 법무관네 아이들은 그러지 않아도 버릇이 없는데 그 베르테르라는 자가 이제 아주 망쳐 놓는다고 투덜거렸대.

그래, 빌헬름, 이 땅에서 내 마음에 가장 가까운 건 아이들이야.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그 작은 것 안에서 언젠가 꼭 필요하게 될 온갖 미덕과 온갖 힘의 싹을 볼 때, 고집에서 장차 굳건하고 단단한 성품을, 장난에서 세상의 위험을 가볍게 비켜 지나갈 좋은 기분과 경쾌함을 볼 때, 그 모든 것이 그토록 때 묻지 않고 그토록 온전할 때! 그럴 때면 나는 늘, 늘 인류의 스승이 하신 금과옥조를 되뇐다. "너희가 이 아이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지 않으면!" 그런데 친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할 아이들을 우리는 아랫사람처럼 다룬다. 아이들은 제 뜻을 가져서는 안 된다나! 그럼 우리는 뜻이 없나? 그 특권은 대체 어디서 오지? 우리가 나이가 더 많고 더 똑똑하니까! 하늘에 계신 선하신 하느님, 당신 눈에는 늙은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보일 뿐, 그 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시는지는 당신의 아들이 벌써 오래전에 알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믿으면서도 그분 말씀을 듣지 않아. 그것도 해묵은

이야기지! 그러고는 자기 아이들을 제 모습대로 길러 내고, 그리고…… 잘 있어, 빌헬름! 이 이야기로 더 횡설수설하고 싶지 않아.

7월 1일

로테가 앓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일지, 나는 내 가슴으로 느껴. 병상에서 시들어 가는 많은 사람보다 내 가슴이 더 형편없으니까. 로테는 며칠 동안 시내에 사는 어느 훌륭한 부인 곁에서 지낼 텐데, 의사들 말로는 그 부인이 임종이 가까워서 이 마지막 순간에 로테를 곁에 두고 싶어 한대. 지난주에 나는 로테와 함께 St 마을 목사님을 찾아갔어. 산속으로 한 시간쯤 비켜 들어간 작은 마을이야. 우리는 네 시쯤 거기 닿았어. 로테는 둘째 여동생을 데리고 갔어. 키 큰 호두나무 두 그루가 그늘을 드리운 목사관 마당에 들어서자, 선량한 노목사님이 집 문 앞 걸상에 앉아 계시다가 로테를 보고는 다시 살아난 듯 생기가 돌아 마디 많은 지팡이도 잊은 채 감히 일어나 로테를 맞으러 나오셨어. 로테는 그리로 달려가 목사님을 다시 앉으시게 하고 곁에 앉아 아버지의 안부를 잔뜩 전하고, 목사님이 늘그막에 얻은 지저분하고 꾀죄죄한 막내아들, 노년의 귀염둥이를 끌어안아 주었어. 로테가 노인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네가 봤어야 해. 반쯤 먹은 그분 귀에 들리도록 목소리를 높이고, 뜻밖에 죽은 젊고 튼튼한 사람들 이야기며 카를스바트 온천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하고, 내년 여름에 거기 가시겠다는 결심을 칭찬하고, 지난번 뵈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이고 훨씬 기운이 나 보이신다고 하는 모습을. 그동안 나는 목사 부인에게 인사를 차렸어. 노인은 아주 기운이 나셨고, 우리에게 그토록 사랑스러운 그늘을 드리워 주는 아름다운 호두나무를 내가 참지 못하고 칭찬했더니, 조금 힘겨워하시면서도 그 나무 내력을 들려주기 시작하셨어. "늙은 나무는 누가 심었는지 우리도 모르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이 목사라는 사람도 있고 저 목사라는 사람도 있소.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젊은 나무는

내 아내와 나이가 같소. 시월이면 쉰 해가 되지. 장인어른이 아침에 그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날 저녁 무렵 아내가 태어났소. 그분은 이 자리에서 나보다 앞서 목사로 계셨는데, 그 나무를 얼마나 아끼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소. 나도 그분 못지않게 아끼오. 스물일곱 해 전에 내가 가난한 학생으로 처음 이 마당에 들어섰을 때, 아내는 그 나무 아래 들보 위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소." 로테가 목사님 따님의 안부를 묻자, 슈미트 씨와 함께 일꾼들이 있는 풀밭에 나갔다는 대답이 돌아왔어. 노인은 이야기를 이어 가셨어. 앞선 목사님이 어떻게 자기를 아끼게 되었고 그 딸도 어떻게 자기를 좋아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처음에는 그분의 보좌 목사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후임자가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목사 댁 따님이 이른바 슈미트 씨와 함께 정원을 지나 이리로 왔어. 따님은 로테를 따뜻하게 반겼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도 그 아가씨가 퍽 마음에 들었어. 날렵하고 몸매가 좋은 갈색 머리 아가씨로, 시골에서 잠깐 지내는 동안이라면 좋은 말벗이 되어 줄 만한 사람이었지. 그 애인은 (슈미트 씨는 처음부터 그렇게 나섰으니까) 점잖지만 말이 없는 사람이었어. 로테가 자꾸 대화에 끌어들이는데도 우리 이야기에 끼려 하지 않았지. 무엇보다 나를 서글프게 한 건, 그가 말을 섞지 않는 까닭이 머리가 모자라서라기보다는 고집과 언짢은 기분 때문이라는 것이 그 얼굴에서 보이는 것 같았다는 거야. 안타깝게도 그 뒤에 그건 너무나 뚜렷해졌어. 산책할 때 프리데리케가 로테와 나란히, 그리고 이따금 나와도 나란히 걷자, 그러지 않아도 거무스름한 그 신사의 얼굴이 눈에 띄게 어두워져서, 로테가 내 소매를 잡아당기며 프리데리케에게 너무 다정하게 굴었다고 눈치를 줄 지경이 되었어. 사람들이 서로 괴롭히는 것만큼 나를 언짢게 하는 건 없어. 특히 모든 기쁨에 가장 활짝 열려 있을 수 있는 인생의 꽃다운 시절에 젊은이들이

얼마 안 되는 좋은 날을 찌푸린 얼굴로 서로 망쳐 놓고는, 너무 늦어서야 그 낭비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었음을 깨닫는 걸 보면 말이야. 그게 속을 긁어서, 저녁 무렵 목사관으로 돌아와 식탁에 둘러앉아 우유를 먹다가 이야기가 세상의 기쁨과 슬픔으로 흘러가자, 나는 그 실마리를 붙잡고 언짢은 기분을 정말 진심으로 나무라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어. "우리 사람들은 좋은 날은 너무 적고 나쁜 날은 너무 많다고 자주 불평하지요." 내가 말을 꺼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개 잘못된 불평이에요. 하느님이 날마다 마련해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도록 우리가 늘 마음을 열어 둔다면, 불행이 닥쳐도 그것을 견딜 힘이 넉넉히 생길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 부인이 대꾸했다. "몸에 달린 게 얼마나 많은데요! 몸이 편치 않으면 무엇 하나 마음에 차지 않는 법이에요." 나는 그 말을 인정했다. "그렇다면 그걸 일종의 병으로 보고 무슨 약이 없는지 따져 보기로 하지요." 내가 말을 이었다. "그거 들을 만한 말씀이네요." 로테가 말했다. "적어도 많은 게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저는 믿어요. 저 자신을 보면 알아요. 무언가가 저를 성가시게 해서 기분을 망치려 들면, 저는 벌떡 일어나 콩트르당스 두어 곡을 부르며 정원을 오락가락해요. 그러면 금세 사라져요." "바로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내가 받았다. "언짢은 기분은 게으름과 꼭 같아요. 언짢은 기분도 일종의 게으름이니까요. 우리 본성은 그쪽으로 몹시 기울어 있지만, 그래도 한 번만 기운을 내어 마음을 다잡으면 일이 손에 착착 붙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데서 참된 즐거움을 찾게 되지요." 프리데리케는 아주 열심히 귀를 기울였고, 젊은 남자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주인이 아니며 특히 자기 감정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금 문제는 불쾌한 감정이에요." 내가 대꾸했다. "그런 감정이라면 누구든 기꺼이 떨쳐 버리고 싶어 하지요. 그리고 자기 힘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는 해 보기 전에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이지, 병든 사람은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다니며 물어볼 테고, 바라던 건강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큰 체념도, 아무리 쓴 약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정직한 노인이 우리 이야기에 끼려고 귀를 기울이며 애쓰는 것을 보고, 목사님 쪽으로 말을 돌리며 목소리를 높였다. "온갖 악덕을 나무라는 설교는 많지만, 언짢은 기분을 두고 설교단에서 애쓴 분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건 도시 목사들이 할 일이오." 목사님이 말씀하셨다. "농사꾼들은 기분이 언짢을 일이 없거든. 그래도 이따금 해서 나쁠 건 없겠소. 적어도 내 아내와 법무관 나리한테는 좋은 교훈이 될 테니." 다들 웃었고 목사님도 함께 껄껄 웃으시다가 기침이 터져서 우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어. 그러자 젊은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언짢은 기분을 악덕이라고 하셨는데, 그건 지나친 말씀 같은데요." "천만에요." 내가 대답했다.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그 이름을 받을 만하다면요. 우리가 서로를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저마다의 마음이 이따금 스스로에게 베풀 수 있는 즐거움까지 서로 빼앗아야 할까요? 언짢은 기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걸 숨기고 혼자 감당해서 주위의 기쁨을 깨뜨리지 않을 만큼 훌륭한 사람이 있다면 대 보세요! 아니, 언짢은 기분이란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찮다는 데서 오는 속 깊은 불만, 우리 자신에 대한 못마땅함이 아닐까요? 그리고 그 못마땅함에는 언제나 어리석은 허영심에 부추겨진 질투가 얽혀 있고요. 우리 손으로 행복하게 해 주지 않은 행복한 사람들을 보면, 그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열을 올리며 말하는 것을 보고 로테가 나를 보며 미소 지었고, 프리데리케의 눈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 나를 더 몰아세웠다. "남의 마음을 휘어잡는 힘을 가졌다고 그 힘으로 그 마음속에서 저절로 싹트는 소박한 기쁨을 빼앗는 사람들은 화를 입을 거예요." 내가 말했다. "세상의 어떤 선물도, 어떤 호의도, 우리를

휘두르는 사람의 시기 어린 불편한 심기 때문에 망쳐 버린 한순간의 자기 기쁨을 메워 주지 못해요."

그 순간 내 가슴은 벅차올랐어. 지나간 많은 일의 기억이 내 영혼에 밀려들었고, 눈에 눈물이 고였어.

"이 말을 날마다 자기 자신에게 해 주기만 한다면!" 나는 외쳤다. "네가 벗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건 그들에게 그들의 기쁨을 그대로 두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면서 그들의 행복을 늘려 주는 것밖에 없다고. 그들의 속 깊은 영혼이 애태우는 정열에 시달리고 시름에 짓밟힐 때, 너는 그들에게 위안 한 방울이라도 줄 수 있느냐?

그리고 네가 꽃다운 시절에 속을 파먹어 들어간 그 사람에게 마지막의 가장 두려운 병이 덮쳐, 그 사람이 더없이 비참하게 기진한 채 누워 있고, 감각을 잃은 눈은 하늘만 바라보고, 핏기 없는 이마에 죽음의 식은땀이 맺혔다 말랐다 하는데, 너는 저주받은 사람처럼 침대 앞에 서서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꺼져 가는 그 사람에게 기운 한 방울, 용기 한 점이라도 불어넣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내주고 싶어서 불안에 속이 뒤틀린다면."

이 말을 하는 동안, 내가 곁에서 지켜보았던 그런 장면의 기억이 온 힘을 다해 나를 덮쳤어. 나는 손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자리를 떴고, 이제 가자고 나를 부르는 로테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이 들었지. 돌아오는 길에 로테는 내가 무슨 일에나 너무 뜨겁게 마음을 쏟는다고, 그러다가는 몸을 망치고 말 거라고 얼마나 나를 꾸짖던지! 몸을 아끼라고! 오, 천사여! 당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살아야 해!

7월 6일

로테는 늘 죽어 가는 벗 곁에 있고 늘 한결같아서, 눈길 닿는 곳마다 고통을 덜어 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늘 곁에 있어 주는 다정한

사람이야. 어제저녁 로테가 마리아네와 꼬마 말헨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 나는 그걸 알고 뒤따라가 만나서 함께 걸었어. 한 시간 반쯤 걷다가 시내 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게 그토록 소중했고 이제는 천 배나 더 소중해진 그 샘에 이르렀어. 로테는 나지막한 담에 걸터앉았고, 우리는 그 앞에 섰어. 나는 주위를 둘러보았어. 아, 내 마음이 그토록 외로웠던 시절이 다시 눈앞에 살아났지. "정다운 샘아, 그 뒤로 나는 네 서늘함에 기대어 쉬지 못했고, 바삐 지나가느라 너를 쳐다보지도 않은 적이 많았구나." 내가 말했다. 내려다보니 말헨이 물 한 잔을 들고 무척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오고 있었어. 나는 로테를 바라보며 로테가 내게 어떤 사람인지를 온전히 느꼈어. 그때 말헨이 잔을 들고 다가왔어. 마리아네가 잔을 받아 주려 하자 "아니야!" 아이가 더없이 사랑스러운 얼굴로 외쳤다. "아니, 로테 언니가 먼저 마셔!" 아이가 그 말을 외치는 진실함과 착한 마음에 나는 어찌나 황홀해졌던지, 그 느낌을 나타낼 길이 달리 없어서 아이를 땅에서 번쩍 안아 들고 힘껏 입을 맞추었어. 아이는 곧바로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어. "잘못하셨어요." 로테가 말했다. 나는 당황했다. "이리 와, 말헨." 로테가 아이의 손을 잡고 계단을 내려가며 말을 이었다. "자, 이 맑은 샘물로 얼른얼른 씻어. 그러면 괜찮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어. 꼬마가 젖은 작은 손으로 얼마나 열심히 두 볼을 문지르던지. 이 기적의 샘물이 온갖 더러움을 씻어 내고 흉한 수염이 나는 창피를 막아 주리라고 얼마나 굳게 믿던지. 로테가 "이제 됐어!" 하는데도 아이는 많이 씻으면 조금 씻는 것보다 더 효험이 있다는 듯 계속 열심히 씻었어. 빌헬름, 정말이지 나는 어떤 세례식에도 이보다 더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한 적이 없어. 그리고 로테가 올라왔을 때, 한 민족의 죄를 씻어 준 예언자 앞에 엎드리듯 그 사람 앞에 엎드리고 싶었어.

저녁에 나는 기쁨에 겨워 이 일을 어떤 남자에게 이야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어. 분별이 있으니 사람다운 마음도 있겠거니 믿었던 사람이지. 그런데 웬걸! 그는 로테가 아주 잘못했다면서, 아이들에게 엉터리를 믿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런 것이 수많은 오류와 미신을 낳으니 아이들을 일찍부터 거기서 지켜 주어야 한다고 하더라. 그때 나는 그 남자가 일주일 전에 아이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는 게 생각나서, 그 말을 흘려듣고 내 마음속으로 진실에 충실하기로 했어. 하느님이 우리에게 하시듯 우리도 아이들에게 해야 한다고. 하느님은 우리가 다정한 착각 속에서 그렇게 비틀거리며 걸어가게 하실 때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 주시니까.

7월 8일

사람이란 얼마나 아이 같은지! 눈길 한 번을 얼마나 탐내는지! 사람이란 얼마나 아이 같은지! 우리는 발하임에 갔어. 아가씨들은 마차를 타고 갔는데, 산책하는 동안 나는 로테의 까만 눈에서 무언가를…… 나는 바보야, 용서해 줘! 너도 그 눈을, 그 눈을 봐야 하는데. 짧게 말할게(잠이 와서 눈이 감기니까). 그러니까, 아가씨들이 마차에 올랐고, 마차 곁에 젊은 W와 젤슈타트와 오드랑과 내가 서 있었는데, 다들 마차 문으로 그 젊은 녀석들과 수다를 떨었고, 녀석들은 물론 가볍고 들뜬 축들이었지. 나는 로테의 눈을 찾았어. 아, 그 눈은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옮겨 갔어! 그런데 나한테는! 나한테는! 나한테는! 오로지 로테에게 마음을 다 바치고 체념한 채 거기 서 있던 나한테는 그 눈길이 떨어지지 않았어! 내 마음은 로테에게 천 번이나 작별 인사를 했어! 그런데 로테는 나를 보지 않았어! 마차가 떠나갔고, 내 눈에 눈물이 맺혔어. 마차를 바라보고 있었더니 로테의 머리 장식이 마차 문 밖으로 내밀어지더니, 로테가 뒤를 돌아보는 거야. 아! 나를 보려고? 친구야! 나는 이 불확실함 속을 떠다니고 있어. 그게 내

위안이야. 어쩌면 로테가 나를 보려고 돌아보았을지도 몰라! 어쩌면! 잘 자! 오, 나는 얼마나 아이 같은지!

7월 10일

사람들 사이에서 로테 이야기가 나올 때 내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는지 네가 봐야 해! 게다가 누가 나한테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느냐고 묻기라도 하면! 마음에 드느냐니! 나는 그 말이 죽도록 싫어. 로테가 그저 마음에 들 뿐, 모든 감각과 모든 감정을 가득 채우지는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대체 어떤 인간일까! 마음에 든다니! 마음에 든다니! 얼마 전에는 누가 나한테 오시안이 마음에 드느냐고 묻더라!

7월 11일

M 부인이 아주 위독해. 나는 그분이 살아나기를 빌고 있어. 로테와 함께 괴로워하니까. 이제 로테는 어떤 벗의 집에서나 가끔 볼 수 있는데, 오늘 로테가 놀라운 일을 하나 들려주었어. M 영감은 탐욕스럽고 고약한 구두쇠라 평생 아내를 단단히 들볶고 옥죄었는데, 그래도 부인은 늘 그럭저럭 살림을 꾸려 왔대. 며칠 전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하자 부인은 남편을 불러(로테도 방에 있었어) 이렇게 말했대. "당신한테 털어놓을 게 있어. 내가 죽고 나면 일이 꼬이고 속상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나는 지금까지 될 수 있는 대로 알뜰하고 빈틈없이 살림을 꾸려 왔어. 그런데 이 서른 해 동안 당신을 속여 온 걸 용서해 줘야겠어. 당신은 결혼 초에 부엌살림과 그 밖의 집안 씀씀이로 얼마 안 되는 돈을 정해 주었지. 살림이 커지고 장사가 늘어도 당신은 거기 맞춰 내 주급을 늘려 줄 생각을 도무지 안 했어. 요컨대, 씀씀이가 가장 컸을 때도 당신은 내가 일주일에 7굴덴으로 버티기를 바랐다는 거, 당신도 알잖아.

그래서 나는 군말 없이 그 돈을 받고는, 모자라는 몫을 주마다 가게 매상에서 꺼내 썼어. 아내가 금고에 손을 대리라고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으니까. 나는 하나도 헛되이 쓰지 않았고, 이 일을 고백하지 않고도

마음 편히 영원으로 걸어갈 수 있었을 거야. 다만 나 다음에 살림을 맡을 사람이 어찌할 바를 모를 테고, 당신은 당신의 첫 아내도 그 돈으로 꾸려 나갔다고 언제까지나 우길지도 모르니까."

두 배는 들 것 같은 씀씀이를 7굴덴으로 감당해 낸다면 무언가 다른 속사정이 있으리라고 의심해 볼 법도 한데, 사람의 마음이 그걸 못 할 만큼 믿을 수 없이 눈이 멀었다는 이야기를 나는 로테와 나눴어. 하지만 나도 예언자의 마르지 않는 기름병이 자기 집에 있다 해도 놀라지 않고 받아들였을 사람들을 알고 있어.

7월 13일

아니, 나는 나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야! 나는 로테의 까만 눈에서 나와 내 운명을 향한 참된 마음을 읽어. 그래, 나는 느껴. 그리고 이 점에서는 내 마음을 믿어도 돼. 로테가…… 오, 이 말로 하늘을 입 밖에 내도 될까, 낼 수 있을까? 로테가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내가…… 너한테는 말해도 되겠지, 너는 이런 걸 알아주니까. 로테가 나를 사랑한 뒤로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우러르는지!

이게 주제넘은 생각일까, 아니면 참된 관계를 느끼는 걸까? 로테의 마음에서 내가 무언가를 빼앗길까 두려워할 만한 사람을 나는 몰라. 그런데도…… 로테가 약혼자 이야기를 할 때, 그토록 따뜻하게, 그토록 사랑을 담아 그 사람 이야기를 할 때면, 나는 모든 명예와 지위를 빼앗기고 칼까지 빼앗긴 사람이 된 것 같아.

7월 16일

아, 내 손가락이 무심코 로테의 손가락에 닿을 때, 식탁 아래서 우리 발이 마주칠 때면, 그것이 온 핏줄을 타고 얼마나 짜릿하게 흐르는지! 나는 불에 덴 듯 물러나지만, 어떤 은밀한 힘이 나를 다시 앞으로 끌어당겨. 모든 감각이 어질어질해져. 오! 그런데 로테의 순진함, 그

거리낌 없는 영혼은 그런 작은 허물없음이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느끼지 못해. 이야기하다가 내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내게 다가앉아서 그 거룩한 입김이 내 입술에 닿을 듯할 때면, 나는 벼락을 맞은 듯 그대로 가라앉을 것만 같아. 그리고, 빌헬름! 만약 내가 감히 이 하늘을, 이 믿음을…… 내 말 알겠지. 아니, 내 마음은 그렇게까지 썩지 않았어! 약해! 약하기는 하지! 그런데 그게 썩은 게 아니고 뭐야? 로테는 내게 성스러운 사람이야. 로테 앞에서는 모든 욕망이 입을 다물어. 로테 곁에 있으면 내가 어떤지 나도 모르겠어. 영혼이 내 모든 신경 속에서 뒤집히는 것 같아. 로테에게는 클라비어로 치는 곡이 하나 있는데, 천사 같은 힘으로 연주해. 그토록 소박하고 그토록 정신이 깃들어 있지! 로테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로테가 첫 음을 짚기만 해도 나는 온갖 괴로움과 혼란과 변덕에서 다시 살아나.

옛 음악의 마력에 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믿기지 않는 게 없어. 그 소박한 노래가 나를 얼마나 사로잡는지! 그리고 로테는 그 노래를 꼭 알맞은 때에 들려줄 줄 알아. 내가 머리에 총알을 박아 버리고 싶은 바로 그런 때에! 내 영혼의 혼란과 어둠이 흩어지고, 나는 다시 숨을 쉬게 돼.

7월 18일

빌헬름, 사랑이 없다면 세상이 우리 마음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불 없는 환등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작은 등불을 넣기만 하면 하얀 벽에 더없이 알록달록한 그림들이 비치지! 그게 지나가는 허깨비일 뿐이라 해도, 우리가 철부지 소년들처럼 그 앞에 서서 그 신기한 모습에 넋을 잃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해. 오늘은 로테에게 갈 수 없었어. 빠질 수 없는 모임에 붙들렸거든. 어떻게 하겠어? 나는 하인을 그리로 보냈어. 오늘 로테 곁에 갔던 사람 하나라도 내 곁에 두고 싶어서. 얼마나 애타게 그를 기다렸는지, 다시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부끄럽지만 않았다면 그의 머리를 붙잡고 입을 맞추었을 거야.

볼로냐 돌 이야기가 있지. 햇빛에 내놓으면 그 빛을 빨아들였다가 밤에 한동안 빛을 낸다는 돌. 내게는 그 하인이 그랬어. 로테의 눈길이 그의 얼굴에, 뺨에, 저고리 단추와 외투 깃에 머물렀다고 생각하니 그 모든 게 그토록 거룩하고 그토록 소중했어! 그 순간에는 1,000탈러를 준대도 그 녀석을 내주지 않았을 거야. 그 녀석이 곁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았어. 부디 이걸 비웃지 말아 줘. 빌헬름, 우리가 행복할 때 그게 허깨비일까?

7월 19일

"나는 그 사람을 보게 될 거야!" 아침에 잠에서 깨어 아름다운 해를 활짝 갠 마음으로 바라보며 나는 외쳐. "나는 그 사람을 보게 될 거야!" 그러면 그날 하루는 더 바랄 것이 없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이 기대 속에 삼켜져 버려.

공사를 따라 ＊＊＊로 가라는 너희의 생각은 아직 내 생각이 되지 못했어. 나는 남의 밑에 드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게다가 그 사람이 불쾌한 인간이라는 건 우리 모두 알잖아. 어머니가 내가 무슨 일이든 하기를 바라신다고 네가 썼는데, 그 말에 웃음이 나더라. 나는 지금도 무언가를 하고 있지 않아? 그리고 따지고 보면 완두콩을 세든 렌즈콩을 세든 매한가지 아니야? 세상만사는 결국 하찮은 짓거리로 끝나게 마련이고, 자기 정열이나 자기 욕구에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 돈이나 명예나 그 밖의 무엇을 좇아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바보야.

7월 24일

내가 그림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네가 그토록 바라니, 요즘 그림을 별로 못 그렸다고 말하느니 차라리 그 이야기는 통째로 건너뛰고 싶어.

이렇게 행복했던 적이 없고, 작은 돌멩이 하나, 풀잎 하나에 이르기까지 자연을 향한 내 느낌이 이렇게 충만하고 절절했던 적이

없어. 그런데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상을 그려 내는 내 힘이 너무 약해서 모든 것이 내 영혼 앞에서 아른거리고 흔들리기만 할 뿐, 윤곽 하나 붙잡을 수가 없어. 그래도 찰흙이나 밀랍이 있다면 그걸로 빚어낼 수 있을 것만 같아. 이런 상태가 더 오래가면 정말 찰흙을 가져다 주무르겠어. 과자밖에 안 나오더라도!

로테의 초상을 세 번이나 시작했다가 세 번 다 망신만 당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꼭 닮게 그리는 데 아주 자신이 있었던 터라 그만큼 더 속이 상해. 그래서 결국 로테의 실루엣을 떴는데, 그걸로 만족해야겠어.

네, 다정한 로테, 무엇이든 다 알아보고 주문해 둘게요. 일을 더 맡겨 주세요. 자주자주요. 한 가지만 부탁할게요. 내게 써 보내는 쪽지에 이제 모래는 뿌리지 마세요. 오늘 쪽지를 얼른 입술에 갖다 댔더니 이 사이에서 모래가 서걱거렸어요.

7월 26일

로테를 그렇게 자주 보지 않겠다고 벌써 여러 번 다짐했어. 그래, 그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날마다 나는 유혹에 지고 내일은 한번 가지 말아야지 하고 굳게 맹세하지만, 막상 아침이 오면 또 어쩔 수 없는 까닭이 생기고, 정신을 차려 보면 어느새 로테 곁에 와 있어. 로테가 저녁에 "내일 오시는 거죠?" 하고 말했으니 누가 안 갈 수 있겠어? 아니면 로테가 무슨 일을 맡겨서 그 대답을 몸소 갖다주는 게 도리일 것 같고, 아니면 날이 너무 좋아서 발하임에 갔다가, 일단 거기 가 있으면 로테에게는 반 시간 거리밖에 안 되니까! 나는 그 사람의 기운이 미치는 데에 너무 가까이 와 있어. 휙! 그러면 벌써 거기 가 있는 거야.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던 자석산 옛이야기가 있어. 너무 가까이 다가간 배들은 순식간에 쇠붙이를 몽땅 빼앗겨서 못이 모조리 산으로 날아가 버리고, 가엾은 뱃사람들은 와르르 무너지는 널빤지들 틈에서 난파하고 말았대.

7월 30일

알베르트가 돌아왔어. 그러니 나는 떠날 거야. 그가 더없이 훌륭하고 더없이 고귀한 사람이어서 어느 모로 보나 내가 그보다 못하다고 기꺼이 인정할 만하다 해도, 그가 그 많은 완벽함을 소유하고 있는 걸 내 눈앞에서 지켜보는 건 견딜 수 없을 거야. 소유라니! 그만두자, 빌헬름. 약혼자가 왔어!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라 누구라도 좋아하게 될 사람이야. 다행히 나는 그를 맞이하는 자리에 없었어! 있었다면 가슴이 찢어졌을 거야. 게다가 그는 아주 반듯해서 내 앞에서는 아직 로테에게 단 한 번도 입을 맞추지 않았어. 하느님이 그에게 갚아 주시기를! 그가 로테를 그토록 존중하니,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는 나에게 호의를 보이는데, 그건 그 자신의 감정이라기보다는 로테가 애쓴 덕분인 것 같아. 여자들은 이런 일에 섬세하고, 또 그게 옳아. 숭배자 두 사람을 서로 좋은 사이로 지내게 할 수만 있다면, 좀처럼 잘되지는 않지만, 이득은 언제나 여자들 몫이니까.

그래도 알베르트에게 존경심을 품지 않을 도리가 없어. 그의 침착한 겉모습은 숨길 수 없는 내 성미의 불안과 무척 선명하게 대비가 돼. 그는 감정이 깊고 자기가 로테를 얻은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알며, 언짢은 기분도 거의 없어 보이는데, 너도 알다시피 그건 내가 사람에게서 다른 무엇보다 미워하는 죄야.

그는 나를 분별 있는 사람으로 여겨. 그리고 로테를 향한 내 애착과 로테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내가 느끼는 뜨거운 기쁨은 그의 승리감을 더해 줄 뿐이어서, 그는 로테를 더욱더 사랑하게 돼. 그가 이따금 사소한 질투로 로테를 괴롭히지는 않는지, 그건 따지지 않을래. 적어도 내가 그의 자리에 있다면 이 악마에게서 아주 안전하지는 못할 거야.

어찌 되었든 로테 곁에 있는 기쁨은 사라졌어. 이걸 어리석음이라고 해야 할까, 눈이 멀었다고 해야 할까? 이름이 무슨 상관이야! 일 자체가

다 말해 주잖아! 알베르트가 오기 전에도 나는 지금 아는 걸 다 알고 있었어. 로테에게 아무것도 바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았고, 바란 적도 없었어. 그토록 사랑스러운 사람 앞에서 바라지 않는 것이 가능한 한에서는 말이야. 그런데 이제 상대가 정말로 나타나 아가씨를 데려가 버리자, 이 얼간이는 눈을 휘둥그레 뜨는 거야.

나는 이를 악물고 내 비참함을 비웃고, 체념하라고, 이제 와서 달리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말할 만한 사람들은 그 두 배 세 배로 비웃어 줄 거야. 이 허수아비들을 내 눈앞에서 치워 줘! 나는 숲속을 헤매고 다니다가 로테에게 가는데, 알베르트가 정원의 덩굴 정자 아래 로테 곁에 앉아 있고 나는 더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면, 미친 듯이 들떠서 온갖 장난과 엉뚱한 짓을 벌여. "제발 부탁이에요." 오늘 로테가 내게 말했다. "어제저녁 같은 일은 다시 벌이지 마세요! 그렇게 쾌활하실 때는 무서워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나는 알베르트가 바쁠 때를 엿보다가 휙! 그 길로 나가. 로테가 혼자 있을 때 만나면 언제나 기분이 좋아.

8월 8일

부탁이야, 빌헬름,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순순히 따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람들을 내가 견딜 수 없다고 욕했을 때, 그건 정말 너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어. 네가 그런 생각을 하리라고는 정말이지 생각지도 못했어. 그리고 따지고 보면 네 말이 옳아. 다만 한 가지만, 내 좋은 친구! 세상일은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 감정과 행동은 매부리코와 납작코 사이에 온갖 층이 있듯이 그토록 다양한 빛깔로 갈라져 있거든.

그러니 내가 네 논증을 다 인정하면서도 그 이것 아니면 저것 사이로 슬쩍 빠져나가려 해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너는 말하지. 로테에게 희망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라고. 좋아, 첫째 경우라면 그 희망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소원을 이루도록 애써

보고, 둘째 경우라면 마음을 다잡고 네 모든 힘을 갉아먹을 그 비참한 감정에서 벗어나도록 애써 봐. 내 좋은 친구! 말은 참 잘했어. 그리고…… 말하기는 쉽지.

그렇다면 서서히 퍼지는 병에 걸려 생명이 막을 길 없이 조금씩 꺼져 가는 불행한 사람에게, 단검으로 한 번에 찔러 그 고통을 끝내라고 요구할 수 있겠어? 그의 힘을 갉아먹는 그 병은 그와 동시에 거기서 벗어날 용기마저 빼앗아 가지 않겠어?

물론 너는 비슷한 비유로 내게 대꾸할 수도 있겠지. 머뭇거리고 망설이다가 목숨을 걸게 되느니 차라리 팔을 잘라 내게 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모르겠어! 그리고 비유를 두고 서로 물고 늘어지지는 말자. 이만하면 됐어. 그래, 빌헬름, 나도 이따금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을 떨쳐 버릴 듯한 용기가 솟는 순간이 있어. 그럴 때는…… 어디로 가야 할지만 안다면 나는 정말 떠날 거야.

저녁

한동안 내버려 두었던 일기장이 오늘 다시 손에 들어왔는데, 내가 이 모든 일 속으로 얼마나 다 알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들어왔는지 깜짝 놀랐어! 내 처지를 언제나 그토록 또렷이 보면서도 아이처럼 굴었고, 지금도 그토록 또렷이 보는데도 나아질 기미는 조금도 없다니!

8월 10일

내가 바보만 아니라면 더없이 좋고 더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지금 내가 놓인 형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을 즐겁게 해 줄 아름다운 조건들이 한데 모이기란 쉽지 않아. 아, 우리의 행복을 만드는 건 오로지 우리 마음뿐이라는 게 그토록 확실하다니. 그 사랑스러운 가족의 한 식구가 되어, 노인에게서는 아들처럼, 꼬마들에게서는 아버지처럼 사랑받고, 그리고 로테에게서도! 그리고 정직한 알베르트. 변덕스럽게 심술을 부려 내 행복을 깨는 일이 없고, 따뜻한 우정으로 나를 감싸

주고, 로테 다음으로 나를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야! 빌헬름, 우리가 함께 산책하며 서로 로테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으면 정말 즐거울 거야. 세상에 이보다 우스꽝스러운 관계는 없을 텐데도, 나는 그 생각을 하면 자주 눈물이 나.

알베르트는 내게 로테의 훌륭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줘. 어머니가 임종하면서 로테에게 집과 아이들을 맡기고 알베르트에게는 로테를 부탁했다는 것, 그 뒤로 전혀 다른 정신이 로테 안에 살아나서 살림을 돌보고 진지하게 일하며 참된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 로테의 시간은 한순간도 부지런한 사랑과 일 없이 흘러간 적이 없는데도 그 쾌활함과 가벼운 마음이 로테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을. 나는 그 곁을 나란히 걸으며 길가의 꽃을 꺾어 아주 정성껏 꽃다발을 만들어서는…… 곁을 흘러가는 강물에 던지고, 꽃들이 천천히 떠내려가는 것을 바라봐. 알베르트가 여기 남아 궁정에서 꽤 괜찮은 벌이의 관직을 얻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썼는지 모르겠어. 그는 궁정에서 아주 신임을 받고 있거든. 일의 질서와 부지런함으로 따지면 그만한 사람을 나는 거의 보지 못했어.

8월 12일

정말이지 알베르트는 하늘 아래 가장 좋은 사람이야. 어제 그와 놀라운 일이 있었어. 나는 작별 인사를 하러 그에게 갔어. 산에 말을 타고 다녀오고 싶어졌거든. 지금 이 편지도 거기서 쓰고 있어. 그런데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다가 그의 권총이 눈에 띄었어. "여행길에 권총 좀 빌려줘." 내가 말했다. "그러든가." 그가 말했다. "장전하는 수고를 직접 하겠다면야. 나한테는 그냥 모양으로 걸려 있는 거야." 내가 하나를 내리자 그가 말을 이었다. "조심하다가 된통 당한 뒤로는 그런 물건하고는 상관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 이야기가 궁금했다. "석 달쯤 시골 친구 집에 머문 적이 있어." 그가 이야기했다. "작은 권총 두 자루를

장전하지 않은 채 두고 편히 잠을 잤지. 그런데 어느 비 오는 오후, 할 일 없이 앉아 있다가 웬일인지 우리가 습격을 당할 수도 있다, 권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도 알잖아, 그런 거. 나는 하인에게 권총을 닦아서 장전하라고 주었어. 그런데 그 녀석이 하녀들하고 노닥거리다가 겁을 주려고 하는 바람에, 어떻게 된 건지 하느님만 아시겠지만, 꽂을대가 아직 안에 꽂힌 채로 총이 발사돼서 꽂을대가 한 하녀의 오른손 엄지 밑 두툼한 데로 박혀 엄지를 박살 내 버렸어. 그래서 나는 하소연을 들어야 했고, 치료비까지 물어 줘야 했지. 그 뒤로 나는 총이란 총은 모두 장전하지 않고 둬. 이 사람아, 조심이 다 뭐야? 위험은 다 배워 둘 수가 없는 거야! 물론……" 너도 알지, 나는 그 사람을 아주 좋아하는데 그 '물론'만은 질색이야. 어떤 일반 명제에도 예외가 있다는 건 말하지 않아도 뻔한 일 아니야? 그런데 사람이란 그렇게 자기를 정당화하려 들어! 자기가 무언가 성급하거나 일반적이거나 반만 맞는 말을 했다 싶으면 끝도 없이 제한하고 고치고 덧붙였다 뺐다 해서, 마침내 그 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도 그가 이야기에 아주 깊이 빠져드는 바람에 나는 끝내 더는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변덕스러운 생각에 잠겼다가, 벌떡 하는 몸짓으로 권총 총구를 오른쪽 눈 위 이마에 갖다 댔어. "저런!" 알베르트가 내게서 권총을 끌어 내리며 말했다. "그게 무슨 짓이야?" "장전 안 돼 있어." 내가 말했다. "그래도 그렇지, 그게 무슨 짓이냐고?" 그가 참지 못하고 대꾸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어서 제 손으로 자기를 쏠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돼. 생각만 해도 역겨워."

"너희들은 왜 어떤 일을 두고 이야기만 하면 대뜸 '그건 어리석다, 그건 영리하다, 그건 좋다, 그건 나쁘다!' 하고 말해야 하는 거야?" 내가 외쳤다. "그게 다 무슨 뜻이지? 그렇게 말하려고 행동의 속사정을 캐

보기라도 했어?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왜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까닭을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어? 그럴 수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서둘러 판단하지는 않을 거야." "어떤 행동은 무슨 동기에서 나왔든 여전히 악덕이라는 건 너도 인정하겠지." 알베르트가 말했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그 말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친구, 여기에도 몇 가지 예외는 있어." 내가 말을 이었다. "도둑질이 악덕인 건 맞아. 그런데 당장 굶어 죽게 된 자기와 식구들을 살리려고 도둑질에 나선 사람은 동정을 받아야 할까, 벌을 받아야 할까? 정당한 분노로 부정한 아내와 그 몹쓸 유혹자를 죽인 남편에게 누가 먼저 돌을 던지겠어? 더없이 행복한 한때 걷잡을 수 없는 사랑의 기쁨에 몸을 맡긴 아가씨에게는? 그 냉혈한 현학자인 우리 법률조차 마음이 움직여 벌을 거두는데."

"그건 전혀 다른 문제야." 알베르트가 대꾸했다. "정열에 휩쓸린 사람은 판단력을 다 잃어서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으로 여겨지니까." "아, 너희 분별 있는 사람들이란!" 나는 웃으며 외쳤다. "정열! 술 취함! 광기! 너희 도덕군자들은 그렇게 태연하게, 그렇게 아무 관심 없이 서 있지. 술꾼을 꾸짖고 정신 나간 사람을 혐오하고, 제사장처럼 그냥 지나쳐 가고, 바리새인처럼 하느님이 자기를 이런 사람들처럼 만들지 않으셨다고 감사하지. 나는 한 번 이상 술에 취해 보았고, 내 정열은 광기에서 그리 멀었던 적이 없어. 그런데도 나는 그 어느 쪽도 뉘우치지 않아. 무언가 위대한 일,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낸 비범한 사람들은 예로부터 모두 술 취한 사람이나 미친 사람으로 손가락질받아야 했다는 것을 나는 내 나름대로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평범한 삶에서도 누가 조금이라도 자유롭고 고귀하고 뜻밖의 일을 하기만 하면 거의 누구나 뒤에서 '저 사람은 취했어, 저 사람은 바보야!' 하고 외치는 걸 듣는 건 견딜 수 없어. 부끄러운 줄 알아, 이 맨정신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 이 현자들아!" "또 그 변덕이 시작됐군." 알베르트가

말했다. "너는 뭐든지 지나치게 몰아붙여. 그리고 적어도 이번에는 분명히 틀렸어. 지금 이야기하는 자살을 위대한 행동에 견주다니. 그건 나약함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일인데. 고통스러운 삶을 꿋꿋이 견디는 것보다는 죽는 편이 물론 더 쉬우니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이야기하는데 누가 하찮은 상투어를 들고 나오는 것만큼 나를 평정을 잃게 하는 논증은 없어서, 나는 하마터면 이야기를 끊어 버릴 뻔했어.

그래도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어. 그런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고 그때마다 더 자주 화를 냈으니까. 그리고 조금 열을 올려 그에게 대꾸했지. "그걸 나약함이라고 하는 거야? 부탁이니 겉모습에 속지 마. 폭군의 견딜 수 없는 멍에 아래 신음하던 민족이 마침내 들끓어 일어나 사슬을 끊는다면, 그걸 나약하다고 할 수 있어? 집에 불이 붙은 걸 보고 놀란 나머지 온 힘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평소 같으면 꿈쩍도 못 했을 짐을 가볍게 들어 나르는 사람, 모욕을 당한 분노로 여섯 사람을 상대해 다 때려눕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나약하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이봐, 애쓰는 것이 힘이라면 왜 지나치게 애쓰는 것이 그 반대가 되어야 하지?" 알베르트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쁘게 듣지 마. 네가 드는 예는 여기에 전혀 들어맞지 않는 것 같아." "그럴지도 몰라." 내가 말했다. "생각을 엮어 가는 내 버릇이 이따금 횡설수설에 가깝다는 핀잔을 벌써 여러 번 들었지. 그러면 다른 길로, 그렇지 않았더라면 기꺼이 지고 갔을 삶의 짐을 내던지기로 결심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떨지 그려 볼 수 있는지 보자. 우리가 함께 느끼는 만큼만,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으니까."

"인간의 본성에는 한계가 있어." 내가 말을 이었다. "기쁨도 슬픔도 고통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그 정도를 넘어서면 무너지고 말아. 그러니 여기서 문제는 누가 약하냐 강하냐가 아니라, 그 고통이 마음의 것이든 몸의 것이든 자기 고통의 크기를 끝까지 견뎌 낼 수

있느냐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을 비겁하다고 하는 것은 악성 열병으로 죽은 사람을 비겁하다고 하는 것만큼이나 괴상한 말이라고 생각해."

"역설이야! 아주 역설이야!" 알베르트가 외쳤다. "네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지는 않아." 내가 대꾸했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건지는 너도 인정하겠지. 본성이 공격을 받아 그 힘이 한편으로는 다 소모되고 한편으로는 제구실을 못 하게 되어서, 스스로 다시 일어설 수 없고 어떤 다행스러운 변화로도 생명의 평상시 흐름을 되찾을 수 없는 그런 병 말이야.

자, 친구, 이걸 정신에 적용해 보자. 좁은 테두리에 갇힌 사람을 봐. 인상들이 어떻게 그에게 작용하고 생각들이 어떻게 그 안에 뿌리내리는지, 그러다 마침내 점점 커지는 정열이 어떻게 그에게서 차분한 분별력을 모두 빼앗고 그를 파멸시키는지를.

침착하고 분별 있는 사람이 그 불행한 사람의 처지를 내려다본들, 그에게 아무리 타이른들 소용없어! 병자의 침대 곁에 선 건강한 사람이 자기 힘을 조금도 병자에게 불어넣어 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알베르트에게는 이게 너무 막연한 이야기여서, 나는 얼마 전에 물에 빠져 죽은 채 발견된 한 아가씨를 그에게 떠올려 주고 그 아가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어. "착하고 어린 아가씨였어. 집안일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 주마다 정해진 일을 하며 자랐지. 즐거움이라고는 기껏해야 일요일에 조금씩 모아 장만한 나들이옷을 차려입고 또래들과 시내 둘레를 산책하거나, 큰 명절마다 한 번쯤 춤을 추거나, 그 밖에는 말다툼이나 고약한 뒷말을 핑계 삼아 이웃 여자와 더없이 살갑게 맞장구치며 몇 시간씩 수다를 떠는 것밖에는 알지 못했어. 그런 아가씨의 뜨거운 천성이 마침내 더 절실한 욕구를 느끼게 되고, 남자들의 아첨이 그 욕구를 부추겨. 예전의 즐거움은 차츰 맛을 잃어

가다가, 마침내 낯선 감정이 아가씨를 걷잡을 수 없이 끌어당기는 한 남자를 만나게 돼. 아가씨는 이제 모든 희망을 그 남자에게 걸고, 주위의 세상을 잊고, 아무것도 듣지 않고, 아무것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느끼지 않아. 오직 그 사람, 단 하나뿐인 그 사람만을 느끼고, 오직 그 사람, 단 하나뿐인 그 사람만을 그리워해. 덧없는 허영심의 헛된 즐거움에 물들지 않았으니 아가씨의 갈망은 곧장 목적을 향해 나아가. 그 남자의 사람이 되고 싶은 거야. 영원히 맺어져서 자기에게 모자란 모든 행복을 찾고, 그리워하던 모든 기쁨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누리고 싶은 거야. 모든 희망을 확실하게 봉인해 주는 거듭된 약속, 욕망을 키우는 대담한 애무가 아가씨의 영혼을 온통 휘감아. 아가씨는 몽롱한 의식 속에, 모든 기쁨을 미리 맛보는 느낌 속에 떠다니고, 더할 수 없이 팽팽하게 당겨져서, 마침내 모든 소망을 끌어안으려고 두 팔을 뻗어. 그런데 그 연인이 아가씨를 버리는 거야. 아가씨는 얼어붙은 채 넋을 잃고 낭떠러지 앞에 서 있어. 주위는 온통 어둠이고, 앞날도 위안도 예감도 없어! 아가씨가 오직 그 사람 안에서만 자기 존재를 느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아가씨를 버렸으니까. 아가씨는 눈앞에 펼쳐진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잃은 것을 메워 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을 보지 못해. 온 세상에 버림받아 혼자라고 느낄 뿐이야. 그리고 눈이 멀어 마음의 끔찍한 고통에 짓눌려 궁지에 몰린 채, 사방에서 감싸 오는 죽음 속에 모든 괴로움을 묻어 버리려고 아래로 몸을 던져. 봐, 알베르트, 이게 많은 사람의 이야기야! 그런데 말해 봐. 이게 병의 경우와 다를 게 뭐야? 본성은 뒤엉키고 서로 부딪치는 힘들의 미로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지 못하고,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지켜보면서 '어리석은 여자 같으니! 기다렸더라면, 시간이 흐르게 내버려 두었더라면 절망은 가라앉았을 테고, 위로해 줄 다른 남자가 벌써 나타났을 텐데'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화를 입을 거야. 그건 마치 누가 '바보 같으니, 열병으로

죽다니! 기운이 돌아오고 체액이 맑아지고 핏속의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다 잘되었을 테고, 오늘까지 살아 있을 텐데!' 하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알베르트는 그 비교가 아직 와닿지 않는지 몇 가지 반론을 더 폈어. 무엇보다 내가 단순한 아가씨 이야기만 했을 뿐, 그렇게 좁은 테두리에 갇혀 있지 않고 더 많은 관계를 내다보는 분별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변명할 수 있을지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는 거야. "친구, 사람은 사람이야." 내가 외쳤다. "정열이 날뛰고 인간의 한계가 그를 몰아붙일 때는 누가 가졌을지 모를 그 알량한 분별 따위는 거의, 아니 전혀 쓸모가 없어. 오히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 나는 그렇게 말하고 모자를 집어 들었어. 오, 내 가슴은 그토록 벅찼는데……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헤어졌어.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남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법이듯이.

8월 15일

세상에서 사람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어 주는 건 사랑밖에 없다는 게 분명해. 로테가 나를 잃으면 서운해하리라는 걸 나는 느끼고, 아이들은 내가 늘 내일 또 오리라는 것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해. 오늘은 로테의 클라비어를 조율해 주려고 나갔는데 그럴 짬이 나지 않았어. 꼬마들이 옛이야기를 해 달라고 졸졸 따라다녔고, 로테도 아이들 소원을 들어주라고 했거든. 나는 아이들에게 저녁 빵을 잘라 주었어. 이제 아이들은 로테가 잘라 줄 때만큼이나 내가 잘라 주는 빵도 좋아해. 그리고 손들이 시중을 드는 공주 이야기에서 제일 재미있는 대목을 들려주었어. 정말이지 나는 이 일에서 많은 걸 배워. 그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인상을 남기는지 놀라울 정도야. 가끔 곁가지 이야기를 지어내야 할 때가 있는데, 두 번째에 그걸 잊어버리면 아이들은 대번에 저번에는 달랐다고 해서, 요즘 나는 같은 이야기를

노래하듯 일정한 가락에 실어 줄줄 한결같이 읊는 연습을 하고 있어. 이 일로 나는 깨달았어. 작가가 자기 이야기를 고쳐서 두 번째 판을 내면, 시로서는 아무리 나아졌다 해도 그 책에는 반드시 해가 되리라는 걸. 첫인상은 우리를 기꺼이 받아들이게 만들고, 사람이란 아무리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도 믿게 할 수 있게 생겨 먹었어. 그런데 그건 곧 단단히 박혀 버려서, 그걸 다시 긁어내고 지워 버리려는 사람은 화를 입을 거야!

8월 18일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는 것이 다시 그 사람의 불행의 샘이 되어야 했단 말인가?

살아 있는 자연을 향한 내 가슴의 충만하고 따뜻한 느낌, 그토록 큰 환희로 나를 흘러넘치게 하고 주위의 세상을 내게 낙원으로 만들어 주던 그 느낌이, 이제는 견딜 수 없는 고문자가, 어느 길에서나 나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악령이 되어 버렸어. 예전에 바위 위에서 강 너머 저 언덕들까지 펼쳐진 기름진 골짜기를 내려다보며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싹트고 솟아나는 것을 보았을 때, 저 산들이 기슭에서 꼭대기까지 키 크고 빽빽한 나무로 덮이고 저 골짜기들이 갖가지로 굽이치며 더없이 사랑스러운 숲 그늘에 잠긴 것을 보았을 때, 잔잔한 강이 속삭이는 갈대 사이로 미끄러져 가며 부드러운 저녁 바람이 하늘 저편으로 실어 오는 정다운 구름들을 비추었을 때, 그리고 내 주위의 숲을 새들이 살아나게 하는 소리를 듣고, 수백만 마리 날벌레 떼가 해의 마지막 붉은 빛줄기 속에서 신나게 춤추고, 마지막으로 떨리는 그 햇살이 윙윙거리는 풍뎅이를 풀숲에서 풀어 주고, 내 둘레의 붕붕거림과 꿈틀거림이 내 눈길을 땅으로 이끌고, 내 단단한 바위에서 양분을 억지로 짜내는 이끼와 메마른 모래 언덕을 따라 자라 내려가는 덤불이 자연의 속 깊고 뜨겁고 거룩한 생명을 내게 열어 보였을 때, 그때 나는 그 모든 것을

얼마나 내 따뜻한 가슴에 끌어안았던가. 넘쳐흐르는 충만함 속에서 나는 신이 된 것 같았고, 끝없는 세계의 장엄한 형상들이 모든 것을 살리며 내 영혼 속에서 움직였어. 거대한 산들이 나를 에워싸고, 낭떠러지가 내 앞에 놓이고, 폭우에 불어난 개울들이 쏟아져 내리고, 강물이 내 발아래로 흘러가고, 숲과 산이 울려 퍼졌어. 그리고 나는 그 모든 헤아릴 수 없는 힘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서로 얽혀 일하고 지어내는 것을 보았어. 그리고 이제 땅 위, 하늘 아래에는 온갖 피조물의 종족이 우글거려.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천 가지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집에 모여 몸을 지키고 둥지를 틀고는, 제 생각대로 이 넓은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기지! 가엾은 바보! 너는 너무 작으니까 모든 것을 그토록 하찮게 여기는 거야. 아무도 오르지 못한 산에서 아무 발길도 닿지 않은 황야를 지나 알려지지 않은 대양의 끝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지어내는 분의 정신이 불어 가며, 그 정신을 알아듣고 살아 있는 티끌 하나하나를 기뻐하셔. 아, 그때 나는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두루미의 날개를 빌려 끝없는 바다의 기슭으로 날아가고 싶어서 얼마나 자주 애태웠던가. 무한한 것의 거품 이는 잔에서 저 부풀어 오르는 삶의 환희를 마시고, 비록 한순간일지라도 좁은 내 가슴의 힘으로, 모든 것을 자기 안에서 자기를 통해 지어내는 그 존재의 더없는 행복을 한 방울이라도 느껴 보고 싶어서.

형제여, 그 시절을 떠올리는 것만이 나를 위로해 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열망을 다시 불러내어 다시 말로 해 보려는 이 애씀조차 내 영혼을 그 자신보다 높이 들어 올리지만, 그런 다음에는 지금 나를 에워싼 처지의 두려움을 갑절로 느끼게 해.

내 영혼 앞에서 휘장이 걷힌 것 같아. 끝없는 생명의 무대가 내 앞에서 영원히 입을 벌린 무덤의 심연으로 바뀌어 버려.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리는데, '이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어? 모든 것이 번개처럼 빠르게

굴러 지나가고, 자기 존재의 온 힘을 끝까지 지켜 내는 일은 그토록 드물고, 아, 물살에 휩쓸려 가라앉고 바위에 부딪쳐 부서지고 마는데? 너와 네 곁의 사람들을 갉아먹지 않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고, 네가 파괴자가 아닌 순간, 파괴자일 수밖에 없지 않은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 더없이 순진한 산책 한 번이 수천 마리 가엾은 벌레의 목숨을 앗아 가고, 발길 한 번이 개미들이 애써 지은 집을 허물고 작은 세계 하나를 짓밟아 비참한 무덤으로 만들어 버려. 하! 나를 움직이는 건 세상의 크고 드문 재앙이 아니야. 너희 마을을 쓸어 가는 홍수, 너희 도시를 삼키는 지진이 아니야. 내 가슴을 파먹어 들어오는 건 자연 전체에 숨어 있는 그 갉아먹는 힘이야. 이웃을,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는 것은 하나도 지어내지 않은 그 힘. 그래서 나는 불안에 떨며 비틀거려. 하늘과 땅과 그 사이에서 쉼 없이 짜이는 힘들이 내 주위에 있는데, 나는 영원히 삼키고 영원히 되새김질하는 괴물밖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해.

8월 21일

아침에 무거운 꿈에서 어렴풋이 깨어날 때 나는 헛되이 로테를 향해 팔을 뻗고, 밤이면 풀밭에서 로테 곁에 앉아 그 손을 잡고 천 번의 입맞춤으로 덮는 행복하고 순진한 꿈에 속았다가, 잠자리에서 헛되이 로테를 찾아. 아, 그럴 때 아직 반쯤 잠에 취한 채 로테를 더듬어 찾다가 그 바람에 정신이 들면, 짓눌린 가슴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터져 나오고, 나는 위로받을 길 없이 어두운 앞날을 향해 울어.

8월 22일

불행이야, 빌헬름. 내 활동하는 힘이 갈피 없는 나태로 어긋나 버렸어. 나는 빈둥거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상상력도 없고, 자연을 느끼지도 못하고, 책은 진저리가 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법이야. 맹세하지만, 나는 이따금 날품팔이가 되었으면 싶어. 아침에 눈을 뜰 때 다가올 하루에 대한 기대와 충동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라도. 서류 더미에 귀까지 파묻힌 알베르트를 보면 자주 부러워서, 내가 그의 자리에 있다면 좋을 텐데 하고 생각해. 벌써 여러 번 이런 생각이 불쑥 치솟았어. 너와 대신에게 편지를 써서, 네가 장담하는 대로 내게 거절되지 않을 공사관 자리를 청해 볼까 하고. 나도 그렇게 믿어. 대신은 오래전부터 나를 아껴 왔고, 무슨 일이든 맡아 보라고 오래 권해 왔으니까. 한 시간쯤은 나도 정말 그러고 싶어. 그러다가 다시 생각해 보면, 자유를 참지 못하고 안장과 마구를 얹게 했다가 녹초가 되도록 부림을 당하는 말의 우화가 떠올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리고 친구야! 처지가 바뀌었으면 하는 내 안의 이 갈망은,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다닐 마음속의 불편한 조바심이 아닐까?

8월 28일

정말이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라면 이 사람들이 고쳐 줄 거야. 오늘은 내 생일인데, 이른 아침에 알베르트한테서 작은 꾸러미가 왔어. 열어 보자마자 연분홍 리본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 내가 로테를 처음 만났을 때 로테가 달고 있던 리본이고, 그 뒤로 여러 번 달라고 졸랐던 거야. 꾸러미 안에는 작은 십이절판 책 두 권도 들어 있었어. 작은 베트슈타인판 호메로스야. 산책할 때 무거운 에르네스티판을 들고 다니지 않으려고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판이지. 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내 바람을 앞질러 알아주고, 주는 사람의 허영심이 받는 우리를 깎아내리는 눈부신 선물보다 천 배는 더 귀한, 우정이 베풀 수 있는 온갖 작은 호의를 이렇게 찾아내 줘. 나는 이 리본에 천 번 입을 맞추고, 숨을 쉴 때마다 그 행복했던 며칠, 그 몇 안 되는 다시 오지 않을 날들이 나를 흘러넘치도록 채워 주던 더없는 행복의 기억을 들이마셔. 빌헬름, 그래, 그런 거야. 나는 불평하지 않아. 삶의 꽃은 한낱 겉모습일 뿐이야! 얼마나 많은 꽃이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져 버리는지, 열매를 맺는 꽃은 얼마나 적고, 그 열매 가운데 익는 것은 또 얼마나 적은지! 그래도

그런 열매가 아직 넉넉히 있어. 그런데…… 오, 내 형제여! 다 익은 열매를 소홀히 하고, 업신여기고, 맛보지도 않은 채 썩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

잘 있어! 눈부신 여름이야. 나는 자주 로테네 과수원에서 과일나무에 올라앉아 긴 장대 끝에 달린 과일 따개로 꼭대기의 배를 따. 로테는 아래 서서 내가 내려 주는 배를 받아.

8월 30일

불행한 녀석! 너는 바보가 아니냐? 너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니냐? 이 날뛰는 끝없는 정열은 다 뭐란 말이냐? 나는 이제 로테에게 드리는 기도 말고는 기도가 없고, 내 상상력 앞에는 로테의 모습 말고 다른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내 주위 세상의 모든 것을 나는 로테와 이어서만 봐. 그 덕분에 행복한 시간도 꽤 많아. 다시 로테에게서 나를 떼어 내야 할 때까지는! 아, 빌헬름! 내 가슴이 나를 어디로 몰아가는지! 로테 곁에 두세 시간 앉아서 그 모습과 몸가짐과 그 말의 거룩한 표정에 넋을 놓고 있으면, 차츰 내 모든 감각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가 거의 들리지 않고, 자객처럼 무언가가 내 목을 조르고, 그러면 내 가슴이 거세게 뛰며 짓눌린 감각에 숨통을 틔워 주려 하지만 오히려 그 혼란을 더할 뿐이야. 빌헬름, 그럴 때는 내가 이 세상에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그리고…… 이따금 서글픔이 이겨서 로테가 내 답답한 가슴을 자기 손 위에서 울음으로 풀어 내는 비참한 위안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나는 나가야만 해. 밖으로 나가서 들판을 멀리 헤매고 다녀. 그럴 때는 가파른 산을 기어오르는 것이, 길 없는 숲에서 길을 헤쳐 나가는 것이, 나를 할퀴는 덤불을, 나를 찢는 가시밭을 뚫고 나가는 것이 내 즐거움이야! 그러면 조금 나아져! 조금! 그리고 지치고 목이 말라 이따금 길에 쓰러져 누울 때면, 이따금 깊은 밤에 높이 뜬 보름달 아래 외로운 숲속에서 구부러진 나무에 걸터앉아 상처 난 발바닥을 조금이라도 달래

주다가 지친 고요 속에 어스름 빛을 받으며 스르르 잠이 들 때면! 오, 빌헬름! 외딴 수도원의 방 한 칸, 거친 털옷과 가시 박힌 허리띠가 내 영혼이 목말라하는 위안일 거야. 잘 있어! 무덤 말고는 이 비참함의 끝이 보이지 않아.

9월 3일

나는 떠나야 해! 고마워, 빌헬름. 흔들리던 내 결심을 네가 굳혀 주었어. 벌써 두 주째 나는 로테를 떠날 생각을 품고 지내고 있어. 나는 떠나야 해. 로테는 다시 시내의 어느 벗 집에 가 있어. 그리고 알베르트는…… 그리고…… 나는 떠나야 해!

9월 10일

얼마나 대단한 밤이었는지! 빌헬름! 이제 나는 무엇이든 견뎌 낼 수 있어. 나는 다시는 로테를 보지 않을 거야! 오, 네 목에 매달려 천 줄기 눈물과 황홀 속에서 내 가슴에 몰아치는 감정들을 네게 털어놓을 수 없다니, 내 좋은 친구. 나는 여기 앉아 숨을 헐떡이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고, 아침을 기다리고 있어. 해가 뜨면 말이 오기로 되어 있어.

아, 로테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고, 다시는 나를 못 보리라는 건 생각도 못 하겠지. 나는 나를 떼어 냈어. 두 시간이나 이야기하는 동안 내 계획을 들키지 않을 만큼 강했어. 그런데 하느님,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였는지!

알베르트가 저녁을 먹고 나서 곧 로테와 함께 정원으로 나오겠다고 약속해서, 나는 테라스의 키 큰 밤나무 아래 서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랑스러운 골짜기 위로, 잔잔한 강 위로 지는 해를 지켜보았어. 이 자리에 로테와 함께 서서 바로 이 장엄한 광경을 지켜본 적이 얼마나 많았는데, 이제는…… 나는 그토록 사랑하던 가로수 길을 이리저리 거닐었어. 로테를 알기도 전부터 어떤 은밀한 끌림이 나를 이곳에 붙들어 두곤 했는데, 사귀기 시작한 무렵 우리 둘 다 이 작은 자리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뻐했던가. 이곳은 사람의 솜씨로 지어낸 것들 가운데 내가 본 가장 낭만적인 곳 가운데 하나야.

처음에는 밤나무 사이로 넓은 전망이 펼쳐지지…… 아, 생각나. 너한테 벌써 이 이야기를 많이 썼던 것 같아. 키 큰 너도밤나무 울타리가 마침내 사람을 에워싸고, 그 옆에 붙은 작은 숲 때문에 가로수 길이 점점 어두워지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닫힌 작은 자리 하나로 끝나는데, 거기에는 고독의 온갖 전율이 떠돌고 있어. 한낮에 처음 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얼마나 은밀한 느낌이 들었는지 나는 아직도 느끼는데, 그곳이 앞으로 더없는 행복과 고통의 무대가 되리라는 것을 그때 나는 아주 어렴풋이 예감했어.

나는 떠남과 다시 만남을 생각하며 애타고 달콤한 생각에 반 시간쯤 잠겨 있다가, 두 사람이 테라스로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마주 달려가, 전율하며 로테의 손을 잡아 입을 맞추었어. 우리가 막 올라섰을 때 덤불 우거진 언덕 뒤로 달이 떠올랐어.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어느새 어두운 정자 가까이 와 있었어. 로테가 안으로 들어가 앉았고, 알베르트가 그 곁에, 나도 앉았어.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 일어나 로테 앞에 섰다가, 이리저리 거닐다가, 다시 앉았어. 조마조마한 처지였지. 로테는 너도밤나무 울타리 끝에서 우리 앞의 테라스 전체를 비추는 달빛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라고 했어. 우리 둘레가 온통 짙은 어스름에 싸여 있어서 그만큼 더 놀라운 장관이었어. 우리는 말이 없었고, 잠시 뒤 로테가 입을 열었어. "달빛 아래를 거닐 때면 꼭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식구들 생각이 나요. 죽음과 저세상에 대한 느낌이 덮쳐 오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그 뒤에도 있을 거예요!" 로테는 더없이 장엄한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 베르테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다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예감이 드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테,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나는 로테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눈에 눈물이 그득 고였다. "여기서도, 저 세상에서도 다시 만날 거예요!" 나는 더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 빌헬름, 이 애타는 작별을 가슴에 품고 있는 나에게 로테가 꼭 그걸 물어야 했을까!

"그리고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이 우리를 알고 있을까요?" 로테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잘 지낼 때,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그분들을 떠올릴 때 그걸 느낄까요? 오! 고요한 저녁에 어머니의 아이들, 이제는 제 아이들인 그 애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 그 애들이 어머니 둘레에 모여 있던 것처럼 제 둘레에 모여 있으면, 어머니의 모습이 늘 제 주위를 떠돌아요. 그럴 때 그리운 눈물을 머금고 하늘을 바라보며, 어머니가 임종 때 제가 드린 약속,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제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잠깐이라도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외치는지 몰라요. '용서해 주세요, 소중한 어머니. 제가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해 주신 만큼 해 주지 못한다면요. 아! 그래도 저는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입고 먹고, 아, 그리고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보살핌과 사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사이좋게 지내는지 보실 수 있다면, 사랑하는 거룩한 분이시여! 아이들의 행복을 빌며 마지막으로 가장 쓰라린 눈물을 흘리셨던 그 하느님을 더없이 뜨거운 감사로 찬양하실 거예요.'" 로테가 그렇게 말했어! 오, 빌헬름, 로테가 한 말을 누가 되풀이할 수 있겠어! 차갑게 죽은 글자가 어떻게 이 거룩한 정신의 꽃을 그려 낼 수 있겠어! 알베르트가 부드럽게 로테의 말을 끊었다. "너무 마음을 쓰는군요, 로테! 로테의 영혼이 이런 생각에 깊이 기울어 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부탁이에요." "오, 알베르트." 로테가 말했다. "당신도 잊지 않았지.

아버지가 여행을 떠나시고 우리가 꼬마들을 재우고 나서 작고 둥근 탁자에 함께 앉아 있던 그 저녁들을. 당신은 자주 좋은 책을 가지고 왔지만 읽을 틈은 거의 없었지. 그 훌륭한 영혼과 함께 지내는 게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았어? 아름답고 부드럽고 쾌활하고 늘 부지런하던 분! 내가 잠자리에서 하느님 앞에 엎드려 어머니처럼 되게 해 달라고 얼마나 자주 울며 빌었는지 하느님은 아셔."

"로테!" 나는 로테 앞에 엎드려 그 손을 잡고 천 줄기 눈물로 적시며 외쳤다. "로테! 하느님의 축복이, 그리고 어머니의 영혼이 로테 위에 머물러 있어요!" "그분을 아셨더라면." 로테가 내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베르테르 씨가 알아 두실 만한 분이었어요!"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

내게 그보다 더 크고 더 자랑스러운 말이 건네진 적은 없었어. 로테는 말을 이었어. "그런 분이 꽃다운 나이에 떠나셔야 했어요. 막내아들이 여섯 달도 안 되었을 때요! 병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차분하셨고 다 받아들이셨어요. 다만 아이들이, 특히 젖먹이가 마음에 걸려 괴로워하셨어요. 마지막이 다가오자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올라오렴!' 하셨고,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것들과 넋이 나간 큰아이들이 침대 둘레에 섰을 때, 어머니는 두 손을 들어 아이들 위에서 기도하시고, 차례로 입을 맞추고는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주렴!' 저는 손을 드리며 약속했어요! '많은 걸 약속하는구나, 내 딸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마음과 어머니의 눈을 약속하는 거야. 네가 고마워하며 흘리는 눈물을 보고, 그게 어떤 건지 네가 느낀다는 걸 나는 자주 알았단다. 동생들에게는 그 마음을 주고, 아버지에게는 아내의 신의와 순종을 드려라. 네가 아버지를 위로해 드릴 거야.' 어머니는 아버지를 찾으셨지만 아버지는 밖에 나가 계셨어요. 우리에게

견딜 수 없는 슬픔을 보이지 않으려고요. 아버지는 완전히 무너져 계셨어요.

알베르트, 당신도 방에 있었지. 어머니는 누가 걸어가는 소리를 듣고 누구냐고 물으시고는 당신을 곁으로 부르셨어. 그리고 당신과 나를 바라보셨어. 우리가 행복하리라는 것을, 함께 행복하리라는 것을 믿고 안심하신 평온한 눈길로." 알베르트가 로테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외쳤다. "우리는 행복해! 앞으로도 행복할 거야!" 그 침착하던 알베르트가 완전히 평정을 잃었고, 나는 나 자신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몰랐어. "베르테르." 로테가 다시 말을 꺼냈다. "그런 분이 떠나셔야 했다니! 하느님! 사람이 자기 삶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남이 메고 가게 내버려 둬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리고 그걸 그토록 아프게 느끼는 건 아이들뿐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아이들은 검은 옷 입은 아저씨들이 엄마를 메고 갔다고 오랫동안 하소연했어요!" 로테가 일어섰어. 나는 정신이 번쩍 들며 뒤흔들린 채 그대로 앉아 로테의 손을 잡고 있었어. "그만 가요." 로테가 말했다. "시간이 됐어요." 로테가 손을 빼려 했지만 나는 더 꼭 잡았어.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내가 외쳤다. "우리는 서로를 찾아낼 거예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우리는 서로를 알아볼 거예요. 나는 떠나요." 내가 말을 이었다. "기꺼이 떠나요. 그래도 영원히 떠난다고 말해야 한다면 견딜 수 없을 거예요. 잘 있어요, 로테! 잘 있어, 알베르트! 우리는 다시 만날 거예요." "내일 말이죠?" 로테가 농담처럼 대꾸했다. 나는 그 '내일'이 가슴에 사무쳤어! 아, 로테는 몰랐어. 내 손에서 자기 손을 빼낼 때…… 두 사람은 가로수 길로 걸어 나갔어. 나는 선 채로 달빛 속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땅바닥에 몸을 던져 실컷 울고는, 벌떡 일어나 테라스로 달려 나가 저 아래 키 큰 보리수 그늘 속에서 정원 문 쪽으로 로테의 흰 옷자락이 아른거리는 것을 아직 보았어. 나는 두 팔을 뻗었고, 그것은 사라졌어.

제2부

1771년 10월 20일

어제 이곳에 도착했다. 공사는 몸이 좋지 않아 며칠 방에 틀어박혀 있을 모양이야. 그 사람이 그렇게 무뚝뚝하지만 않다면 다 괜찮을 텐데. 느껴져, 느껴져. 운명이 내게 혹독한 시련을 마련해 둔 모양이야. 그래도 기운을 내자! 마음이 가벼우면 무엇이든 견딘다! 마음이 가벼우면? 이 말이 펜 끝에 떠오르다니 웃음이 나는군. 아, 피가 조금만 더 가볍게 돌았더라면 나는 이 하늘 아래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뭐라고! 다른 사람들은 쥐꼬리만 한 힘과 재주를 가지고도 내 앞에서 흐뭇하게 우쭐대며 큰소리를 치고 다니는데, 나는 내 힘과 재능을 두고 절망한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선하신 하느님, 어째서 그 절반을 거두시고 그 대신 자신감과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참자! 참자! 나아질 거야. 친구야, 네 말이 옳아. 날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이리저리 떠밀리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게 된 뒤로, 나는 나 자신과 훨씬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 우리는 어차피 모든 것을 자기와 견주고 자기를 모든 것과 견주도록 생겨 먹었으니, 행복이든 불행이든 우리가 무엇과 어울려 지내느냐에 달려 있게 마련이고, 그러니 고독만큼 위험한 것도 없지. 우리의 상상력은 본디 높이 날아오르려 들고 시가 그려 내는 환상의 그림을 먹고 자라서, 저 위로 존재들의 사다리를 쌓아 올린다. 그 맨 밑바닥에 우리가 있고, 우리

밖의 모든 것은 더 찬란해 보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같이 더 완전해 보이지.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야. 우리는 무언가가 모자라다는 것을 자주 느끼는데, 바로 우리에게 없는 그것을 다른 누군가는 가진 것처럼 보이곤 해.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까지 모두 그 사람에게 얹어 주고, 거기에 어떤 이상화된 흐뭇함까지 덤으로 보태 준다.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 하나가 완벽하게 다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자신이 빚어낸 피조물 말이야.

반대로 우리가 온갖 나약함과 고달픔을 안은 채로 그저 묵묵히 일해 나가다 보면, 어슬렁거리고 갈지자로 배를 몰면서도 돛을 올리고 노를 젓는 남들보다 더 멀리 나아갔다는 것을 꽤 자주 알게 되지. 그러니까…… 남과 나란히 가거나 오히려 앞질러 달릴 때 느끼는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자기 자신을 느끼는 일이야.

11월 26일

이곳 생활이 그럭저럭 견딜 만해지기 시작했어. 무엇보다 좋은 건 할 일이 넉넉하다는 거고, 그다음으로는 온갖 사람들, 갖가지 새로운 얼굴들이 내 영혼 앞에 알록달록한 연극을 펼쳐 보여 준다는 거야. C 백작과 알게 되었는데, 날마다 더 우러르게 되는 사람이야. 머리가 넓고 큰 사람이고, 많은 것을 두루 내다보기 때문에 오히려 차갑지 않은 사람이며, 함께 지내다 보면 우정과 사랑을 아는 감정이 그토록 환하게 배어 나오는 사람이야. 업무로 심부름을 가서 일을 전했을 때, 백작은 첫마디부터 우리가 서로 통한다는 것을, 나하고는 아무하고나 하듯 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나에게 마음을 써 주었어. 나를 대하는 그 툭 터놓은 태도는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란데, 위대한 영혼이 자기에게 마음을 열어 보이는 걸 보는 것만큼 참되고 따뜻한 기쁨은 이 세상에 없어.

12월 24일

공사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아. 미리 짐작했던 대로야. 그 사람은 세상에 다시없을 만큼 꼼꼼한 바보야. 한 걸음 한 걸음 늙은 아주머니처럼 시시콜콜하고, 자기 자신에게 한 번도 만족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라 누구도 그의 마음에 들게 해 줄 수가 없어. 나는 일을 가볍게 해치우고 된 것은 된 대로 두는 걸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내가 쓴 문서를 도로 내밀면서 서슴없이 이렇게 말하고도 남을 위인이야. "좋소. 그래도 다시 한번 훑어보시오. 언제든 더 나은 낱말, 더 깔끔한 토씨가 있는 법이오." 그러면 나는 부아가 치밀어 미칠 것 같아. '그리고' 하나, 접속사 하나도 빠뜨려서는 안 되고, 내가 이따금 무심코 쓰는 도치법이라면 원수 보듯 하고, 문장을 늘 해 오던 가락대로 오르간 뽑듯 줄줄 뽑아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해. 이런 사람과 일을 해야 한다니 고역이야.

C 백작의 신임만이 아직 나를 버티게 해 주는 유일한 보상이야. 얼마 전 백작은 내 공사가 일을 느리게 처리하고 지나치게 머뭇거리는 게 얼마나 못마땅한지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도 남도 힘들게 만들지. "그래도 산을 넘어야 하는 나그네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소." 백작이 말했어. "물론 산이 없다면 길이 훨씬 편하고 짧겠지. 하지만 산은 엄연히 거기 있고, 넘어가야 하오!"

내 늙은이도 백작이 자기보다 나를 더 아낀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고, 그게 비위에 거슬려서 기회만 있으면 내 앞에서 백작을 헐뜯는데, 나는 당연히 맞서니 일은 더 꼬일 뿐이야. 어제는 나까지 싸잡아 하는 말이라 기어이 화가 났는데, 백작은 그런 세상일에는 아주 쓸 만하고, 일을 가뿐하게 해치우고 글솜씨도 좋지만, 문필가들이 다 그렇듯 철저한 학식은 모자란다는 거야. 그러면서 "찔리는 데가 있지?" 하고 말하려는 듯한 얼굴을 했어. 하지만 내게는 먹혀들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처신할 수 있는 인간을 나는 경멸했으니까. 나는 물러서지 않고

꽤 격하게 맞섰어. 백작은 인품에서나 학식에서나 존경해야 마땅한 분이라고 했지. "저는 자기 정신을 넓혀 수없이 많은 대상에 두루 펼치면서도 일상의 삶을 위한 활동을 그대로 지켜 낸 사람을 그분 말고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했어. 그건 그 꽉 막힌 머리로는 알아듣지 못할 딴 나라 말이었고, 나는 엉터리 소리를 더 듣다가 속을 더 끓이지 않으려고 서둘러 인사를 하고 물러 나왔어.

그리고 이게 다 너희 탓이야. 나를 꼬드겨 이 멍에를 씌우고 활동이니 뭐니 하는 노래를 그토록 불러 대던 너희 말이야. 활동이라니! 감자를 심고 곡식을 팔러 말을 타고 시내로 가는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사슬로 묶여 있는 이 노예선에서 십 년은 더 노를 저어도 좋아.

그리고 여기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고약한 족속들의 번지르르한 비참함과 따분함이란! 서로 한 발짝이라도 앞서려고 눈을 부릅뜨고 엿보는 그 자리다툼, 걸칠 옷 한 자락 없이 맨몸을 드러낸 더없이 비참하고 한심한 정열들! 예를 들어 여기 어떤 여자가 있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자기 가문과 자기 고장 이야기를 늘어놓아서, 낯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 저 여자는 쥐꼬리만 한 귀족 혈통과 자기 고장의 이름을 두고 대단한 공상을 품고 사는 바보로구나. 그런데 그보다 훨씬 고약한 게 있어. 바로 그 여자가 이 근처 관아 서기의 딸이라는 거야. 봐, 나는 그토록 분별이 없어서 그렇게 천박하게 제 꼴을 드러내 웃음거리가 되는 인간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

물론 날이 갈수록 깨닫는 건데, 친구야, 남을 자기 잣대로 재는 건 어리석은 일이야. 그리고 나는 나 자신만으로도 감당할 일이 너무 많고 이 가슴이 이토록 사나우니…… 아, 남들이 저마다 제 길을 가도록

기꺼이 내버려 두겠어. 그 사람들도 나를 내 길로 가게 내버려 둘 수만 있다면.

나를 가장 약 올리는 건 그 고약한 신분 관계야. 물론 신분의 차이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 덕에 나 자신도 얼마나 많은 이득을 보는지 나도 누구 못지않게 잘 알지만, 다만 내가 이 땅에서 아직 조금이나마 기쁨을, 행복의 희미한 빛을 누릴 수 있을 바로 그 자리에서 내 앞길을 가로막지만 말았으면 좋겠어. 얼마 전 산책길에서 B 양을 알게 되었어. 이 딱딱한 생활 한가운데서도 꾸밈없는 자연을 아주 많이 간직한 사랑스러운 아가씨야.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마음에 들었고, 헤어질 때 나는 찾아가 뵈어도 되겠느냐고 허락을 청했는데, 아가씨가 어찌나 스스럼없이 허락해 주던지 나는 찾아가도 될 만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기 힘들 지경이었어. 아가씨는 이곳 사람이 아니고 숙모 댁에서 지내. 그 노부인의 생김새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 나는 노부인에게 아주 정성을 기울였고 말도 대부분 그쪽으로 건넸는데, 반 시간도 안 되어 나중에 아가씨가 직접 털어놓은 것을 거의 다 알아챘어. 그 다정한 숙모님은 그 나이가 되도록 모든 게 모자라서, 체면을 차릴 만한 재산도 없고 재치도 없고, 기댈 것이라고는 조상들의 줄밖에 없고, 몸을 가릴 방패라고는 말뚝 울타리처럼 둘러친 신분밖에 없고, 즐거움이라고는 자기가 사는 높은 층에서 시민들의 머리 너머로 내려다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젊었을 때는 예뻤다고 하는데, 평생을 들떠 놀며 보내면서 처음에는 제멋대로 굴어 숱한 가난한 젊은이를 괴롭혔고, 나이가 좀 든 뒤에는 늙은 장교에게 고분고분 몸을 굽혔대. 그 장교는 그 대가와 그럭저럭한 생활비를 받고 노부인과 함께 청동의 시대를 보내다가 죽었다는 거야. 이제 노부인은 철의 시대에 홀로 남았고, 조카딸이 그토록 사랑스럽지 않다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거야.

1772년 1월 8일

온 영혼이 의례에만 매달려 있고, 몇 해 동안이나 어떻게 하면 식탁에서 한 자리라도 더 위로 비집고 올라앉을까 하는 데만 궁리와 애를 쏟는 이런 사람들이란 대체 뭘까!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 달리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야. 아니, 오히려 일은 쌓여만 가. 바로 그런 자잘한 언짢은 일들에 매달리느라 중요한 일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지난주에는 썰매 놀이에서 자리를 두고 다툼이 벌어져 모처럼의 재미가 다 망가졌어.

자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첫자리에 앉은 사람이 첫째 노릇을 하는 일은 아주 드물다는 걸 못 보는 바보들! 얼마나 많은 왕이 대신에게 휘둘리고, 얼마나 많은 대신이 비서에게 휘둘리는가! 그렇다면 누가 첫째일까? 내 생각에는 바로 다른 사람들을 두루 꿰뚫어 보고, 그들의 힘과 정열을 자기 계획을 이루는 데 마음대로 부릴 만한 권세나 꾀를 지닌 사람이야.

1월 20일

다정한 로테, 편지를 써야겠어요. 사나운 날씨를 피해 들어온 허름한 시골 주막의 방 안에서요. 그 쓸쓸한 소굴 D에서, 낯설고 내 마음에는 더없이 낯선 사람들 틈을 헤매고 다니는 동안에는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마음이 로테에게 편지를 쓰라고 이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오두막에서, 이 고독 속에서, 이 좁은 테두리 안에서, 눈과 우박이 내 작은 창문에 미친 듯이 몰아치는 이곳에서 맨 먼저 떠오른 건 로테였어요. 들어서는 순간 로테의 모습이, 로테의 기억이 나를 덮쳤어요. 오, 로테! 그토록 거룩하게, 그토록 따뜻하게! 선하신 하느님! 다시 찾아온 첫 행복한 순간이에요.

소중한 로테, 정신없이 흩어지는 이 소용돌이 속에 있는 나를 보신다면! 내 감각이 얼마나 메말라 가는지! 마음이 가득 차오르는 순간은 한 번도, 더없이 행복한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무것도요! 나는 요지경 상자 앞에 선 것처럼 작은 사람들과 작은 말들이 눈앞에서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바라보며, 이게 눈속임이 아닌가 하고 자주 스스로 물어요. 나도 함께 놀아요. 아니, 꼭두각시처럼 남의 손에 놀아나지요. 그러다 이따금 옆 사람의 나무 손을 잡고는 몸서리치며 물러나요. 저녁이면 내일은 해돋이를 즐기겠다고 마음먹지만 아침에 침대에서 나오지 못하고, 낮에는 밤에 달빛을 즐기겠다고 기대하지만 방에 틀어박혀 있어요. 내가 왜 일어나는지, 왜 자러 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내 삶을 부풀어 오르게 하던 누룩이 없어요. 깊은 밤에도 나를 깨어 있게 하던 그 설렘은 가 버렸고, 아침이면 나를 잠에서 깨우던 그것도 사라지고 없어요.

여기서 여자다운 사람이라고는 딱 한 사람을 찾았어요. B 양이라는 아가씨인데, 다정한 로테, 로테를 닮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아가씨가 로테를 닮았어요. "어머나!" 로테는 이렇게 말하겠지요. "이 사람이 이제 간드러진 인사치레까지 늘어놓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얼마 전부터 나는 달리 어쩔 도리가 없어서 아주 상냥하게 굴고 재치도 많이 부리는데, 여자들은 나만큼 섬세하게 칭찬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해요(그리고 거짓말도 그렇다고 로테는 덧붙이겠지요. 그게 없으면 안 되니까요, 아시겠어요?). B 양 이야기를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 아가씨는 영혼이 풍부해서, 그 영혼이 파란 눈에서 넘쳐 나와요. 아가씨에게는 신분이 짐이에요. 마음속 소원을 하나도 채워 주지 못하니까요. 아가씨는 이 소란에서 벗어나기를 그리워하고, 우리는 티 없는 행복이 가득한 시골 풍경을 그리며 공상으로 여러 시간을 보내요. 아! 그리고 로테 이야기로도요! 아가씨는 얼마나 자주 로테를 우러러 칭송해야 하는지 몰라요. 아니, 해야 해서가 아니라 제 마음에서 우러나 그래요. 로테 이야기를 그렇게 즐겨 듣고, 로테를 사랑해요. 오,

그 정답고 아늑한 방에서 로테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 있다면, 우리 귀여운 꼬마들이 내 둘레에서 뒤엉켜 뒹굴고, 그 애들이 로테에게 너무 시끄러워지면 으스스한 옛이야기로 그 애들을 내 곁에 불러 모아 얌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해가 눈부신 눈 덮인 들판 위로 장엄하게 지고, 폭풍은 건너가 버렸고, 나는…… 다시 내 새장에 나를 가둬야 해요. 잘 있어요! 알베르트는 로테 곁에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걸 묻다니, 하느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를!

2월 8일

여드레째 날씨가 더없이 고약한데 나한테는 그게 오히려 고마워, 여기 온 뒤로 하늘에 고운 날이 하루라도 떴다 하면 그날은 누군가가 꼭 망쳐 놓거나 정떨어지게 만들어 버렸거든. 그런데 비가 제대로 퍼붓고 눈보라가 치고 으슬으슬 얼었다가 녹기라도 하면, 하! 나는 생각해. 안이 밖보다 더 나쁠 수는 없겠지, 아니면 그 반대거나, 그러니 잘됐어. 아침에 해가 떠올라 맑은 하루를 약속하면 나는 이렇게 외치지 않고는 못 배겨. 저것 봐, 저 사람들이 서로 빼앗아 갈 하늘의 선물이 또 하나 생겼구나! 그 사람들이 서로 빼앗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어. 건강, 좋은 이름, 즐거움, 휴식! 그것도 대개는 어리석음과 몰이해와 좁은 속 때문이고, 그 사람들 말을 들어 보면 더없이 좋은 뜻에서 그런다는 거야. 이따금 나는 무릎을 꿇고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빌고 싶어. 제 창자를 그렇게 미친 듯이 물어뜯지 말라고.

2월 17일

아무래도 공사와 나는 이제 오래 함께 버티지 못할 것 같아. 그 사람은 정말이지 견딜 수가 없어. 일하고 업무를 보는 꼴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나는 참지 못하고 대들게 되고, 종종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을 처리하는데, 그게 그 사람 마음에 들 리가 없지. 그래서

얼마 전 그가 궁정에 나를 고자질했고, 대신은 내게 견책을 내렸어. 부드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견책은 견책이었지. 그 일로 사직을 청하려던 참이었는데, 바로 그때 대신이 손수 쓴 편지 한 통을 받았고, 나는 그 편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높고 고귀하고 지혜로운 뜻을 우러러 받들었어. 대신은 나의 지나친 예민함을 얼마나 너그럽게 바로잡아 주는지! 일의 효과니 남에게 미치는 영향이니 업무를 밀고 나가는 힘이니 하는 내 들뜬 생각을 젊은이다운 좋은 패기라고 인정해 주면서도, 그것을 뿌리 뽑으려 하지 않고 다만 누그러뜨려서, 그 생각들이 제대로 자리를 찾아 힘 있게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이끌어 주려 하는지! 덕분에 나는 여드레 동안 힘이 나고 마음이 하나로 모였어. 영혼의 평온이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서 얻는 기쁨이란 참 근사한 거야. 친구야, 그 보물이 아름답고 귀한 만큼 깨지기 쉽지만 않다면 좋으련만.

2월 20일

하느님께서 두 사람을 축복하시고, 나한테서 거두어 가시는 좋은 날들을 모두 두 사람에게 주시기를, 나의 다정한 사람들!

고마워, 알베르트, 나를 속여 줘서. 나는 두 사람의 결혼식 날이 언제인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바로 그날 엄숙하게 벽에서 로테의 실루엣을 떼어 다른 서류들 밑에 묻어 버리려고 마음먹고 있었어. 그런데 두 사람은 이미 부부가 되었고, 로테의 그림은 아직 여기 걸려 있어! 그래, 그럼 그대로 두자! 안 될 게 뭐야? 나도 알아. 나도 두 사람 곁에 있고, 너한테 해가 되지 않게 로테의 마음속에 있다는 걸. 나는, 그래, 나는 그 마음속에 둘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자리를 지키고 싶고 지켜야 해. 오, 로테가 잊을 수 있다면 나는 미쳐 버릴 거야…… 알베르트, 그 생각 속에는 지옥이 있어. 알베르트, 잘 있어! 잘 있어, 하늘의 천사! 잘 있어, 로테!

3월 15일

언짢은 일을 겪었는데, 그 일로 나는 여기서 쫓겨나게 될 거야. 이가 갈려! 빌어먹을! 돌이킬 수가 없는 일이야. 그리고 이건 다 너희 탓이야.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자리에 들어가라고 나를 다그치고 몰아대고 들볶은 너희 말이야. 이제 꼴좋게 됐어! 너희도 꼴좋게 됐고! 내 들뜬 생각이 모든 걸 망친다고 네가 또 말하지 못하게, 친구 양반, 여기 연대기 쓰는 사람이 적어 둘 법하게 꾸밈없고 깔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줄게.

C 백작이 나를 아끼고 남달리 대해 준다는 건 다 아는 일이고, 너한테도 백 번은 말했지. 그런데 어제 나는 백작 댁에서 식사를 했어. 마침 저녁이면 그 댁에 귀족 신사 숙녀들의 고상한 모임이 열리는 날이었는데, 나는 그 모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우리 같은 아랫사람은 거기 끼지 못한다는 것도 떠올린 적이 없었어. 좋아. 나는 백작 댁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자 우리는 큰 홀을 이리저리 거닐어. 나는 백작과 이야기를 하고, 거기 끼어든 B 대령과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사이 모임 시간이 다가와. 나는 정말이지 아무 생각도 없어. 그때 지나치게 은혜로우신 S 부인이 부군과, 납작한 가슴에 앙증맞은 코르셋을 조인, 잘 품어 깐 거위 새끼 같은 따님을 데리고 홀 안으로 들어와.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늘 하던 대로 고귀하신 귀족의 눈과 콧구멍을 해 보이고, 나는 그 족속이 진심으로 싫었기 때문에 막 인사를 하고 물러나려고 백작이 그 지긋지긋한 수다에서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나의 B 양이 들어왔어. 그 아가씨를 보면 늘 마음이 조금 열리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남아 아가씨의 의자 뒤에 섰고, 한참 지나서야 아가씨가 여느 때보다 덜 터놓고 조금 난처해하며 나와 이야기한다는 걸 알아챘어. 그게 마음에 걸렸어. 이 아가씨도 저 족속들과 똑같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니 기분이 상해서 가 버리려 했지만, 그래도 남았어. 아가씨를 감싸 주고 싶었고, 아가씨가 그렇다는

걸 믿고 싶지 않았고, 아가씨에게서 다정한 말 한마디를 아직 기대했고, 그리고…… 네 마음대로 생각해. 그사이 모임은 사람들로 꽉 찼어. 프란츠 1세의 대관식 때부터 내려온 옷가지를 몽땅 걸친 F 남작, 여기서는 체면상 R 씨라고 불리는 R 궁정 고문관과 그 귀먹은 부인 등등, 그리고 낡아 빠진 옛날 옷의 구멍을 새 유행 헝겊으로 기워 입은, 차림새가 엉망인 J도 빼놓을 수 없지. 그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나는 아는 사람 몇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들 말이 아주 짧아.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의 B 양에게만 신경을 썼어. 홀 끝에서 여자들이 서로 귓속말을 하고, 그게 남자들에게로 돌고, S 부인이 백작과 이야기하는 걸 나는 눈치채지 못했어(이건 다 나중에 B 양이 이야기해 주었어). 그러다 마침내 백작이 내게로 다가와 나를 창가로 데려갔어. "우리네 묘한 사정은 잘 아시지 않소." 백작이 말했어. "보아하니 모임 사람들이 여기서 마주치는 걸 언짢아하는 것 같소. 나로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각하." 내가 말을 막았어. "천 번 만 번 용서를 빕니다. 진작 그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각하께서 저의 이 앞뒤 없는 짓을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까부터 물러가려 했는데 못된 귀신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그렇게 덧붙였어. 백작은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감정을 담아 내 두 손을 꼭 쥐었어. 나는 그 고귀한 모임에서 슬그머니 빠져나와 이륜마차를 타고 M으로 갔어, 거기 언덕에서 해 지는 걸 보며 내 호메로스에서 오디세우스가 훌륭한 돼지치기에게 대접받는 그 멋진 노래를 읽으려고. 그건 다 좋았어.

저녁에 식사하러 여관에 돌아왔더니 식당에는 아직 사람이 몇 없었고, 그 몇 사람은 한쪽 구석에서 식탁보를 걷어 젖혀 놓고 주사위를 굴리고 있었지. 그때 정직한 아델린이 들어와 나를 보며 모자를 내려놓더니, 내게 다가와 나직이 말했어. "언짢은 일이 있었다며?" "내가?" 내가 말했어. "백작이 모임에서 너를 내보냈다던데." "그 사람들 다 악마가

잡아가라지!" 내가 말했어. "나야 바깥 공기를 쐬게 되어 좋았어." "다행이네, 네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니." 아델린이 말했어. "다만 속상한 건 벌써 소문이 쫙 퍼졌다는 거야." 그제야 그 일이 슬슬 나를 갉아먹기 시작해서, 식사하러 와서 나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너를 보는 거야, 하고 생각했지. 그러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

그런데 오늘은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동정하고, 나를 시샘하던 자들이 이제 의기양양해서 떠든다는 소리까지 들리는데, 그것 봐라, 쥐꼬리만 한 머리를 믿고 우쭐대며 그 때문에 온갖 신분 관계를 뛰어넘어도 된다고 믿는 건방진 녀석들의 끝이 저렇다니까, 하면서 개 짖는 소리 같은 수다를 늘어놓는다니, 이럴 땐 칼로 가슴을 찔러 버리고 싶어. 자립이니 뭐니 아무리 떠들어도 좋아. 악당들이 자기를 두고 떠들어 대는 걸, 그것도 그놈들이 자기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을 때 꾹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 한번 보고 싶어. 그놈들의 수다가 빈말일 때라면야, 아, 그때는 쉽게 내버려 둘 수 있지.

3월 16일

모든 게 나를 몰아대. 오늘 가로수 길에서 B 양을 만났는데, 나는 참지 못하고 말을 걸었고, 일행에게서 조금 떨어지자마자 지난번 아가씨의 태도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내보였어. "아, 베르테르." 아가씨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 "제 마음을 아시면서 제가 당황한 걸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었어요? 홀에 들어선 순간부터 베르테르 씨 때문에 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저는 다 내다보고 있었어요. 말씀드리려고 백 번도 넘게 혀끝까지 올라왔어요. S 부인과 T 부인이 남편들과 함께 베르테르 씨와 한자리에 있느니 차라리 먼저 일어나리라는 걸 알았고, 백작님이 그분들과 사이가 틀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소동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가씨?" 나는 놀란 마음을 감추며 말했어. 그저께 아델린이 해 준 말이 모두 그 순간 끓는 물처럼 내 핏줄을 타고 흘렀거든. "그 일로 제가 벌써 얼마나 치렀는지 몰라요!" 그 사랑스러운 아가씨가 눈에 눈물을 머금고 말했어. 나는 더는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없어서 하마터면 아가씨 발밑에 몸을 던질 뻔했어. "속 시원히 말해 주세요!" 내가 외쳤어. 눈물이 아가씨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 나는 넋이 나갔어. 아가씨는 눈물을 감추려 하지도 않고 닦아 냈어. "제 숙모님을 아시지요." 아가씨가 말을 꺼냈어. "숙모님이 그 자리에 계셨는데…… 아, 그걸 어떤 눈으로 보셨는지! 베르테르, 저는 어젯밤 시달렸고 오늘 아침에는 베르테르 씨와 어울린다고 설교를 들었어요. 숙모님이 베르테르 씨를 깎아내리고 업신여기는 걸 듣고만 있어야 했고, 반밖에 변호해 드리지 못했어요. 그럴 수도 없었고 그래서도 안 되었으니까요." 아가씨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내 가슴을 꿰뚫었어. 그걸 모두 내게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자비로운 일이었을지 아가씨는 느끼지 못한 채, 앞으로 무슨 말이 더 나돌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 일로 얼마나 의기양양해할지까지 덧붙였어.

내 건방짐과, 그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나를 두고 탓해 온 남 깔보는 태도가 이제 드디어 벌을 받았다며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소해하고 기뻐할지까지. 빌헬름, 그 모든 말을 그 아가씨에게서, 더없이 참된 동정이 담긴 목소리로 들어야 했다니! 나는 무너졌고 지금도 속으로 분이 치밀어. 누가 감히 그 일로 나를 나무라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놈 몸에 칼을 꽂아 줄 수 있을 텐데. 피를 보면 속이 좀 풀릴 것 같아. 아, 이 답답한 가슴에 숨통을 틔워 주려고 나는 백 번도 넘게 칼을 집어 들었어. 듣자니 어떤 고귀한 혈통의 말은 몹시 달아오르고 쫓기면 본능적으로 제 핏줄을 물어뜯어 숨을 돌린다고 해. 나도 자주 그런 기분이야. 나에게 영원한 자유를 안겨 줄 핏줄 하나를 열고 싶어.

3월 24일

궁정에 사직을 청했어. 받아들여지리라 믿어. 미리 너희 허락을 받지 않은 걸 너희는 용서해 주겠지. 나는 어쨌든 떠나야 했어. 나를 붙잡으려고 너희가 할 말이 무엇이었을지 다 알아. 그러니까…… 이 일을 어머니께 달콤한 물약에 타서 드리듯 살살 전해 드려. 나는 나 자신도 어쩌지 못하니, 어머니를 도와 드리지 못하더라도 어머니께서 그냥 받아들이셔야지. 물론 마음이 아프시겠지. 자기 아들이 추밀 고문관과 공사를 향해 막 내딛던 멋진 길이 한순간에 멈춰 서고, 그 작은 짐승을 끌고 도로 마구간으로 돌아가는 꼴을 보셔야 하니! 너희 좋을 대로 생각해. 내가 남을 수 있었고 남아야 했던 경우를 이리저리 따져 봐. 어쨌든 나는 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게 말해 두자면, 여기 ＊＊ 제후가 계시는데, 내 곁에 있는 걸 무척 즐거워하시는 분이라, 내가 그만둘 생각이라는 걸 들으시고는 함께 영지로 가서 아름다운 봄을 거기서 보내자고 청하셨어. 나를 아주 내 뜻대로 지내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는 서로 통하니, 운에 맡기고 따라가 볼 생각이야.

알림

4월 19일

편지 두 통 고마워. 답장을 하지 않은 건 궁정에서 사직 허가가 나올 때까지 이 편지를 부치지 않고 놓아두었기 때문인데, 어머니가 대신께 부탁해서 내 계획을 어렵게 만드실까 걱정했거든. 이제는 다 끝났어. 사직이 허락되었어. 사람들이 얼마나 마지못해 허락했는지, 대신이 내게 무어라 써 보냈는지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을래, 들으면 너희가 또 새로 한탄을 늘어놓을 테니까. 세자께서 작별 선물로 25두카텐을 보내 주셨는데, 곁들인 말씀에 나는 눈물이 날 만큼 감동했어. 그러니 얼마 전 편지에 썼던 그 돈은 어머니께 받지 않아도 돼.

5월 5일

내일 여기를 떠나는데, 내가 태어난 곳이 가는 길에서 6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니 그곳도 다시 보고, 꿈결처럼 행복했던 옛날을 되새겨 보려고 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그 정답고 아늑한 곳을 떠나 견딜 수 없는 그 도시에 틀어박히러 가실 때 나를 데리고 수레를 타고 빠져나갔던 바로 그 성문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해. 잘 있어, 빌헬름. 내 여행 이야기를 들려줄게.

5월 9일

나는 순례자다운 경건한 마음을 다해 고향 순례를 마쳤고, 그사이 뜻밖의 느낌들이 여러 번 나를 사로잡았어. 시내에서 S 쪽으로 걸어서 십오 분쯤 되는 곳에 서 있는 큰 보리수 앞에서 마차를 세우게 하고 내린 다음, 마부에게는 먼저 가라고 일렀는데, 걸어가면서 모든 추억을 하나하나 아주 새롭고 생생하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맛보고 싶었거든. 그렇게 나는 그 보리수 아래 섰어. 어린 시절 내 산책의 목표이자 끝이던 그 보리수 아래.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때 나는 행복하게도 아무것도 모른 채, 내 마음을 먹일 양식과 그토록 많은 즐거움을 찾아 무언가를 향해 애쓰고 그리워하는 내 가슴을 채우고 달래 주리라 기대하며 낯선 세상으로 나가기를 그리워했어. 이제 나는 넓은 세상에서 돌아와. 오, 친구야, 얼마나 많은 어그러진 희망을 안고, 얼마나 많은 무너진 계획을 안고! 내 앞에 산줄기가 펼쳐져 있었어. 천 번도 넘게 내 소망이 머물던 산들이야. 몇 시간이고 여기 앉아 저 너머를 그리워하며, 그토록 다정하게 어스름 속에 눈앞에 펼쳐지던 숲과 골짜기에 온 영혼을 쏟아 나를 잃어버리곤 했지. 그러다 정해진 시간이 되어 돌아가야 할 때면 얼마나 마지못해 그 정다운 자리를 떠났던지! 시내에 가까워지면서 나는 낯익은 옛 정원 오두막들에 하나하나 인사를 건넸고, 새로 생긴 것들은 눈에 거슬렸고, 사람들이 그 밖에 바꿔 놓은 것들도 다 그랬어. 성문으로

들어서자 나는 곧바로, 그리고 온전히 옛 나를 되찾았어. 친구야,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을래. 나에게는 그토록 마음 설레는 일이었지만, 이야기로 들으면 그만큼 단조로울 거야. 나는 장터에, 우리 옛집 바로 옆에 묵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리로 가다가 보니 정직한 늙은 아주머니 하나가 어린 우리를 가축처럼 몰아넣고 가르치던 학교 방이 잡화 가게로 바뀌어 있었어. 그 굴속에서 겪었던 불안과 눈물과 멍한 마음과 가슴 졸임이 다 떠올라. 내가 내딛는 걸음마다 뜻깊지 않은 데가 없었어. 성지를 찾은 순례자라도 이렇게 많은 신앙의 추억이 깃든 자리를 만나지는 못할 테고, 그의 영혼도 이만큼 거룩한 감동으로 가득 차지는 못할 거야. 천 가지 가운데 하나만 더 말할게. 나는 강을 따라 어느 농장까지 내려갔는데, 그건 예전에도 내가 다니던 길이고, 그 길가에는 우리 사내아이들이 납작한 돌을 물 위로 몇 번이나 튀길 수 있는지 겨루던 작은 자리들이 있어. 이따금 서서 흘러가는 물을 바라보던 때가 그토록 생생하게 떠올랐어. 얼마나 신비로운 예감을 품고 물을 눈으로 따라갔는지, 물이 흘러가는 고장을 얼마나 모험 가득하게 그려 보았는지, 그러다 내 상상력이 얼마나 금세 한계에 부딪혔는지. 그래도 물은 계속 흘러가야 했어. 자꾸만 더 멀리, 마침내 내가 보이지 않는 먼 곳을 바라보는 데 완전히 넋을 잃을 때까지. 봐, 친구야, 그 훌륭한 옛 조상들은 그렇게 좁은 테두리 안에서 그토록 행복했어! 그 감정, 그 시는 그토록 어린아이 같았어! 오디세우스가 헤아릴 수 없는 바다와 끝없는 땅을 이야기할 때, 그건 그토록 참되고 인간적이고 절절하고 좁고 신비로워. 땅이 둥글다는 걸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마다 따라 말하듯 나도 따라 말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내게 무슨 소용이야? 사람에게는 그 위에서 누릴 흙덩이 몇 개면 족하고, 그 아래에서 쉴 흙덩이는 그보다 더 적어도 돼. 이제 나는 여기, 제후의 사냥 성에 와 있어. 이 어른과는 아직 그럭저럭 잘 지낼 만해. 참되고 소박한 분이야. 그 둘레에는 내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묘한 사람들이 있어. 악당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정직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 이따금 정직해 보이다가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또 아쉬운 건, 제후가 그저 남에게 듣거나 책에서 읽기만 한 것을, 그것도 다른 사람이 들려준 바로 그 관점 그대로 이야기하는 일이 잦다는 거야. 게다가 제후는 이 마음보다 내 지성과 재능을 더 높이 사. 이 마음이야말로 내 유일한 자랑이고, 모든 것의, 모든 힘과 모든 행복과 모든 비참함의 유일한 샘인데. 아, 내가 아는 건 누구라도 알 수 있어. 내 마음은 나만 가졌어.

5월 25일

다 이루기 전에는 너희에게 말하지 않으려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되었으니 말해도 마찬가지야. 나는 전쟁에 나가려고 했어.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 온 일이야. 내가 제후를 따라 이리로 온 것도 주로 그 때문이야. 제후는 ＊＊＊ 나라 군대의 장군이거든. 산책하다가 그 계획을 털어놓았더니 제후는 말렸어. 그 이유를 듣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그건 내게 한때의 변덕이 아니라 정열이었다는 뜻이겠지.

6월 11일

네가 뭐라 하든 나는 더는 여기 있을 수 없어. 여기서 내가 무얼 하겠어? 시간이 지루하기만 해. 제후는 더할 나위 없이 나를 잘 대해 주지만, 그래도 나는 내 자리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서로 통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제후는 분별 있는 사람이지만 아주 흔해 빠진 분별을 지녔을 뿐이라, 그와 어울리는 건 그저 잘 쓴 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조금도 더 즐겁지 않아. 여드레만 더 머물고, 그다음에는 다시 정처 없이 떠돌 거야. 내가 여기서 한 일 가운데 가장 잘한 건 그림 그리기야. 제후는 예술을 느낄 줄 알고, 그 고약한 학문 냄새와 흔해 빠진 용어에 갇혀 있지만 않다면 훨씬 더 깊이 느낄 텐데.

내가 뜨거운 상상력으로 자연과 예술 속을 이리저리 안내하고 있는데, 제후가 갑자기 제대로 해 보겠다며 판에 박힌 전문 용어 하나를 들고 불쑥 끼어들 때면 나는 이따금 이를 갈아.

6월 16일

그래, 나는 그저 나그네, 이 땅 위를 떠도는 순례자일 뿐이야! 그렇다면 너희는 그보다 나은 뭐라도 된단 말이야?

6월 16일

내가 어디로 가려는지? 너한테만 살짝 털어놓을게. 어차피 여기 두 주는 더 있어야 하는데, 그다음에는 * * * 지방의 광산을 둘러보고 싶다고 나 자신을 속여 왔어.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로테 곁으로 다시 가까이 가고 싶을 뿐이야. 그게 다야. 그리고 나는 내 마음을 비웃으면서도…… 그 마음이 하자는 대로 해 주지.

7월 29일

아니, 이걸로 됐어! 다 잘됐어! 내가…… 로테의 남편이라니! 오, 나를 지으신 하느님, 이 더없는 행복을 저에게 마련해 주셨더라면 제 평생이 끊이지 않는 기도가 되었을 겁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눈물을 용서하시고, 저의 부질없는 소망을 용서해 주십시오! 로테가 내 아내라니! 해 아래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을 내 품에 안았더라면! 빌헬름, 알베르트가 로테의 가는 허리를 감싸 안을 때면 온몸에 소름이 끼쳐.

그리고, 말해도 될까? 안 될 게 뭐야, 빌헬름? 로테는 그 사람보다 나와 함께였다면 더 행복했을 거야! 오, 그 사람은 이 마음의 소원을 다 채워 줄 사람이 아니야. 어딘가 감수성이 모자라고, 어딘가 모자라…… 네 좋을 대로 받아들여. 정다운 책의 어느 대목에서 내 마음과 로테의 마음이 하나로 만날 때, 오! 그런 대목에서 그 사람의 마음은 함께 뛰지 않아. 우리가 제삼자의 어떤 행동을 두고 느낌을 털어놓게 되는 수많은

다른 경우에도 그래. 빌헬름, 친구야! 물론 그 사람은 온 영혼으로 로테를 사랑하고, 그런 사랑이라면 무엇인들 받을 자격이 없겠어!

견딜 수 없는 사람 하나가 찾아와 편지를 끊어 놓았어. 눈물은 말라 버렸어. 정신이 흩어졌어. 잘 있어, 친구야!

8월 4일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희망에 속고 기대에 배신당해. 보리수 아래 그 착한 아주머니를 찾아갔더니, 맏아들이 나를 보고 뛰어왔고, 그 아이가 기뻐 외치는 소리에 어머니가 나왔는데 몹시 풀이 죽어 보였어. 아주머니의 첫마디는 이랬어. "나리, 아이고, 우리 한스가 죽었어요!" 아주머니의 막내아들이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남편은 스위스에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했어요." 아주머니가 말했어. "좋은 분들이 아니었으면 빌어먹으며 돌아와야 했을 거예요. 오는 길에 열병에 걸렸거든요." 나는 아무 말도 해 줄 수 없어서 어린것에게 뭘 좀 쥐여 주었고, 아주머니가 사과 몇 알을 받아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 들고 그 슬픈 추억이 깃든 곳을 떠났어.

8월 21일

손바닥 뒤집듯 내 마음이 바뀌어. 이따금 삶의 기쁜 눈빛이 다시 어렴풋이 밝아 오려 해. 아, 한순간뿐이지! 그렇게 꿈속에 빠져 있으면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 만약 알베르트가 죽는다면? 그러면 너는……! 그래, 로테는…… 그리고 나는 그 헛된 생각을 쫓아가다가, 마침내 그것이 나를 낭떠러지 앞으로 데려가면 몸서리치며 물러서.

성문을 나서서, 로테를 무도회에 데리러 처음 마차를 타고 가던 그 길을 걸을 때면, 그때와는 얼마나 딴판인지!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지나가 버렸어! 옛 세상의 눈짓 하나 없고, 그때 내 감정의 맥박 하나 남아 있지 않아. 내 기분은 꼭 이런 유령의 기분일 거야. 한때 꽃다운 제후로서 성을 짓고 온갖 영광의 선물로 꾸민 다음, 죽으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희망을 품고 물려준 그 성에, 이제 불타고 무너진 그 성에 돌아온 유령 말이야.

9월 3일

나는 이따금 이해가 안 돼. 나는 로테를 이토록 오롯이, 이토록 절절하게, 이토록 가득히 사랑하고, 로테 말고는 아무것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로테를 사랑할 수 있는지, 사랑해도 되는지!

9월 4일

그래, 그런 거야. 자연이 가을로 기울듯 내 안에도 내 둘레에도 가을이 와. 내 잎은 누렇게 물들고, 이웃 나무들의 잎은 벌써 떨어졌어. 내가 이리 오자마자 어떤 농군 머슴 이야기를 써 보낸 적이 있지 않아? 이번에 발하임에서 다시 그 사람 소식을 물었더니, 일하던 집에서 쫓겨났다고들 하고, 그 뒤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어제 다른 마을로 가는 길에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어. 말을 걸었더니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면 너도 쉽게 알겠지만, 나는 그 이야기에 두 배 세 배로 마음이 흔들렸어. 그런데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를 불안하게 하고 괴롭히는 걸 왜 혼자 간직하지 않지? 왜 너까지 슬프게 하지? 왜 너한테 늘 나를 딱하게 여기고 나무랄 거리를 주는 거지? 그래도 좋아, 이것도 내 운명에 속하는 일인지 모르니!

그 사람은 처음에는 조용한 슬픔에 잠겨, 조금 겁을 먹은 듯한 기색으로 내 물음에 대답만 했어. 그러다 금세, 마치 갑자기 자기 자신과 나를 다시 알아본 것처럼 더 터놓고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자기 불행을 하소연했어. 친구야,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법정에 세우듯 네 앞에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털어놓았어. 아니, 되새기는 일이 즐겁고 행복하기라도 한 듯 이야기했어. 여주인을 향한 정열이 날이 갈수록 커져서 나중에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고, 그 사람

말대로 하자면 머리를 어디 둬야 할지도 몰랐다고 했어.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못하고, 목이 꽉 막혔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시킨 일은 잊어버리고, 마치 못된 귀신에게 쫓기는 것 같았다고 했어. 그러다 어느 날 여주인이 위층 방에 있는 걸 알고 뒤따라 올라갔는데, 아니, 오히려 거기로 끌려갔다고 했어. 여주인이 애원을 들어주지 않자 억지로 차지하려 했다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하느님을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지만 여주인에게 품은 뜻은 언제나 떳떳했고, 여주인이 자기와 결혼해 함께 평생을 보내 주기를 무엇보다 간절히 바랐다고 했어. 그렇게 한동안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은 머뭇거리기 시작했어. 아직 할 말이 있는데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처럼. 마침내 수줍게 털어놓았어. 여주인이 자기에게 자잘한 친밀함을 얼마쯤 허락했는지, 어느 만큼 가까이 다가가게 해 주었는지. 그 사람은 두세 번 말을 끊고는, 여주인을 나쁘게 말하려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 표현대로 하자면 전처럼 여주인을 사랑하고 우러른다고,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으며 자기가 아주 엇나가고 정신 나간 사람은 아니라는 걸 나에게 알려 주려고 말할 뿐이라고 더없이 힘주어 거듭 맹세했어.

그리고 여기서, 내 좋은 친구, 나는 영원히 부를 내 옛 노래를 다시 시작해.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던 모습을, 지금도 내 앞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너한테 그려 보일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의 운명을 얼마나 함께 아파하는지, 아파하지 않을 수 없는지 네가 느낄 수 있게 모든 걸 제대로 말할 수 있다면! 하지만 이만하자. 너는 내 운명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러니 무엇이 나를 모든 불행한 사람에게로, 특히 이 불행한 사람에게로 끌어당기는지 너무나 잘 알 거야.

편지를 다시 읽어 보니 이야기의 끝을 빠뜨렸네.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여주인은 그 사람을 뿌리쳤어. 그때 여주인의 오라비가

들이닥쳤는데, 그는 오래전부터 그 사람을 미워했고 오래전부터 집에서 내보내고 싶어 했어. 누이가 새로 시집을 가면, 지금은 누이에게 아이가 없어서 자기 아이들이 넉넉히 바라볼 수 있는 그 유산을 고스란히 놓치게 될까 봐 겁을 냈거든. 오라비는 그 자리에서 당장 그 사람을 집 밖으로 내쫓고 그 일로 어찌나 소란을 피웠는지, 여주인이 원했더라도 그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대. 이제 여주인은 다른 머슴을 새로 들였는데, 그 머슴 일로도 또 오라비와 사이가 틀어졌다고들 하고, 여주인이 그 머슴과 결혼할 거라고 다들 장담한대. 하지만 그 사람은 그 꼴만은 결코 살아서 보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는 거야.

내가 들려준 이야기는 하나도 부풀리지 않았고 아무것도 곱게 꾸미지 않았으며, 오히려 약하게, 약하게 이야기했고, 우리가 늘 쓰는 점잖은 도덕의 말로 옮기는 바람에 투박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해도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랑, 이 신의, 이 정열은 시인이 지어낸 것이 아니야. 그건 살아 있어. 우리가 교양 없다고, 거칠다고 부르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순수한 모습으로 살아 있어. 우리 배운 사람들은…… 잘못 배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버렸어! 부탁이야, 이 이야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읽어 줘. 나는 오늘 이걸 쓰면서 마음이 고요해. 내 글씨를 보면 알 거야, 여느 때처럼 휘갈기고 끄적거리지 않잖아. 읽어 줘, 사랑하는 친구야. 그리고 이게 네 친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생각해 줘. 그래, 나도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나를 견주는 것조차 감히 하지 못할 만큼, 그 가엾은 불행한 사람에 견주면 반만큼도 용감하지 않고 반만큼도 단호하지 않아.

9월 5일

로테는 일 때문에 시골에 머무르고 있는 남편에게 짧은 쪽지를 썼어. 쪽지는 이렇게 시작했어. "여보, 사랑하는 당신, 되도록 빨리 와 줘.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기다릴게." 그때 들어온 친구 하나가,

알베르트가 어떤 사정으로 그렇게 빨리 돌아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가져왔고, 쪽지는 그대로 놓여 있다가 저녁에 내 손에 들어왔어. 나는 그걸 읽고 미소를 지었고, 로테가 왜 웃느냐고 물었어. "상상력이란 얼마나 신이 내린 선물인지요." 내가 외쳤어. "한순간 이게 나한테 쓴 쪽지인 것처럼 꿈꿀 수 있었어요." 로테는 말을 끊었어.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고, 나는 입을 다물었어.

9월 6일

로테와 처음 춤을 추던 날 입은 그 수수한 파란 연미복을 벗기로 마음먹기까지 무척 힘들었어. 하지만 나중에는 아주 볼품없어졌거든. 그래서 앞의 것과 똑같이, 옷깃과 소맷부리까지 그대로 한 벌 새로 지었고, 또 그때처럼 노란 조끼와 바지도 맞췄어. 그래도 아주 똑같은 느낌은 들지 않아. 모르겠어……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더 정이 들겠지.

9월 12일

로테는 알베르트를 데리러 며칠 집을 비웠어. 오늘 로테의 방에 들어서자 로테가 나를 맞으러 다가왔고, 나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그 손에 입을 맞추었어.

카나리아 한 마리가 거울에서 날아와 로테의 어깨에 앉았어. "새 친구예요." 로테가 새를 손 위로 꾀어 올리며 말했어. "꼬마들한테 주려고요. 정말 귀엽지 뭐예요! 보세요! 빵을 주면 날개를 파닥이면서 얼마나 얌전하게 쪼아 먹는지. 저한테 입도 맞춰요, 보세요!"

로테가 그 작은 새에게 입을 내밀자, 새는 마치 자기가 누리는 더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기라도 한 듯 그 달콤한 입술에 그토록 사랑스럽게 몸을 비볐어.

"베르테르 씨한테도 입을 맞추라고 할게요." 로테가 새를 건네며 말했어. 작은 부리가 로테의 입에서 내 입으로 길을 옮겨 왔고, 그 콕콕

쪼는 감촉은 한 줄기 숨결 같았고, 사랑에 가득 찬 기쁨의 아련한 예감 같았어.

"이 새의 입맞춤에는 욕심이 아주 없지는 않네요." 내가 말했어. "먹이를 찾다가, 텅 빈 애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돌아가요."

"제 입에서 받아먹기도 해요." 로테가 말했어. 로테는 자기 입술로 빵 부스러기 몇 개를 새에게 건넸는데, 그 입술에서는 티 없이 함께 나누는 사랑의 기쁨이 온갖 환희 속에 웃고 있었어.

나는 얼굴을 돌렸어. 로테는 그러지 말아야 했어. 하늘처럼 맑은 순진함과 더없는 행복을 담은 이런 모습으로 내 상상력을 부추기지 말아야 했고, 삶의 무심함이 이따금 흔들어 재우는 그 잠에서 내 마음을 깨우지 말아야 했어! 그런데 왜 안 된다는 거지? 로테는 나를 그토록 믿어! 내가 로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9월 15일

미칠 것만 같아, 빌헬름. 이 땅에 아직 값어치 있는 몇 안 되는 것에 아무 생각도 느낌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니. 너도 알지, St 마을의 정직한 목사 댁에서 내가 로테와 함께 그 아래 앉아 있던 호두나무들 말이야. 하느님은 아시겠지만 늘 내 영혼을 더없는 기쁨으로 채워 주던 그 멋진 호두나무들! 그 나무들 덕에 목사관 뜰이 얼마나 아늑했는지, 얼마나 시원했는지! 그리고 가지들은 얼마나 근사했는지! 거기에 여러 해 전 그 나무를 심은 정직한 성직자들에 대한 추억까지. 학교 선생은 자기 할아버지에게서 들었다는 그 가운데 한 분의 이름을 자주 들려주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었다고 하고, 그 나무들 아래에서 그분에 대한 기억은 늘 거룩했어. 정말이야, 어제 그 나무들이 베어졌다는 이야기를 할 때 학교 선생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 베어졌다니! 나는 미칠 것 같아. 첫 도끼질을 한 그 개 같은 놈을 죽여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 내 뜰에 그런 나무가 두어 그루 서 있다가 그 가운데 하나가 늙어서 말라 죽기만 해도

슬픔에 잠겨 지낼 나인데, 이걸 그냥 손 놓고 지켜봐야 하다니. 그래도 친구야, 한 가지는 있어. 사람의 감정이란 게 어떤 건지! 온 마을이 투덜대고 있으니, 목사 부인은 버터와 달걀과 그 밖의 인심으로 자기가 마을에 얼마나 큰 상처를 냈는지 느끼게 되겠지, 나는 그러기를 바라. 바로 그 여자, 새 목사의 아내(우리 늙은 목사님도 돌아가셨어)가 한 짓이거든. 비쩍 마르고 골골하는 여자인데, 세상에 아무 관심도 두지 않을 까닭이 충분해. 아무도 그 여자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니까. 학자인 체하는 바보 같은 여자야. 성경 정경 연구에 끼어들고, 요즘 유행하는 도덕적이고 비판적인 그리스도교 개혁에 열심히 손을 대고, 라바터의 열광에는 어깨를 으쓱하고, 건강은 완전히 망가져서 하느님이 주신 이 땅 위에 아무 기쁨도 없는 여자야. 그런 인간이니까 내 호두나무를 벨 수 있었던 거야. 봐, 나는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 생각해 봐. 떨어지는 잎이 뜰을 더럽히고 눅눅하게 만들고, 나무가 햇빛을 가리고, 호두가 익으면 사내아이들이 돌을 던져 따는데, 그게 그 여자의 신경을 건드리고 케니콧과 제믈러와 미하엘리스를 서로 저울질하는 그 깊은 생각을 방해한다는 거야. 마을 사람들, 특히 노인들이 그토록 못마땅해하는 걸 보고 내가 물었어. "왜 그걸 그냥 두고 보셨어요?" "이 고장에서는 이장이 하자고 하면 무슨 수가 있겠어요?" 사람들이 말했어. 그런데 한 가지는 잘되었어. 이장과 목사가(목사도 어차피 수프에 기름기 하나 보태 주지 않는 아내의 변덕에서 뭐라도 건지고 싶었던 거지) 그 나무를 서로 나눠 가지려고 했는데, 그 소식을 들은 재무청이 "이리 내놓아라!" 했어. 재무청은 나무가 서 있던 목사관 뜰의 그 부분에 예전부터 권리를 주장해 왔거든. 그러고는 나무를 가장 비싸게 부르는 사람에게 팔아 버렸어. 나무는 쓰러져 누워 있어! 오, 내가 제후라면! 그 목사 부인과 이장과 재무청을…… 제후라니! 그래, 내가 제후라면 내 나라의 나무 따위가 무슨 상관이겠어!

10월 10일

로테의 까만 눈을 보기만 해도 나는 벌써 기분이 좋아! 그런데 봐, 속상한 건 알베르트가 그다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야. 그 사람이 바라던 만큼…… 내가 누리리라 믿었던 만큼은…… 만약 내가…… 나는 말을 끊어 가며 쓰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달리 나타낼 길이 없어. 그리고 이만하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겠지.

10월 12일

내 마음속에서 오시안이 호메로스를 밀어냈어. 이 장엄한 시인이 나를 이끌어 가는 세상은 얼마나 놀라운지! 김 서린 안개 속 어스름한 달빛 아래 조상들의 혼령을 몰고 가는 폭풍에 휩싸여 황야를 헤매는 것, 숲속 급류가 울부짖는 가운데 산 쪽에서 들려오는, 동굴에서 새어 나와 반쯤 바람에 흩날린 혼령들의 신음 소리를 듣고, 고귀하게 쓰러진 연인의 이끼 덮이고 풀 자란 돌 네 개 둘레에서 죽도록 슬피 우는 아가씨의 통곡을 듣는 것! 그러다 그를 찾아낼 때면, 넓은 황야에서 조상들의 발자취를 찾다가, 아, 그들의 무덤돌을 찾아내고는 구르는 바다 속으로 숨어 드는 정다운 저녁별을 슬피 바라보는 떠도는 백발의 음유 시인을 찾아낼 때면, 그리고 다정한 별빛이 아직 용사들의 위험을 비추고 달이 화환으로 꾸민 채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들의 배를 비추던 지난날이 그 용사의 영혼 속에 되살아날 때면! 그의 이마에서 깊은 슬픔을 읽고, 버려진 마지막 영웅이 기진맥진하여 무덤으로 비틀비틀 걸어가는 것을 볼 때면, 떠나간 이들의 그림자가 힘없이 곁에 머무는 가운데 그가 언제나 새롭게, 아프게 타오르는 기쁨을 빨아들이고, 차가운 땅과 높이 흔들리는 풀을 내려다보며 이렇게 외칠 때면! "나그네가 오리라, 오리라. 아름답던 날의 나를 알던 그가 와서 물으리라. '그 노래꾼은 어디 있는가, 핑갈의 훌륭한 아들은?' 그의 발걸음이 내 무덤 위를 지나가고, 그는 이 땅 위에서 나를 헛되이 찾으리라." 오, 친구야! 나는 고귀한

방패지기처럼 칼을 뽑아, 서서히 꺼져 가는 삶의 경련하는 고통에서 나의 주군을 단번에 풀어 드리고, 자유로워진 그 반은 신인 영웅의 뒤를 따라 내 영혼을 보내고 싶어.

10월 19일

아, 이 빈자리! 내 가슴속에 느껴지는 이 끔찍한 빈자리! 나는 자주 생각해. 네가 로테를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이 가슴에 꼭 안을 수 있다면 이 빈자리가 다 채워질 텐데.

10월 19일

그래, 친구야, 나는 확신하게 돼. 갈수록 더 확신하게 돼. 한 사람이 있고 없고는 별것 아니라는 걸, 정말 별것 아니라는 걸. 로테에게 친구 한 사람이 찾아와서 나는 옆방으로 들어가 책을 집어 들었지만 읽을 수가 없어서, 펜을 들고 글을 쓰려 했어. 두 사람이 나직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 누구는 시집을 가고, 누구는 앓는데 몹시 앓는다는, 시내 소식 같은 하찮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 "마른기침을 하고, 얼굴에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고, 걸핏하면 정신을 잃는대. 그 사람 목숨에 나는 크로이처 한 닢도 걸지 않겠어." 한 사람이 말했어. "아무개 씨도 형편이 아주 나쁘대." 로테가 말했어. "벌써 몸이 부었다던데." 다른 사람이 말했어. 그러자 내 생생한 상상력이 나를 그 가엾은 사람들의 침대 곁으로 데려갔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지못해 삶에 등을 돌리는지, 그 사람들이…… 빌헬름! 그런데 내 다정한 여인네들은 그 이야기를 그저 남들이 하듯 했어. 낯선 사람 하나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하듯. 그리고 고개를 돌려 이 방을 둘러보고, 내 둘레의 로테의 옷가지와 알베르트의 서류와, 이제는 정이 든 이 가구들과 이 잉크병까지 바라보며 이렇게 생각해. 봐라, 너는 지금 이 집에 무엇이냐! 전부지. 친구들은 너를 소중히 여기고, 너는 자주 그들을 기쁘게 하고, 네 마음에는 그들 없이는 살 수 없을 것만 같지. 그런데…… 지금 네가 떠난다면, 이 울타리에서

떠나간다면? 그들은 느낄까, 얼마나 오래 느낄까, 너를 잃어서 그들의 운명에 찢겨 난 빈자리를? 얼마나 오래? 오, 사람이란 이토록 덧없어서, 자기 존재를 참으로 확신할 수 있는 곳, 자기가 있다는 단 하나의 참된 자국을 남기는 곳, 사랑하는 이들의 기억과 영혼 속에서조차 꺼지고 사라져야 하는구나, 그것도 그토록 빨리!

10월 27일

사람이 서로에게 이토록 아무것도 되어 줄 수 없다니, 나는 자주 가슴을 쥐어뜯고 머리를 들이받고 싶어. 아, 내가 사랑과 기쁨과 따뜻함과 환희를 들고 가지 않으면 남이 그걸 내게 줄 리 없고, 더없는 행복으로 가득 찬 마음을 통째로 들고 가더라도 차갑고 맥없이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나는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할 거야.

나는 가진 게 이토록 많은데, 로테를 향한 감정이 모든 걸 삼켜 버려. 나는 가진 게 이토록 많은데, 로테가 없으면 모든 게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게 돼.

10월 27일 저녁

로테의 목을 끌어안을 뻔한 게 벌써 백 번도 넘어! 그토록 사랑스러운 것이 눈앞에서 이리저리 오가는 걸 보면서도 손을 뻗어서는 안 된다는 게 어떤 심정인지 위대하신 하느님은 아시겠지, 손을 뻗어 붙잡는 건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본능인데. 아이들은 마음에 떠오르는 건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손을 뻗잖아? 그런데 나는?

10월 30일

하느님은 아시겠지! 나는 다시는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아니 이따금은 그러리라 기대하며 잠자리에 드는 일이 잦아. 그런데 아침이면 눈을 뜨고 다시 해를 보고, 비참해져. 오, 내가 변덕스러운 사람이라면, 날씨 탓이나 제삼자 탓이나 어그러진 일 탓으로 돌릴 수 있다면, 이 견딜 수 없는 언짢음의 짐이 반만 내게 얹힐 텐데. 아, 가련한 나! 모든 잘못이

나에게 있다는 걸 나는 너무나 참되게 느껴. 아니, 잘못이 아니야! 그저 모든 비참함의 샘이 내 안에 숨어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예전에 모든 더없는 행복의 샘이 내 안에 있었듯이. 나는 아직 그때의 그 사람 그대로가 아닐까? 예전에 넘치는 감정 속에서 떠다니고, 걸음마다 낙원이 뒤따르고, 온 세상을 사랑으로 끌어안을 마음을 지녔던 그 사람 말이야. 그런데 이 마음은 이제 죽었어. 거기서는 더 이상 황홀함이 흘러나오지 않고, 내 눈은 메말랐고, 내 감각은 이제 상쾌한 눈물로 적셔지지 못해 불안하게 내 이마를 찌푸리게 해. 나는 몹시 괴로워. 내 삶의 유일한 환희를, 내 둘레에 세계를 지어내던 그 거룩하고 생기를 불어넣는 힘을 잃었으니까. 그 힘은 가 버렸어! 창밖으로 먼 언덕을 바라보면, 아침 해가 언덕 위로 안개를 뚫고 고요한 풀밭 골짜기를 비추고, 부드러운 강이 잎 진 버드나무 사이로 구불구불 내게로 흘러오는데, 오! 그럴 때 이 장엄한 자연이 칠을 한 작은 그림처럼 굳은 채 내 앞에 서 있고, 그 모든 환희가 더없는 행복 한 방울도 내 마음에서 머리로 퍼 올리지 못하고, 이 사내 꼴이 통째로 말라 버린 샘처럼, 바닥이 갈라진 물통처럼 하느님 앞에 서 있을 때면! 하늘이 청동처럼 굳게 닫히고 둘레의 땅이 목말라 갈라질 때 농부가 비를 빌듯이, 나는 자주 땅바닥에 몸을 던지고 하느님께 눈물을 달라고 빌었어.

그러나 아, 나는 느껴. 하느님은 우리가 성급하게 조른다고 비와 햇빛을 내려 주시지 않아. 그리고 그 기억이 나를 괴롭히는 그 시절들은 왜 그토록 행복했을까, 내가 참을성 있게 그분의 영을 기다리고 그분이 내게 쏟아부어 주신 환희를 온 마음으로, 깊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면!

11월 8일

로테가 내 지나침을 나무랐어! 아, 그토록 사랑스럽게! 내 지나침이란, 이따금 포도주 한 잔에 이끌려 한 병을 다 마셔 버린다는 거야. "그러지

마세요!" 로테가 말했어. "로테를 생각하세요!" "생각하라니요!" 내가 말했어. "그걸 꼭 말로 시키셔야 해요? 나는 생각해요! 아니, 생각하지 않아요! 로테는 늘 내 영혼 앞에 있으니까요. 오늘은 얼마 전 로테가 마차에서 내린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로테는 내가 그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지 않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 내 좋은 친구, 나는 끝장이야! 로테는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

11월 15일

고마워, 빌헬름, 진심으로 마음 써 주고 좋은 뜻으로 충고해 줘서. 그리고 부탁이니 마음 놓아. 나를 끝까지 견디게 내버려 둬. 이렇게 지쳤어도 아직 끝까지 버틸 힘은 충분해. 너도 알다시피 나는 종교를 존중하고, 종교가 지친 많은 사람에게는 지팡이가 되고 목말라 쓰러져 가는 많은 사람에게는 생기가 된다는 걸 나도 느껴. 다만…… 종교가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을까, 그래야만 할까? 넓은 세상을 둘러보면, 종교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수천이고, 설교를 듣든 안 듣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사람이 수천이야. 그런데 종교가 꼭 나에게 그래야 해? 하느님의 아들도 몸소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들이 자기 곁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그런데 내가 그분께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 마음이 말하듯 아버지께서 나를 당신 곁에 두려 하신다면? 부탁이야, 이걸 잘못 받아들이지 마. 이 순진한 말에서 비웃음을 보지 마. 내가 너에게 내보이는 건 내 온 영혼이야.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입을 다무는 게 나았을 거야, 누구도 나보다 더 알지 못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해서는 원래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제 몫의 고통을 다 견디고 제 잔을 다 마시는 것, 그것 말고 사람의 운명이 무엇이겠어? 하늘에서 오신 하느님께서 사람의 입술로 마시기에도 그 잔이 너무 썼다면, 내가 왜 큰소리를 치며 그 잔이 달콤한 척해야 해? 그리고 내 온 존재가 있음과 없음 사이에서 떨고, 지나간 날이 미래의 캄캄한 심연 위로 번개처럼

번쩍이고, 내 둘레의 모든 것이 가라앉고 나와 함께 세상이 무너지는 그 끔찍한 순간에, 내가 왜 부끄러워해야 해? 오로지 자기 안으로 몰리고 자기 자신을 잃고 걷잡을 수 없이 굴러떨어지는 피조물이, 헛되이 몸부림치는 제 힘의 깊은 밑바닥에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이를 갈며 외치는 것, 그게 바로 그 피조물의 목소리가 아니겠어? 그런데 내가 그 말을 부끄러워해야 해? 하늘을 천처럼 말아 거두시는 그분조차 피하지 못하신 그 순간을 내가 두려워해야 해?

11월 21일

로테는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 자기가 나와 자기를 함께 망칠 독약을 빚고 있다는 걸. 그리고 나는 로테가 나를 망치려고 건네는 잔을 더없는 쾌락에 젖어 들이켜. 로테가 자주…… 자주? 아니,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따금 나를 바라보는 그 다정한 눈길, 내 감정이 저도 모르게 드러날 때 그걸 받아 주는 그 호의, 내가 참고 견디는 걸 안쓰러워하며 이마에 떠오르는 그 연민은 다 무엇이란 말이야?

어제 내가 떠날 때 로테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 "잘 가요, 다정한 베르테르!" 다정한 베르테르! 로테가 나를 '다정한'이라고 부른 건 처음이었고, 그 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어. 나는 그 말을 백 번이나 되뇌었고, 어젯밤 잠자리에 들려다 혼자 이런저런 혼잣말을 하다가 불쑥 "잘 자, 다정한 베르테르!" 하고는 나중에 나 자신을 두고 웃지 않을 수 없었어.

11월 22일

나는 "로테를 제게 남겨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로테는 자주 내 사람처럼 여겨져. "로테를 제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수도 없어. 로테는 다른 사람의 아내니까. 나는 내 고통을 두고 말장난을

해. 내버려 두면 서로 엇갈리는 말들로 엮은 기도문 한 편은 너끈히 나올 거야.

11월 24일

로테는 내가 무엇을 견디는지 느껴. 오늘 로테의 눈길이 내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 로테는 혼자 있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로테는 나를 바라보았어. 그런데 나는 로테에게서 더 이상 그 사랑스러운 아름다움도, 그 빼어난 정신의 빛도 보지 못했어. 그 모든 것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어. 훨씬 더 장엄한 눈길이, 더없이 깊은 연민과 더없이 다정한 동정이 가득 담긴 눈길이 나를 사로잡았어. 나는 왜 로테의 발밑에 몸을 던져서는 안 되었을까? 나는 왜 로테의 목을 끌어안고 천 번의 입맞춤으로 대답해서는 안 되었을까? 로테는 클라비어로 피했고, 연주에 맞춰 달콤하고 나직한 목소리로 고운 가락을 불렀어. 로테의 입술이 그토록 매혹적으로 보인 적은 없었는데, 마치 악기에서 솟아 나오는 그 달콤한 소리를 목마르게 빨아들이려고 입술이 열리고, 그 맑은 입에서는 은밀한 메아리만 되울려 나오는 것 같았어. 아, 이걸 너한테 그대로 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더는 버티지 못하고 몸을 숙여 맹세했어. 하늘의 영들이 깃든 입술이여, 나는 결코 감히 너희에게 입을 맞추지 않으리라. 그런데도…… 나는 하고 싶어…… 하! 봐, 이게 내 영혼 앞에 칸막이벽처럼 서 있어. 이 더없는 행복…… 그러고는 이 죄를 씻으려고 파멸하는 것. 죄라고?

11월 26일

이따금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해. 네 운명은 하나뿐이다. 다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여겨라.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옛 시인의 글을 읽으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것만 같아. 나는 견뎌야 할 게 이토록 많아! 아, 나보다 앞서 이토록 비참했던 사람들이 정말 있었단 말인가?

11월 30일

나는, 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운명인가 봐! 가는 곳마다 나를 온통 흔들어 놓는 일을 만나. 오늘! 오, 운명이여! 오, 인간이여!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점심때 물가를 따라 걸었는데, 모든 게 황량했고, 축축하고 차가운 저녁 바람이 산에서 불어왔고, 잿빛 비구름이 골짜기로 밀려들었어. 멀리서 낡은 초록색 웃옷을 입은 사람 하나가 보였는데, 바위 사이를 기어 다니며 약초를 찾는 것 같았어. 내가 가까이 다가가 그 사람이 내 발소리에 돌아섰을 때, 나는 아주 흥미로운 얼굴을 보았는데, 조용한 슬픔이 주된 표정이었지만 그 밖에는 곧고 착한 마음만 드러나 있었어. 검은 머리는 핀으로 두 갈래 말아 꽂았고, 나머지는 굵게 땋아 등 뒤로 늘어뜨렸어. 옷차림으로 보아 신분이 낮은 사람 같았으므로, 그가 무얼 하는지 관심을 보여도 언짢아하지 않으리라 여기고 그 사람에게 무얼 찾느냐고 물었어. "꽃을 찾아요." 그 사람이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꽃 필 철이 아니잖아요." 내가 웃으며 말했어. "꽃은 아주 많아요." 그 사람이 내게로 내려오며 말했어. "우리 집 뜰에는 장미가 있고, 인동덩굴도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주신 건데, 잡초처럼 잘 자라요. 벌써 이틀째 찾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바깥에도 늘 꽃이 있어요. 노란 꽃, 파란 꽃, 빨간 꽃. 그리고 용담초는 꽃이 참 예뻐요. 그런데 하나도 못 찾겠어요." 어딘가 섬뜩한 느낌이 들어서 나는 에둘러 물었어. "꽃은 가져다 뭘 하시려고요?" 기이하게 경련하는 웃음이 그 사람의 얼굴을 일그러뜨렸어. "일러바치지 않으신다면요." 그 사람이 손가락을 입에 대며 말했어. "제 애인한테 꽃다발을 주기로 약속했어요." "착하네요." 내가 말했어. "오!" 그 사람이 말했어. "그 사람은 다른 게 많아요. 부자예요." "그래도 꽃다발을 받으면 좋아하겠지요." 내가 대꾸했어. "오!" 그 사람이 말을 이었어. "그 사람은 보석도 있고 왕관도 있어요."

"이름이 뭔데요?" "네덜란드 연방 의회가 저한테 돈을 갚아 준다면요." 그 사람이 대꾸했어. "저는 딴사람이 될 텐데! 그래요, 한때는 아주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끝났어요. 저는 이제……" 하늘을 올려다보는 젖은 눈길이 모든 걸 말해 주었어. "그럼 행복했던 적이 있었군요?" 내가 물었어. "아, 다시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말했어.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고 홀가분했어요!" "하인리히!" 길을 따라 오던 할머니 하나가 소리쳤어. "하인리히, 어디 처박혀 있었니? 여기저기 다 찾아다녔잖아. 어서 밥 먹으러 와." "아드님이세요?" 나는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물었어. "그래요, 불쌍한 내 아들이에요!" 할머니가 대답했어. "하느님이 제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우셨어요." "언제부터 이랬어요?" 내가 물었어. "이렇게 얌전해진 건 반년쯤 되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 "이만큼이라도 된 게 하느님 덕이지요. 그 전에는 한 해 내내 미쳐 날뛰어서 미친 사람 가두는 데서 사슬에 묶여 지냈어요. 이제는 누구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아요. 다만 늘 왕이니 황제니 하는 이야기만 해요. 착하고 얌전한 아이라 내 입에 풀칠하는 걸 거들고 글씨도 곱게 썼는데, 갑자기 시름에 잠기더니 지독한 열병에 걸렸고, 그러다 미쳐 날뛰더니 이제 보시는 대로예요. 나리께 다 말씀드리자면……" 나는 쏟아지는 할머니의 말을 끊고 물었어. "아드님이 그토록 행복했다고, 그토록 좋았다고 자랑하는 그때는 대체 언제였어요?" "철없는 녀석!" 할머니가 딱하다는 듯 웃으며 외쳤어. "그건 정신이 나갔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늘 그때를 자랑해요. 미친 사람 가두는 데 있으면서 제정신이 하나도 없던 때 말이에요." 그 말이 벼락처럼 내게 떨어졌어. 나는 할머니 손에 돈 한 닢을 쥐여 주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어. 네가 행복했던 때라니! 나는 시내 쪽으로 빠르게 걸으며 혼잣말로 외쳤어. 물 만난 물고기처럼 좋았던 때라니! 하늘에 계신 하느님! 사람이 분별을 갖추기 전과 분별을 다시 잃은 뒤가

아니면 행복할 수 없게, 그걸 사람의 운명으로 정해 놓으셨습니까! 가련한 사람아! 그런데도 나는 네 우울이, 네가 시들어 가는 그 감각의 혼란이 얼마나 부러운지! 너는 희망에 차서 네 여왕에게 꽃을 꺾어 주려고 나가지. 겨울에. 그리고 꽃을 하나도 찾지 못해 슬퍼하면서도 왜 찾을 수 없는지 알지 못해. 그리고 나는…… 나는 희망도 목적도 없이 나갔다가 나간 그대로 집으로 돌아와. 너는 네덜란드 연방 의회가 돈을 갚아 준다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될지 꿈꾸지. 행복이 모자란 까닭을 이 땅의 걸림돌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복된 사람! 너는 느끼지 못해, 너는 느끼지 못해, 네 비참함이 네 부서진 가슴에, 네 흐트러진 머리에 있다는 걸, 이 땅의 모든 왕이 다 모여도 그건 고쳐 줄 수 없다는 걸. 병든 사람을 비웃는 자는 위로도 받지 못하고 죽어 버리라지! 병을 더하고 남은 삶을 더 고통스럽게 할 뿐인 가장 먼 샘으로 길을 떠나는 그 병자를 비웃는 자는! 양심의 가책을 떨치고 영혼의 고통을 덜려고 거룩한 무덤을 찾아 순례를 떠나는 그 짓눌린 마음을 깔보는 자는! 길도 없는 길을 걸으며 발바닥을 찢는 걸음 하나하나가 괴로운 영혼에는 아픔을 덜어 주는 한 방울이고, 하루 길을 견뎌 낼 때마다 그 마음은 많은 짐을 덜고 한결 가볍게 몸을 누여. 그런데 너희가 이걸 망상이라 부를 수 있단 말인가, 푹신한 방석 위에 눌러앉은 너희 말장수들이? 망상이라니! 오, 하느님! 제 눈물을 보십니다! 사람을 넉넉히 가난하게 지으시고도, 그 얼마 안 되는 가난마저, 사람이 하느님께 품는 그 작은 믿음마저 빼앗아 갈 형제들까지 붙여 주셔야 했습니까,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느님! 낫게 하는 뿌리를, 포도나무의 눈물을 믿는 마음이, 우리 둘레의 모든 것에 우리가 시시각각 아쉬워하는 낫게 하고 달래는 힘을 하느님께서 넣어 두셨다고 믿는 마음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알지 못하는 아버지! 예전에는 제 온 영혼을 채우셨건만 이제는 얼굴을 돌리신 아버지, 저를 아버지께로 불러 주십시오! 더는 침묵하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침묵으로는 이 목마른 영혼을 붙잡아 두지 못할 겁니다. 뜻밖에 돌아온 아들이 목에 매달려 이렇게 외친다면, 한 사람이, 한 아버지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뜻대로라면 더 오래 견뎌야 했을 나그넷길을 그만두고 돌아왔다고 화내지 마세요. 세상은 어디나 똑같아요. 수고하고 일하면 보수와 기쁨이 있지요. 하지만 그게 저한테 무슨 소용이에요? 저는 아버지가 계신 곳에서만 좋아요. 아버지 얼굴 앞에서 괴로워하고 즐기고 싶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하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을 내치시겠습니까?

12월 1일

빌헬름! 내가 편지에 쓴 그 사람, 그 행복한 불행한 사람은 로테 아버지의 서기였어. 로테를 향한 정열을 키우고, 숨기고, 털어놓았다가 그 때문에 일자리에서 쫓겨났고, 그 정열이 그 사람을 미치게 만든 거야. 이 메마른 말을 읽으면서 느껴 봐. 알베르트가, 네가 지금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럴지도 모르는 만큼이나 담담하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넋을 잃을 만큼 나를 사로잡았는지.

12월 4일

부탁이야…… 봐, 나는 끝장이야, 더는 견딜 수 없어! 오늘 로테 곁에 앉아 있었어. 앉아 있었는데, 로테는 클라비어로 갖가지 가락을 쳤어. 그 표정이란!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어쩌라고? 로테의 어린 여동생은 내 무릎 위에서 인형에 옷을 입히고 있었어. 눈물이 고였어. 내가 몸을 숙였더니 로테의 결혼반지가 눈에 들어왔어. 눈물이 흘렀어. 그러다 갑자기 로테가 그 오래된, 하늘처럼 달콤한 가락을 치기 시작했어. 그렇게 갑자기. 그러자 위안의 느낌이, 그리고 그 노래를 듣던 시절과 그 사이사이의 언짢고 어두운 나날과 어그러진 희망들에 대한 추억이 내 영혼을 꿰뚫고 지나갔어. 그러고는…… 나는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였고, 가슴은 밀려드는 것들에 숨이 막혔어. "제발." 나는 격하게 로테에게 다가서며 말했어. "제발 그만 치세요!" 로테는 손을 멈추고 나를 빤히 바라보았어. "베르테르." 로테가 내 영혼을 꿰뚫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 "베르테르, 많이 아프시군요. 좋아하시던 음식까지 마다하시다니요. 가세요! 부탁이에요,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나는 로테에게서 몸을 떼어 내고…… 하느님! 하느님은 제 비참함을 보시니 끝내 주실 겁니다.

12월 6일

그 모습이 얼마나 나를 따라다니는지! 깨어 있을 때나 꿈속에서나 그 모습이 내 온 영혼을 채워! 여기, 눈을 감으면 여기, 마음의 눈이 모이는 이 이마 안에 로테의 까만 눈이 있어. 여기! 너한테 이걸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모르겠어. 눈을 감으면 그 눈이 거기 있어. 바다처럼, 심연처럼 내 앞에, 내 안에 머물며 내 이마의 감각을 가득 채워.

사람이란 무엇인가, 반은 신이라고 추어올려지는 그 존재가! 가장 절실하게 힘이 필요한 바로 그때 힘이 모자라지 않는가? 기쁨 속에 날아오르거나 고통 속에 가라앉을 때, 무한한 충만 속에 자신을 잃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어느 쪽에서나 멈춰 세워져 무디고 차가운 의식 속으로 다시 끌려 돌아오지 않는가?

엮은이가 독자에게

우리 친구의 마지막 나날, 그 남다른 며칠에 관해 그 자신이 손수 남긴 증언이 넉넉하게 전해져서, 그가 남긴 편지들의 흐름을 내 이야기로 끊지 않아도 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사람들에게서 정확한 소식을 직접 모으려고 애썼다. 이야기는 단순하며, 그 일을 전하는 이야기들은 몇 가지 자잘한 점을 빼면 모두 서로 들어맞지만, 일에 얽힌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판단이 갈린다.

그러니 우리가 거듭 애써 알아낸 것을 성실하게 이야기하고, 떠난 이가 남긴 편지들을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고, 찾아낸 아주 작은 쪽지 한 장도 가벼이 여기지 않는 것 말고 우리에게 달리 무엇이 남아 있겠는가. 더구나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단 하나의 행동이라도 그 밑바닥에 있는 가장 고유하고 참된 동기를 밝혀내기란 그토록 어려운 일이니.

언짢음과 싫증은 베르테르의 영혼 속에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서로 더 단단히 얽히며 차츰 그의 온 존재를 사로잡았으며, 그의 정신의 조화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의 본성의 모든 힘을 뒤죽박죽으로 휘저어 놓는 내면의 열기와 격렬함은 더없이 나쁜 결과를 낳다가 마침내 그에게 탈진만을 남겼는데, 그는 지금까지 온갖 불행과 싸워 온 것보다 더 불안하게 그 탈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다.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이 그의 정신에 남은 힘, 그의 생기와 날카로운 통찰을 갉아먹었고, 그는

침울한 말벗이 되어 점점 더 불행해졌으며, 불행해질수록 점점 더 공정하지 못하게 되었다. 적어도 알베르트의 친구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들의 말로는, 오래 바라던 행복을 이제 막 얻은 순수하고 차분한 사람을, 그리고 그 행복을 앞으로도 지키려는 그 사람의 처신을 베르테르는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고 하는데, 베르테르는 이를테면 날마다 가진 것을 몽땅 다 써 버리고는 저녁이 되면 괴로워하며 굶주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알베르트는 그 짧은 사이에 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베르테르가 처음부터 알았고 그토록 높이 사고 존중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으며, 로테를 무엇보다 사랑했고, 로테를 자랑스러워했으며, 누구에게나 로테가 더없이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랐다. 그러니 그가 의심의 그림자마저 피하고 싶어 했다고 해서, 그 무렵 이 귀한 보물을 아무리 순진한 뜻에서라도 누구와도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탓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베르테르가 로테 곁에 있을 때 알베르트가 자주 아내의 방을 나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친구를 미워하거나 꺼려서가 아니라, 자기가 있으면 베르테르가 짓눌린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한다.

로테의 아버지가 병이 나서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자 로테에게 마차를 보냈고, 로테는 그 마차를 타고 사냥 별장으로 갔는데, 맑은 겨울날이었고, 첫눈이 많이 내려 온 고장을 덮고 있었다.

베르테르는 이튿날 아침 로테를 뒤따라 나섰다. 알베르트가 로테를 데리러 오지 않으면 자기가 시내로 데려올 생각이었다.

맑은 날씨도 그의 침울한 마음에는 별 힘을 미치지 못했고, 그의 영혼은 무겁게 짓눌려 있었고, 슬픈 그림들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떠나지 않았으며, 그의 마음은 한 괴로운 생각에서 다른 괴로운 생각으로 옮겨 가는 것 말고는 아무 움직임도 알지 못했다.

자기 자신과 끝없이 불화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처지도 더 위태롭고 어지러워 보이기만 했고, 그는 알베르트와 그 아내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를 자기가 어지럽혔다고 믿고 그 일로 자신을 나무랐는데, 그 자책에는 남편을 향한 은밀한 불만이 섞여 들었다.

가는 길에도 그의 생각은 이 일로 흘렀다. "그래, 그래." 그는 남몰래 이를 갈며 혼잣말을 했다. "이게 바로 그 허물없고 다정하고 살뜰하고 무엇이든 함께 나누는 사이, 고요하고 변함없는 신의라는 거군! 물리고 무심해진 거지! 하찮은 일거리 하나하나가 그 귀하고 소중한 아내보다 더 그 사람을 끌어당기잖아? 그 사람이 자기 행복을 소중히 여길 줄 알까? 로테를 그만한 값어치대로 존중할 줄 알까? 그 사람은 로테를 가졌어. 좋아, 그 사람은 로테를 가졌어. 나도 알아, 다른 것을 알듯이 그것도 알아. 그 생각에는 익숙해졌다고 믿지만, 그 생각이 나를 미치게 하고 말 거야, 나를 죽이고 말 거야. 그런데 그 사람은 나와의 우정을 끝까지 지켰나? 로테를 향한 내 애착을 벌써 자기 권리에 대한 침범으로 보고, 로테에게 쏟는 내 마음 씀을 말 없는 비난으로 여기고 있지 않나? 나는 잘 알아, 느껴. 그 사람은 나를 보기 싫어하고, 내가 떠나기를 바라고, 내가 곁에 있는 걸 거북해해."

그는 빠른 걸음을 자주 멈추었고, 자주 가만히 서서 돌아서려는 듯했지만, 번번이 다시 앞으로 걸음을 옮겼고, 이런 생각과 혼잣말에 잠긴 채 마침내 마치 자기 뜻과는 달리 끌려가듯 사냥 별장에 이르렀다.

문을 들어서며 노인과 로테를 찾았는데, 집 안이 조금 술렁이고 있었고, 큰아들이 그에게 저 건너 발하임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농군 하나가 맞아 죽었다고 말했다. 그 말은 그에게 그다지 와닿지 않았다. 방에 들어가 보니, 로테는 몸이 아픈데도 그리로 건너가 현장에서 사건을 조사하겠다는 노인을 말리느라 애쓰고 있었다.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침에 집 문 앞에서 맞아 죽은 사람이

발견되었고 짐작 가는 데가 있었으니, 죽은 사람은 어느 과부의 머슴이었고, 그 과부는 전에 다른 머슴을 두었다가 그 머슴이 사이가 틀어져 집을 나간 일이 있었다.

그 말을 듣자 베르테르는 벌떡 일어섰다. "그럴 수가!" 그가 외쳤다. "가 봐야겠어요.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는 발하임으로 서둘러 갔다.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고, 그가 그토록 자주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토록 아끼게 된 그 사람이 범인이라는 것을 그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다.

시신을 옮겨 놓은 술집으로 가려면 보리수 사이로 지나가야 했는데, 그는 늘 그토록 사랑하던 그 자리 앞에서 몸서리를 쳤다. 이웃 아이들이 그토록 자주 놀던 그 문턱은 피로 더럽혀져 있었다. 사랑과 신의,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폭력과 살인으로 바뀌어 버렸다. 억센 나무들은 잎이 진 채 서리를 뒤집어쓰고 서 있었고, 낮은 교회 묘지 담장 위로 둥글게 드리워졌던 아름다운 산울타리는 잎이 다 떨어졌으며, 그 틈새로 눈 덮인 묘석들이 내다보고 있었다.

온 마을 사람이 모여 있는 술집에 다가가자 갑자기 고함이 일었고, 멀리 무장한 사내들 한 무리가 보였고, 다들 범인을 끌고 온다고 외쳤다. 베르테르는 그쪽을 바라보았고, 오래 망설일 것도 없었다. 그랬다, 그 사람은 그 과부를 그토록 사랑하던 그 머슴, 얼마 전 조용한 분노와 남모를 절망을 품고 서성이던 모습으로 그가 마주쳤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불행한 사람아!" 베르테르가 붙잡힌 사람에게 다가가며 외쳤다. 그 사람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며 입을 다물고 있다가, 마침내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무도 그 여자를 갖지 못할 거예요. 그 여자도 아무도 갖지 못할 거고요." 사람들이 붙잡힌 사람을 술집 안으로 데려갔고, 베르테르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그 끔찍하고 거센 충격에 그의 존재 안에 있던 모든 것이 뒤흔들렸다. 그는 슬픔과 언짢음과 무심하게 체념한 상태에서 한순간 빠져나왔고, 걷잡을 수 없는 연민이 그를 사로잡았으며, 그 사람을 구하고 싶다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열망이 그를 휘어잡았다. 그는 그 사람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꼈고, 범죄자가 된 지금도 너무나 죄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으며, 그 처지에 너무나 깊이 자신을 넣어 보았기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설득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벌써 그 사람을 변호하고 싶었고, 더없이 생생한 변론이 벌써 입술 끝으로 몰려들어서, 그는 사냥 별장으로 서둘러 가면서, 법무관에게 아뢰려던 말을 길에서부터 참지 못하고 반쯤 소리 내어 중얼거렸다.

방에 들어가 보니 알베르트가 와 있었는데, 그것이 한순간 그의 기분을 상하게 했지만 그는 곧 마음을 가다듬고 법무관에게 자기 생각을 뜨겁게 털어놓았다. 법무관은 몇 번 고개를 저었고, 베르테르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변호하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더없이 생생하게, 정열과 진실을 다해 늘어놓았지만,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법무관은 그 말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법무관은 우리 친구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열을 올려 반박하며, 흉악한 살인자를 감싼다고 나무랐으며, 그렇게 하면 모든 법이 무너지고 나라의 안녕이 송두리째 망가진다는 것을 일깨웠고, 이런 일에서는 자기가 더없이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질서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베르테르는 아직 물러서지 않고, 누가 그 사람이 달아나도록 돕는다면 법무관이 눈감아 주기만이라도 해 달라고 빌었다! 법무관은 그것마저 물리쳤고, 마침내 대화에 끼어든 알베르트도 노인 편을 들었다. 베르테르는 두 사람에게 밀렸고, 법무관이 몇 번이나 "안 되오, 그 사람은 구할 길이 없소!" 하고 말한 뒤 끔찍한 고통을 안고 길을 나섰다.

그 말이 얼마나 그의 가슴에 박혔을지는, 그의 서류 가운데서 나온, 틀림없이 바로 그날 쓴 쪽지 한 장이 보여 준다.

"너는 구할 길이 없구나, 이 불행한 사람아! 우리는 구할 길이 없다는 걸 나는 똑똑히 알겠어."

알베르트가 마지막에 법무관 앞에서 그 붙잡힌 사람의 일을 두고 한 말은 베르테르에게 몹시 거슬렸는데, 그는 그 말에 자기를 향한 어떤 날카로움이 담겨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두 사람이 옳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의 예리한 머리가 놓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것을 털어놓고 받아들인다면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버려야 할 것만 같았다.

그 일과 관련된 쪽지, 어쩌면 알베르트와 그의 관계 전체를 드러내는 쪽지 한 장을 우리는 그의 서류 가운데서 찾아냈다. "그 사람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나 자신에게 아무리 되뇌어 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그게 내 속을 갈가리 찢어. 나는 공정할 수가 없어."

포근한 저녁이었고 날씨가 풀려 눈이 녹기 시작했기 때문에, 로테는 알베르트와 함께 걸어서 돌아갔는데, 가는 길에 로테는 마치 베르테르가 곁에 없는 것을 아쉬워하듯 이따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알베르트가 베르테르 이야기를 꺼내더니, 그를 공정하게 평가하면서도 나무랐고, 그의 불행한 정열을 건드리며 그를 멀리 떠나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러기를 바라." 알베르트가 말했다. "그리고 부탁이야, 그 사람이 당신을 대하는 태도를 좀 바꿔 줘. 그렇게 자주 찾아오지 않게 해 줘. 사람들이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도 알아." 로테는 말이 없었고, 알베르트는 그 침묵을 느낀 듯했다. 적어도 그때부터 그는 로테 앞에서 다시는 베르테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로테가 그 이야기를 꺼내면 말을 흐리거나 다른 데로 돌렸다.

그 불행한 사람을 구하려던 베르테르의 헛된 시도는 꺼져 가는 등불이 마지막으로 확 타오른 불꽃이었고, 그 뒤로 그는 그만큼 더 깊이 고통과 무기력 속으로 가라앉았다. 특히 이제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한 그 사람에게 불리한 증인으로 자기가 불려 나갈지도 모른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활동하던 시절에 이따금 겪었던 불쾌한 일들, 공사관에서 겪은 언짢은 일, 그 밖에 뜻대로 되지 않았던 모든 일, 언젠가 그를 상하게 했던 모든 일이 그의 영혼 속에서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했다. 그는 이 모든 일 때문에 무기력하게 지내도 될 권리라도 얻은 듯 여겼고, 모든 앞날에서 끊겨 나간 사람, 사람들이 일상의 일을 붙잡을 때 쓰는 손잡이 하나도 잡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여겼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기이한 감정과 생각과 끝없는 정열에 온통 내맡긴 채, 자기가 그 평온을 어지럽히는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사람과 슬프게 어울리는 끝없는 되풀이 속에서, 목적도 전망도 없이 자기 힘을 거칠게 몰아붙여 소진하면서 슬픈 종말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혼란과 정열, 쉴 새 없는 몸부림과 애씀, 삶에 지친 마음을 가장 뚜렷이 증언하는 것은 그가 남긴 편지 몇 통이니, 그 편지들을 여기 싣는다.

12월 12일

빌헬름, 친구야, 나는 지금 못된 귀신에게 쫓겨 떠돈다고들 믿었던 그 불행한 사람들이 틀림없이 겪었을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따금 무언가가 나를 덮쳐. 두려움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야. 내 가슴을 찢어 놓을 듯하고 내 목을 조르는, 알 수 없는 속의 몸부림이야! 괴로워! 괴로워! 그러면 나는 사람을 싫어하는 이 계절의 무시무시한 밤 풍경 속을 헤매고 다녀.

어젯밤에는 밖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어. 갑자기 날이 풀려 눈이 녹기 시작했는데, 강물이 넘치고 시냇물이란 시냇물이 다 불어나

발하임에서부터 아래로 내 정다운 골짜기가 물에 잠겼다는 말을 들었거든! 밤 열한 시가 지나 나는 밖으로 달려 나갔어. 달빛 속에 들끓는 물살이 밭과 풀밭과 산울타리와 모든 것을 넘어 소용돌이치고, 넓은 골짜기 위아래로 바람 소리 속에 사나운 바다가 펼쳐진 것을 바위 위에서 내려다보는 건 무시무시한 광경이었어! 그러다 달이 다시 나와 검은 구름 위에 머물고, 내 앞으로 물살이 무시무시하게 장엄한 빛을 되비치며 굽이치고 울릴 때, 그때 소름이 나를 덮쳤고, 다시 그리움이 밀려왔어! 아,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심연을 마주하고 서서 저 아래로 숨을 내쉬었어! 저 아래로! 그리고 내 고통과 괴로움을 저 아래로 휘몰아 떨어뜨리는 환희 속에 나를 잃었어! 저 물결처럼 쏴아 휩쓸려 가는 환희 속에! 오! 그런데 너는 땅에서 발을 떼지 못했지,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었는데! 내 시계는 아직 다 풀리지 않았어. 나는 느껴! 오, 빌헬름! 저 폭풍과 함께 구름을 찢고 물살을 움켜쥘 수 있었다면 나는 기꺼이 내 사람됨을 내주었을 거야! 하!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도 언젠가 이 환희가 주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언젠가 더운 날 산책하다가 로테와 함께 버드나무 아래서 쉬었던 작은 자리를 서글프게 내려다보았더니, 거기도 물에 잠겨서 버드나무를 겨우 알아볼 정도였어! 빌헬름! 그리고 로테네 풀밭은, 하고 나는 생각했어, 사냥 별장 둘레는! 우리 덩굴 정자는 지금 거센 물살에 얼마나 망가졌을까! 하고 생각했어. 그러자 지난날의 햇살이 비쳐 들었어. 갇힌 사람에게 가축 떼와 풀밭과 명예로운 벼슬이 꿈에 비치듯. 나는 서 있었어! 나는 나를 꾸짖지 않아. 나에게는 죽을 용기가 있으니까. 나는 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나는 여기 앉아 있어, 울타리에서 땔나무를 줍고 남의 문간에서 빵을 빌어, 꺼져 가는 기쁨 없는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늘리고 덜어 보려는 늙은 여자처럼.

12월 14일

이게 뭘까, 친구야? 나는 나 자신이 무서워! 로테를 향한 내 사랑은 더없이 거룩하고 순수하고 형제다운 사랑이 아니야? 내가 언제 영혼 속에 벌받을 만한 소망을 한 번이라도 품은 적이 있었어? 맹세는 하지 않겠어. 그런데 이제, 꿈이라니! 오, 서로 어긋나는 결과를 낳선 힘의 탓으로 돌리던 사람들은 얼마나 참되게 느꼈던 걸까! 오늘 밤! 말하기도 떨리지만, 나는 로테를 내 품에 안고 가슴에 꼭 끌어당겨, 사랑을 속삭이는 그 입을 끝없는 입맞춤으로 덮었고, 내 눈은 로테의 눈에 어린 취기 속에 헤엄쳤어! 하느님! 지금도 그 타오르는 기쁨을 온 마음으로 다시 불러내며 더없는 행복을 느끼는 게 벌받을 일입니까? 로테! 로테! 이제 나는 끝장이야! 정신이 어지러워. 벌써 여드레째 아무 생각도 할 수 없고, 눈에는 눈물이 가득해. 어디에 있어도 편치 않고, 어디에 있어도 편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내가 떠나는 게 나을 거야.

세상을 떠나려는 결심은 이 무렵, 이런 형편 속에서 베르테르의 영혼 속에 점점 더 힘을 얻어 갔는데, 로테에게 돌아온 뒤로 그것은 늘 그의 마지막 전망이자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는 서두르거나 성급한 짓이 되어서는 안 되며, 더없이 굳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가장 차분한 결단으로 이 걸음을 내디디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그의 의심과 자기 자신과의 다툼은 쪽지 한 장에서 엿보이는데, 아마 빌헬름에게 쓰기 시작한 편지인 듯한 이 쪽지는 날짜 없이 그의 서류 가운데서 발견되었다.

그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 사람의 운명, 내 운명을 아파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바싹 타 버린 내 머리에서 마지막 눈물을 짜낸다. 장막을 들어 올리고 그 뒤로 걸어 들어가는 것! 그게 다야! 그런데 왜 이렇게 망설이고 머뭇거리지? 저 뒤가 어떤지 모르니까?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혼란과 어둠을 예감하는 것, 그게 우리 정신의 성질이니까.

마침내 그는 그 슬픈 생각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친해졌으며, 그의 결심은 굳어져 돌이킬 수 없게 되었으니, 그가 친구에게 쓴 다음의 모호한 편지가 그것을 증언한다.

12월 20일

빌헬름, 그 말을 그렇게 받아 준 네 사랑에 고마워.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떠나는 게 나을 거야. 너희에게 돌아오라는 네 제안은 썩 마음에 들지는 않고, 적어도 한 번쯤은 에둘러 가고 싶어, 특히 줄곧 얼어붙은 날씨와 좋은 길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네가 나를 데리러 오겠다니 무척 기뻐. 다만 두 주만 더 미뤄 주고, 자세한 걸 적은 내 편지를 한 통 더 기다려 줘. 무엇이든 익기 전에 따서는 안 되거든. 그리고 두 주쯤 이르고 늦음이 큰 차이를 만들어. 어머니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끼쳐 드린 모든 언짢은 일을 용서해 달라고 빈다고 전해 줘. 기쁨을 드려야 할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것, 그게 내 운명이었어. 잘 있어, 내 가장 소중한 친구! 하늘의 모든 축복이 너에게 내리기를! 잘 있어!

이 무렵 로테의 영혼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남편과 불행한 친구를 향한 로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로테의 성품을 아는 만큼 조용히 짐작할 수는 있고 아름다운 여인의 영혼이라면 로테의 영혼 속으로 들어가 함께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말로 나타낼 엄두는 거의 나지 않는다.

이것만은 확실하다. 로테는 베르테르를 멀리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고, 망설였다면 그것은 그 일이 그에게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지, 아니 거의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차마 그러지 못한 따뜻한 우정의 배려였다. 그러나 이 무렵 로테는 더욱

마음을 다잡도록 내몰렸다. 남편은 이 관계에 대해 전혀 입을 열지 않았고, 로테도 그 일에 대해 늘 입을 다물어 왔기에, 로테는 자기 마음이 남편의 마음에 걸맞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그만큼 더 간절했다.

베르테르가 친구에게 쓴, 바로 앞에 실은 그 편지를 쓴 날, 크리스마스 앞 일요일 저녁에 그는 로테를 찾아갔다가 로테가 혼자 있는 것을 보았는데, 로테는 어린 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마련해 둔 장난감 몇 가지를 손보고 있었다. 그는 꼬마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이야기하고, 뜻밖에 문이 열리며 밀초와 사탕과 사과로 꾸민 나무가 나타나면 낙원에 온 듯 황홀해지던 그 시절 이야기를 했다. "베르테르 씨도요." 로테가 당황한 마음을 사랑스러운 미소 뒤에 감추며 말했다. "베르테르 씨도 얌전하게 굴면 선물을 받을 거예요. 작은 밀초 하나하고 또 뭔가를요." "얌전하게 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외쳤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소중한 로테!" "목요일 저녁이 크리스마스이브예요." 로테가 말했다. "그때 아이들이 오고 아버지도 오셔요. 다들 제 몫을 받아요. 그때 베르테르 씨도 오세요. 하지만 그 전에는 안 돼요." 베르테르는 멈칫했다. "부탁이에요." 로테가 말을 이었다.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제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부탁드려요. 이대로는 안 돼요,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어요." 그는 로테에게서 눈길을 돌리고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이며 "이대로 계속될 수는 없어요!" 하는 말을 이 사이로 중얼거렸다. 그 말이 그를 얼마나 끔찍한 상태로 몰아넣었는지 느낀 로테는 이것저것 물어 그의 생각을 딴 데로 돌리려 했지만 헛일이었다. "아니에요, 로테." 그가 외쳤다. "나는 다시는 로테를 보지 않을 거예요!" "왜요?" 로테가 대꾸했다. "베르테르, 우리를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다시 보셔야 해요. 다만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세요. 아, 왜 하필 그렇게 격하게, 한번 손에 잡은 것이면 무엇에든 떨어질 줄

모르고 달라붙는 그런 정열을 지니고 태어나셨어요! 부탁이에요." 로테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을 이었다. "마음을 누그러뜨리세요! 베르테르 씨의 정신과 학식과 재능이 얼마나 갖가지 즐거움을 안겨 주는데요! 사내답게 구세요. 베르테르 씨를 그저 딱하게 여기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사람에게서 이 슬픈 애착을 거두세요." 그는 이를 갈며 어두운 눈으로 로테를 바라보았고, 로테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잠깐만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혀 봐요, 베르테르!" 로테가 말했다. "베르테르 씨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걸, 일부러 자신을 망치고 있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왜 하필 저예요, 베르테르? 하필 다른 사람의 것인 저를? 하필 그런 사람을? 저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저를 가질 수 없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 소망이 그토록 애타게 느껴지는 건 아닌지." 그는 로테의 손에서 자기 손을 빼며 굳고 언짢은 눈길로 로테를 바라보았다. "현명하군요!" 그가 외쳤다. "아주 현명해요! 혹시 알베르트가 그런 말을 일러 주던가요? 처세에 능하군요! 아주 처세에 능해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로테가 대꾸했다. "그리고 이 넓은 세상에 베르테르 씨 마음의 소원을 채워 줄 아가씨가 하나도 없겠어요? 마음을 다잡고 찾아보세요. 맹세하지만 꼭 찾으실 거예요. 벌써 오래전부터 베르테르 씨가 요즘 스스로 갇혀 지내는 그 좁은 테두리가 베르테르 씨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걱정스러웠어요. 마음을 다잡으세요. 여행을 하면 기분이 풀릴 거예요, 틀림없이 풀릴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세요, 찾아내세요. 그리고 돌아오세요. 그래서 우리 함께 참된 우정의 더없는 행복을 누려요." "그 말은 책으로 찍어서 세상 가정교사들한테 다 권하면 좋겠군요." 그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다정한 로테! 조금만 더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둬요. 다 잘될 거예요!" "다만 이것만은요, 베르테르. 크리스마스이브 전에는 오시지 마세요!" 그가 대답하려는데 알베르트가 방으로

들어왔고, 세 사람은 서로 쌀쌀하게 저녁 인사를 나누고는 어색하게 방안을 나란히 오락가락했다. 베르테르가 하찮은 이야기를 꺼냈지만 곧 끊겼고, 알베르트도 마찬가지였다. 알베르트는 아내에게 맡겨 둔 몇 가지 일을 물었고, 아직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몇 마디 했는데, 베르테르에게는 그 말이 차갑게, 아니 매몰차게까지 들렸다. 그는 가려 했지만 가지 못하고 여덟 시까지 머뭇거렸고, 그러는 동안 언짢음과 불쾌함은 점점 커졌고, 마침내 식탁이 차려지자 그는 모자와 지팡이를 집었다. 알베르트가 더 있다 가라고 권했지만, 그는 그저 의례적인 인사치레로만 들려서 차갑게 고맙다고 하고는 떠났다.

집에 돌아온 그는 불을 밝혀 주려는 하인 아이의 손에서 등불을 받아 들고 혼자 방으로 들어가, 소리 내어 울고, 흥분해서 혼잣말을 하고, 방안을 거칠게 서성이다가, 마침내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몸을 던졌다. 열한 시 무렵 하인이 용기를 내어 들어가 장화를 벗겨 드릴까 물었을 때 그는 그렇게 누워 있었고, 장화를 벗기게 한 다음 이튿날 아침 자기가 부를 때까지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일렀다.

12월 21일 월요일 아침 그는 로테에게 다음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그가 죽은 뒤 봉인된 채 그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어 로테에게 전해졌다. 여러 정황으로 보아 그가 이 편지를 띄엄띄엄 썼음이 분명하므로, 나도 그 대목대로 나누어 여기 싣겠다.

"결심했어, 로테. 나는 죽겠어. 소설에나 나올 법한 들뜬 과장 없이, 차분하게, 당신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날 아침에 이 글을 써. 이걸 읽을 때면, 소중한 사람, 서늘한 무덤이 벌써 그 불안하고 불행했던 사람의 굳어 버린 주검을 덮고 있을 거야, 삶의 마지막 순간에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 더 달콤한 일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의 주검을. 나는 끔찍한 밤을 보냈어. 그리고 아, 고마운 밤이었어. 그 밤이 내 결심을 굳히고 정해 주었어. 나는 죽겠어! 어제 무시무시하게 들끓는 감각

속에서 당신에게서 나를 떼어 냈을 때, 그 모든 것이 가슴으로 밀려들고, 당신 곁에서 희망도 기쁨도 없는 내 삶이 소름 끼치는 냉기로 나를 움켜쥐었을 때…… 나는 겨우 방에 이르러 넋을 잃고 무릎을 꿇었어. 그리고 오, 하느님! 하느님은 가장 쓰라린 눈물이라는 마지막 위안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천 가지 계획, 천 가지 앞날이 내 영혼 속에서 날뛰었고, 마침내 그 생각이 굳건하게, 온전하게 서 있었어. 마지막이자 단 하나인 생각, 나는 죽겠다! 나는 자리에 누웠고, 아침에 고요히 깨어난 지금도 그 생각은 여전히 굳건하게, 여전히 아주 힘차게 내 가슴속에 서 있어. 나는 죽겠어! 이건 절망이 아니야. 내가 다 견뎌 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을 위해 나를 바친다는 확신이야. 그래, 로테! 왜 숨겨야 해? 우리 셋 가운데 하나는 떠나야 하고, 그게 나이고 싶어! 오, 소중한 사람! 이 찢긴 가슴속에서 미친 듯이 숨어 기어 다니던 생각이 자주 있었어…… 당신 남편을 죽이자! 당신을! 나를! 그래, 그렇게 되라지! 아름다운 여름 저녁 당신이 산에 오르거든, 내가 그토록 자주 골짜기를 올라오던 모습을 떠올리며 나를 생각해 줘, 그리고 교회 묘지 쪽으로 내 무덤을 건너다봐 줘, 지는 햇빛 속에 바람이 높이 자란 풀을 이리저리 흔드는 모습을. 처음 쓸 때는 차분했는데, 이제, 이제 나는 아이처럼 울어. 이 모든 것이 내 둘레에서 이토록 생생해지니까."

열 시쯤 베르테르는 하인을 불렀고, 옷을 입으면서 며칠 뒤 여행을 떠날 테니 옷을 털어 두고 짐 꾸릴 준비를 다 해 두라고 이르고, 또 여기저기서 계산서를 받아 오고, 빌려준 책 몇 권을 찾아오고, 그가 주마다 얼마씩 주던 가난한 사람 몇에게 두 달 치 몫을 미리 치르라고 명했다.

그는 식사를 방으로 가져오게 했고, 식사가 끝나자 말을 타고 법무관에게 갔지만 법무관은 집에 없었으므로, 그는 생각에 잠겨 정원을

이리저리 거닐었는데, 마지막으로 추억의 온갖 우울을 제 몸에 쌓아 올리려는 듯했다.

꼬마들은 그를 오래 가만두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를 쫓아다니고 그에게 매달려 뛰어오르며 내일, 그리고 또 내일, 그리고 하루만 더 지나면 로테에게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다고 이야기했고, 저희의 어린 상상력이 기대하는 놀라운 것들을 늘어놓았다. "내일!" 그가 외쳤다. "그리고 또 내일! 그리고 하루만 더!" 그는 아이들 모두에게 다정하게 입을 맞추고 떠나려 했는데, 막내가 그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더 속삭이려 했다. 막내는 큰형들이 이만큼 큰 종이에 새해 축하 글을 멋지게 써 두었다고, 아버지께 하나, 알베르트와 로테에게 하나, 그리고 베르테르 아저씨에게도 하나씩이고, 그걸 설날 아침 일찍 드리려 한다고 일러 주었다. 그 말에 그는 그만 북받쳐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무언가를 주고는 말에 올라, 노인에게 안부를 전해 달라 하고 눈물을 머금은 채 말을 달려 떠났다.

다섯 시쯤 집에 돌아온 그는 하녀에게 불을 살펴 밤늦게까지 꺼뜨리지 말라고 일렀고, 하인에게는 책과 속옷을 트렁크 아래쪽에 넣고 옷은 꿰매어 싸 두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아마 로테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의 다음 대목을 쓴 듯하다.

"당신은 나를 기다리지 않겠지! 내가 말을 듣고 크리스마스이브에야 당신을 다시 보러 가리라 믿겠지. 오, 로테! 오늘이 아니면 다시는 없어. 크리스마스이브에 당신은 이 종이를 손에 들고 떨면서 그 사랑스러운 눈물로 적시겠지. 나는 그러고 싶고, 그래야 해! 오, 결심하고 나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로테는 그사이 묘한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베르테르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눈 뒤, 그와 헤어지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힘든 일일지, 그가 자기에게서 멀어져야 한다면 얼마나 괴로워할지 느꼈다.

베르테르가 크리스마스이브 전에는 다시 오지 않으리라는 말은 알베르트가 있는 자리에서 지나가듯 나왔고, 알베르트는 처리할 일이 있어 이웃 고장의 한 관리에게 말을 타고 갔는데, 그곳에서 밤을 묵어야 했다.

로테는 이제 동생들도 아무도 곁에 없이 혼자 앉아, 자기 처지를 조용히 맴도는 생각에 몸을 맡긴 채, 자기가 영원히 그 남자와 맺어졌음을 보았다. 그 사랑과 신의를 알고 진심으로 따르는 사람, 그 차분함과 믿음직스러움이야말로 착실한 아내가 그 위에 평생의 행복을 세우라고 하늘이 정해 준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다. 로테는 그가 자기와 자기 아이들에게 언제까지나 어떤 사람이 되어 줄지 느꼈다. 다른 한편으로 베르테르는 로테에게 그토록 소중해져 있었다. 알게 된 첫 순간부터 두 사람의 마음은 그토록 아름답게 들어맞았고, 그와 오래 어울려 지낸 일, 함께 겪은 숱한 일들이 로테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겼다. 무엇이든 흥미롭게 느끼고 생각한 것은 그와 나누는 것이 로테의 버릇이 되어 있었고, 그가 떠나면 로테의 온 존재에 다시는 메울 수 없는 빈자리가 찢겨 날 것만 같았다. 아, 그 순간 그를 오빠로 바꿀 수 있었다면 로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를 친구들 가운데 하나와 짝지어 줄 수 있었다면, 알베르트와 그의 관계도 다시 온전히 되돌려 놓으리라 바랄 수 있었을 텐데!

로테는 친구들을 차례로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지만, 누구에게나 무언가 흠잡을 데가 있었고, 그를 내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이에 로테는 처음으로 깊이, 그러나 또렷이 깨닫지는 못한 채, 그를 자기 곁에 두고 싶은 것이 자신의 진심 어린 은밀한 바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그러면서도 그를 곁에 둘 수 없다고, 두어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 타일렀다. 순수하고 아름답고, 여느 때는

그토록 가볍고 스스로 쉽게 추스르던 로테의 마음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 닫혀 버린 우울의 무게를 느꼈고, 로테의 가슴은 짓눌렸고, 눈앞에는 흐린 구름이 드리웠다.

그렇게 여섯 시 반이 되었을 때, 로테는 베르테르가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를 들었고, 그 발소리와 자기를 찾는 그 목소리를 곧바로 알아들었다. 그가 왔을 때 로테의 가슴은 얼마나 뛰었던가. 거의 처음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로테는 집에 없다고 둘러대게 하고 싶었다. 그가 들어서자 로테는 일종의 격한 당혹 속에서 그를 맞으며 외쳤다. "약속을 안 지키셨군요."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그가 대답했다. "그럼 적어도 제 부탁은 들어주셨어야죠." 로테가 대꾸했다. "우리 두 사람의 평안을 위해 부탁드린 거였어요."

로테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고, 베르테르와 단둘이 있지 않으려고 친구 몇을 부르러 사람을 보낼 때도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몰랐다. 베르테르는 가져온 책 몇 권을 내려놓고 다른 책들을 물었고, 로테는 친구들이 왔으면 싶다가도 오지 않았으면 싶었다. 하녀가 돌아와 두 사람 다 오지 못한다는 전갈을 가져왔다.

로테는 하녀에게 일감을 들려 옆방에 앉아 있게 하려 했다가 다시 생각을 바꾸었다. 베르테르는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였고, 로테는 클라비어 앞으로 가서 미뉴에트를 치기 시작했지만 가락이 매끄럽게 흘러가지 않아서, 로테는 마음을 가다듬고 늘 앉던 긴 의자 자리에 앉아 있는 베르테르 곁에 차분히 앉았다.

"읽을 거 없으세요?" 로테가 말했다. 그는 아무것도 없었다. "저기 제 서랍 안에요." 로테가 말을 꺼냈다. "베르테르 씨가 옮기신 오시안의 노래 몇 편이 있어요. 아직 읽지 않았어요. 늘 베르테르 씨가 읽어 주시는 걸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좀처럼 그럴 틈도 기회도 나지 않았어요." 그는 미소를 짓고 그 노래들을 가져왔는데, 손에 들자

소름이 그를 덮쳤고, 들여다보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다. 그는 자리에 앉아 읽었다.

"어스름 밤의 별이여, 너는 서쪽에서 아름답게 반짝이는구나. 구름 속에서 빛나는 머리를 들어 올리고, 네 언덕을 따라 의젓하게 걸어간다. 황야 위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몰아치던 바람은 잦아들었고, 멀리서 급류의 웅얼거림이 들려오고, 철썩이는 물결이 먼 바위에서 노닐고, 저녁 날벌레들의 윙윙거림이 들판 위로 떼 지어 퍼진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아름다운 빛이여? 그러나 너는 미소 지으며 가고, 물결이 기쁘게 너를 감싸 네 사랑스러운 머리카락을 씻긴다. 잘 가라, 고요한 빛이여. 나타나라, 오시안의 영혼의 장엄한 빛이여!

그리고 그 빛이 힘차게 나타난다. 떠나간 내 친구들이 보인다. 그들은 지나간 날들에 그랬듯이 로라에 모여든다. 핑갈이 축축한 안개 기둥처럼 다가온다. 그 둘레에는 그의 용사들이 있고, 보라! 노래하는 음유시인들이 있다. 백발의 울린이여! 의젓한 리노여! 알핀, 사랑스러운 노래꾼이여! 그리고 너, 부드럽게 슬퍼하는 미노나여! 내 친구들이여, 봄바람이 언덕을 따라 번갈아 가며 가냘프게 속삭이는 풀을 눕히듯 우리가 노래의 영예를 두고 겨루던 셀마의 잔칫날 이후로 너희는 얼마나 변했는가.

그때 미노나가 눈을 내리깔고 눈물 어린 눈으로, 언덕에서 불어내리는 변덕스러운 바람에 머리카락을 무겁게 흩날리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섰다. 미노나가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높이자 용사들의 영혼이 어두워졌다. 그들은 살가르의 무덤을 자주 보았고, 흰 콜마의 어두운 거처를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고운 목소리의 콜마는 언덕 위에 홀로 버려졌으니, 살가르는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둘레에는 밤이 내려앉았다. 언덕 위에 홀로 앉아 있던 콜마의 목소리를 들어라.

콜마. 밤이다! 나는 혼자다, 폭풍 부는 언덕 위에 버려져. 바람이 산속에서 운다. 급류가 울부짖으며 바위를 타고 떨어진다. 비를 피할 오두막 하나 없다, 폭풍 부는 언덕 위에 버려진 나에게. 오, 달이여, 구름에서 나오너라. 나타나라, 밤의 별들이여! 어느 빛줄기든 나를 이끌어 다오, 사냥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내 사랑이 쉬는 곳으로. 그의 활은 시위를 풀고 곁에 놓였고, 그의 개들은 그 둘레에서 씩씩거린다! 그러나 나는 여기 덤불 우거진 냇가 바위 위에 홀로 앉아 있어야 한다. 냇물과 폭풍이 울부짖어, 내 사랑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내 살가르는 어찌하여 머뭇거리는가? 그는 약속을 잊었는가? 여기 바위가 있고 나무가 있고, 여기 철썩이는 냇물이 있다! 밤이 내리면 여기 오겠다고 너는 약속했지. 아! 내 살가르는 어디서 길을 잃었는가? 너와 함께 달아나려 했다, 오만한 아버지와 오빠를 버리고! 우리 두 집안은 오랫동안 원수였지만, 우리는 원수가 아니다, 오 살가르여!

바람이여, 잠시만 잠잠하라! 냇물이여, 아주 잠시만 고요하라. 내 목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나의 나그네가 나를 듣도록. 살가르여! 부르는 것은 나다! 여기 나무가 있고 바위가 있다! 살가르여! 내 사랑이여! 나는 여기 있다. 너는 어찌하여 오기를 머뭇거리는가?

보라, 달이 떠오른다, 물결이 골짜기에 반짝이고, 바위들이 언덕 위로 잿빛으로 서 있지만, 높은 곳에 그는 보이지 않고, 그의 앞을 달리는 개들도 그가 오는 것을 알리지 않는다. 나는 여기 홀로 앉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저 아래 황야에 누워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내 사랑인가? 내 오빠인가? 말하라, 오 내 친구들이여! 그들은 대답하지 않는다. 내 영혼은 얼마나 두려움에 떠는가! 아, 그들은 죽었다! 그들의 칼은 싸움으로 붉다! 오 내 오빠, 내 오빠여, 너는 어찌하여 내 살가르를 죽였는가? 오 내 살가르여, 너는 어찌하여 내 오빠를 죽였는가? 너희는

둘 다 내게 그토록 소중했는데! 오, 너는 언덕 위 수천 사람 가운데 아름다웠다! 그는 싸움에서 무시무시했다. 대답하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사랑하는 이들이여! 그러나 아, 그들은 말이 없다, 영원히 말이 없다! 그들의 가슴은 흙처럼 차갑다!

오, 언덕의 바위에서, 폭풍 치는 산꼭대기에서 말하라, 죽은 이들의 혼령이여! 말하라! 나는 무서워하지 않으리라! 너희는 어디로 쉬러 갔는가? 산속 어느 무덤에서 너희를 찾아야 하는가? 바람 속에 가냘픈 목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언덕의 폭풍 속에 실려 오는 대답 하나 없다. 나는 슬픔에 잠겨 앉아 있다, 눈물 속에 아침을 기다린다. 무덤을 파라, 죽은 이들의 친구들이여, 그러나 내가 갈 때까지 덮지는 마라. 내 삶은 꿈처럼 사라져 간다. 내가 어찌 뒤에 남으랴! 여기서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쉬리라, 울리는 바위 곁 냇가에서, 그리고 언덕에 밤이 내리고 황야 위로 바람이 불어오면 내 혼은 바람 속에 서서 내 친구들의 죽음을 슬퍼하리라. 사냥꾼은 나뭇가지 초막에서 내 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를 두려워하며 사랑하리라. 내 친구들을 부르는 내 목소리는 달콤하리라, 그들은 둘 다 내게 그토록 소중했으니!

그것이 너의 노래였다, 오 미노나여, 토르만의 부드럽게 얼굴 붉히는 딸이여. 우리의 눈물은 콜마를 위해 흘렀고,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졌다.

울린이 하프를 들고 나서서 알핀의 노래를 들려주었다. 알핀의 목소리는 다정했고, 리노의 영혼은 불꽃 한 줄기였지만, 그들은 이미 좁은 집에서 쉬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셀마에서 사라진 지 오래였다. 언젠가 용사들이 아직 쓰러지기 전, 울린이 사냥에서 돌아왔다. 그는 언덕에서 그들이 겨루어 부르는 노래를 들었다. 그들의 노래는 부드러웠으나 슬펐다. 그들은 용사들 가운데 으뜸인 모라르의 죽음을 슬퍼했다. 그의 영혼은 핑갈의 영혼 같았고, 그의 칼은 오스카르의 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쓰러졌고, 그의 아버지는 통곡했고,

그의 누이의 눈은 눈물로 가득했다. 장엄한 모라르의 누이, 미노나의 눈이 눈물로 가득했다. 미노나는 울린의 노래 앞에서 물러났다, 폭풍우를 미리 알고 그 아름다운 머리를 구름 속에 감추는 서쪽 하늘의 달처럼. 나는 울린과 함께 하프를 뜯으며 슬픔의 노래를 불렀다.

리노

바람도 비도 지나갔다. 한낮은 그토록 맑고, 구름이 갈라진다. 변덕스러운 해가 달아나며 언덕을 비춘다. 산에서 내려온 냇물이 불그스름하게 골짜기를 흘러간다. 냇물이여, 너의 웅얼거림은 달콤하다. 그러나 내가 듣는 목소리는 더 달콤하다. 그것은 알핀의 목소리, 그는 죽은 이를 슬퍼한다. 그의 머리는 나이로 굽었고, 눈물 흘리는 그의 눈은 붉다. 알핀이여, 빼어난 노래꾼이여, 어찌하여 말 없는 언덕 위에 홀로 있는가? 어찌하여 숲속의 돌풍처럼, 먼 바닷가의 물결처럼 슬피 우는가?

알핀

리노여, 내 눈물은 죽은 이를 위한 것, 내 목소리는 무덤에 사는 이들을 위한 것이다. 너는 언덕 위에서 늘씬하고, 황야의 아들들 가운데 아름답다. 그러나 너도 모라르처럼 쓰러지리라. 그러면 네 무덤 위에 슬퍼하는 이가 앉으리라. 언덕들은 너를 잊고, 네 활은 시위가 풀린 채 큰방에 놓여 있으리라.

오 모라르여, 너는 언덕 위의 노루처럼 날랬고, 하늘의 밤 불꽃처럼 무시무시했다. 너의 분노는 폭풍이었고, 싸움터에서 너의 칼은 황야 위의 번갯불 같았다. 너의 목소리는 비 온 뒤 숲속 급류 같았고, 먼 언덕의 천둥 같았다. 많은 이가 네 팔에 쓰러졌고, 네 분노의 불길이 그들을 삼켰다. 그러나 싸움에서 돌아올 때면 네 이마는 얼마나 평화로웠던가! 네 얼굴은 뇌우가 지나간 뒤의 해 같았고, 고요한 밤의 달 같았으며, 네 가슴은 바람의 울부짖음이 잦아든 호수처럼 잔잔했다.

이제 너의 집은 좁고, 너의 자리는 어둡다! 세 걸음이면 네 무덤을 잰다, 오 예전에는 그토록 컸던 너여! 이끼 낀 머리를 한 돌 네 개가 너를 기억하는 유일한 표지다. 잎 진 나무 한 그루, 바람에 속삭이는 긴 풀이 사냥꾼의 눈에 힘센 모라르의 무덤을 가리킨다. 너를 위해 울어 줄 어머니도 없고, 사랑의 눈물을 흘려 줄 아가씨도 없다. 너를 낳은 이는 죽었고, 모르글란의 딸은 쓰러졌다.

지팡이에 기대 선 저이는 누구인가? 나이로 머리가 희고 눈물로 눈이 붉은 저이는 누구인가? 그것은 너의 아버지다, 오 모라르여, 너 말고는 아들이 없는 아버지. 그는 싸움터에서 떨친 네 명성을 들었고, 흩어져 달아난 적들의 소식을 들었다. 그는 모라르의 영광을 들었다! 아! 그의 상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울어라, 모라르의 아버지여, 울어라! 그러나 네 아들은 너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죽은 이들의 잠은 깊고, 흙으로 된 그들의 베개는 낮다. 그는 다시는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시는 네 부름에 깨어나지 않는다. 오, 언제 무덤에 아침이 와서 잠든 이에게 이르겠는가, 깨어나라!

잘 가라, 사람 가운데 가장 고귀한 이여, 싸움터의 정복자여! 그러나 싸움터는 다시는 너를 보지 못하고, 어두운 숲은 다시는 네 강철의 빛으로 번쩍이지 않으리라. 너는 아들 하나 남기지 않았으나, 노래가 네 이름을 지키리라. 앞으로 올 시대가 너를 들으리라, 쓰러진 모라르를 들으리라.

용사들의 슬픔은 소리 높았고, 아르민의 터져 나오는 한숨이 가장 컸으니, 그 노래가 그에게 젊은 날에 쓰러진 아들의 죽음을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다. 메아리 울리는 갈말의 우두머리 카르모르가 그 용사 곁에 앉아 있었다. "아르민의 한숨은 어찌하여 흐느끼는가?" 그가 말했다. "여기 무슨 울 일이 있는가? 영혼을 녹이고 즐겁게 하는 노래와 가락이 울리지 않는가? 그것은 호수에서 피어올라 골짜기로 흩뿌려지는

부드러운 안개 같아서, 피어나는 꽃들을 물기로 채운다. 그러나 해가 다시 힘차게 떠오르면 안개는 사라진다. 아르민이여, 바다에 둘러싸인 고르마를 다스리는 이여, 어찌하여 너는 그토록 슬퍼하는가?"

"슬프다! 그래, 나는 슬프다. 내 슬픔의 까닭도 결코 작지 않다. 카르모르여, 너는 아들을 잃지 않았고, 꽃다운 딸을 잃지 않았다. 용감한 콜가르는 살아 있고, 아가씨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안니라도 살아 있다. 오 카르모르여, 네 집안의 가지들은 꽃피고 있다. 그러나 아르민은 그 핏줄의 마지막이다. 오 다우라여, 네 잠자리는 어둡구나! 무덤 속 네 잠은 깊고 무겁다. 너는 언제 네 노래와 함께, 네 고운 목소리와 함께 깨어나려느냐? 일어나라, 가을바람이여! 일어나 어두운 황야 위로 몰아쳐라! 숲속 급류여, 울부짖어라! 폭풍이여, 참나무 꼭대기에서 울어라! 오 달이여, 찢긴 구름 사이로 거닐며 네 창백한 얼굴을 언뜻언뜻 내보여라! 내 아이들이 죽어 간 그 끔찍한 밤을, 힘센 아린달이 쓰러지고 사랑스러운 다우라가 스러져 간 그 밤을 내게 떠올려 다오.

"다우라, 내 딸아, 너는 아름다웠다. 푸라의 언덕 위 달처럼 아름답고, 갓 내린 눈처럼 희고, 숨 쉬는 바람처럼 달콤했다! 아린달아, 네 활은 억셌고, 네 창은 싸움터에서 날랬으며, 네 눈길은 물결 위의 안개 같았고, 네 방패는 폭풍 속의 불구름이었다!

"싸움으로 이름난 아르마르가 와서 다우라의 사랑을 구했다. 다우라는 오래 버티지 않았다. 그들을 아끼는 이들의 희망은 아름다웠다."

오드갈의 아들 에라트는 앙심을 품었다. 그의 형제가 아르마르의 손에 죽어 누워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뱃사공으로 꾸미고 왔는데, 물결 위의 그의 조각배는 아름다웠고, 그의 곱슬머리는 나이로 희었으며, 그의 근엄한 얼굴은 고요했다.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여." 그가 말했다. "아르민의 사랑스러운 딸이여, 저기 바위 곁, 바다 멀지 않은 곳, 붉은

열매가 나무에서 반짝이는 곳에서 아르마르가 다우라를 기다린다. 나는 그의 사랑을 구르는 바다 너머로 데려가려고 왔다."

다우라는 그를 따라가며 아르마르를 불렀다. 대답하는 것은 바위의 메아리뿐이었다. "아르마르여!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어찌하여 나를 이토록 두렵게 하는가? 들어라, 아르나르트의 아들이여! 들어라! 너를 부르는 것은 다우라다!"

배신자 에라트는 웃으며 뭍으로 달아났다. 다우라는 목소리를 높여 아버지와 오빠를 불렀다. "아린달이여! 아르민이여! 다우라를 구해 줄 이가 아무도 없는가?"

그 목소리가 바다를 건너왔다. 내 아들 아린달이 사냥한 짐승 가죽을 걸친 거친 모습으로 언덕에서 내려왔는데, 화살들이 옆구리에서 덜그럭거렸고, 손에는 활을 들었으며, 검은빛 도는 잿빛 사냥개 다섯 마리가 그 둘레에 있었다. 그는 바닷가에서 대담한 에라트를 보고 붙잡아 참나무에 묶었다. 허리를 단단히 칭칭 감아 묶으니, 묶인 자는 신음으로 바람을 채웠다.

아린달은 다우라를 데려오려고 배를 타고 물결 위로 나아갔다. 아르마르가 분노에 차서 와서 잿빛 깃 단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울며 날아가 너의 가슴에 박혔다, 오 아린달, 내 아들아! 배신자 에라트 대신 네가 죽었구나. 배는 바위에 닿았고, 그는 거기 쓰러져 죽었다. 네 발치에 네 오빠의 피가 흘렀으니, 오 다우라여, 너의 슬픔은 어떠했겠느냐! 물결이 배를 부순다. 아르마르는 다우라를 구하든지 죽든지 하려고 바다로 뛰어든다. 갑자기 언덕에서 돌풍이 물결 속으로 몰아쳤고, 그는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않았다.

바닷물에 씻기는 바위 위에서 홀로 나는 내 딸의 탄식을 들었다. 그 울부짖음은 잦고 컸으나, 그 아버지는 딸을 구할 수 없었다. 밤새도록 나는 바닷가에 서서 희미한 달빛 속에 딸을 보았고, 밤새도록 그

울부짖음을 들었는데, 바람은 거셌고 비는 산비탈로 세차게 들이쳤다. 아침이 오기 전에 딸의 목소리는 약해졌고, 바위틈 풀 사이로 지나가는 저녁 바람처럼 스러져 갔다. 슬픔을 잔뜩 짊어진 채 딸은 죽었고, 아르민을 홀로 남겼다! 싸움터를 누비던 내 힘은 사라졌고, 아가씨들 가운데 나의 자랑은 쓰러졌다.

산의 폭풍이 몰려올 때, 북풍이 물결을 높이 들어 올릴 때, 나는 울리는 바닷가에 앉아 그 무시무시한 바위를 바라보고, 지는 달빛 속에 자주 내 아이들의 혼령을 본다. 반쯤 어스름 속에서 그들은 슬픈 어울림으로 함께 거닌다."

로테의 눈에서 터져 나와 짓눌린 가슴을 풀어 준 눈물의 물줄기가 베르테르의 노래를 멈추게 했고, 그는 종이를 내던지고 로테의 손을 잡고 가장 쓰라린 눈물을 흘렸다. 로테는 다른 손에 몸을 기대고 손수건에 눈을 묻었다. 두 사람의 북받침은 무시무시했다. 그들은 그 고귀한 이들의 운명 속에서 자신들의 비참함을 느꼈고, 함께 느꼈으며, 그들의 눈물은 하나로 합쳐졌다. 베르테르의 입술과 눈이 로테의 팔 위에서 타오르자 소름이 로테를 덮쳤고, 로테는 몸을 빼려 했지만 고통과 연민이 납처럼 무겁게 로테를 마비시켰다. 로테는 정신을 차리려고 숨을 고르고, 흐느끼며 계속 읽어 달라고 그에게 청했다. 하늘의 온 목소리로 청했다! 베르테르는 떨었고,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지만, 종이를 집어 들고 반쯤 무너진 목소리로 읽었다.

"봄바람이여, 어찌하여 너는 나를 깨우느냐? 너는 나를 어르며 말한다, 하늘의 이슬방울로 너를 적셔 주마고! 그러나 내가 시들 때가 가까웠고, 내 잎을 흩날려 떨어뜨릴 폭풍이 가까웠다! 내일 나그네가 오리라, 아름답던 날의 나를 보았던 그가 오리라. 그의 눈은 들판에서 사방으로 나를 찾겠지만, 나를 찾지 못하리라."

이 말의 온 힘이 그 불행한 사람 위로 덮쳐 왔다.

그는 완전한 절망 속에 로테 앞에 몸을 던지고, 로테의 두 손을 잡아 자기 눈에, 이마에 눌렀고, 로테의 영혼 속으로 그의 끔찍한 계획에 대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로테는 정신이 어지러워 그의 두 손을 꼭 쥐고 자기 가슴에 눌렀으며, 서글픈 몸짓으로 그에게 몸을 기울였고, 두 사람의 달아오른 뺨이 맞닿았다. 세상이 그들에게서 사라졌다. 그는 두 팔로 로테를 감싸 안고 가슴에 꼭 끌어당겨, 떨며 더듬거리는 로테의 입술을 미친 듯한 입맞춤으로 덮었다. "베르테르!" 로테가 숨 막히는 목소리로 외치며 얼굴을 돌렸다. "베르테르!" 그리고 힘없는 손으로 그의 가슴을 자기 가슴에서 밀어냈다. "베르테르!" 로테는 더없이 고귀한 감정이 담긴, 마음을 가다듬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는 버티지 않고 로테를 품에서 놓아주고는 넋 나간 사람처럼 그 앞에 몸을 던졌다. 로테는 몸을 일으켰고, 사랑과 노여움 사이에서 떨며 불안한 혼란 속에 말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베르테르! 다시는 나를 못 보실 거예요." 그리고 그 비참한 사람에게 사랑이 가득 찬 눈길을 던지고는 옆방으로 달려 들어가 문을 잠갔다. 베르테르는 로테를 향해 두 팔을 뻗었지만 감히 붙잡지 못했다. 그는 바닥에 엎드려 긴 의자에 머리를 묻고, 그 자세로 반 시간 넘게 있다가 어떤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식탁을 차리려는 하녀였다. 그는 방 안을 이리저리 서성였고, 다시 혼자가 되자 작은 방 문으로 가서 나직한 목소리로 불렀다. "로테! 로테! 한마디만 더! 작별 인사만이라도!" 로테는 말이 없었다. 그는 기다렸고, 빌었고, 또 기다렸다. 그러다 몸을 떼어 내며 외쳤다. "잘 있어요, 로테! 영원히 잘 있어요!"

그는 성문에 이르렀다. 그를 이미 잘 아는 문지기들은 말없이 그를 내보내 주었다. 진눈깨비가 흩날렸고, 열한 시 무렵에야 그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베르테르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하인은 주인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은 것을 알아차렸지만, 감히 아무 말도 못 하고 옷을 벗겨

주었는데, 옷은 온통 젖어 있었다. 나중에 사람들은 언덕 비탈에서 골짜기를 내려다보는 바위 위에서 그 모자를 찾아냈는데, 캄캄하고 축축한 밤에 그가 어떻게 떨어지지 않고 그 바위에 올랐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잠자리에 들어 오래 잤고, 이튿날 아침 그가 불러서 하인이 커피를 가져갔을 때 하인은 그가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로테에게 쓰는 편지에 다음 대목을 적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나는 이 눈을 뜬다. 아, 이 눈은 다시는 해를 보지 못하리라. 흐리고 안개 낀 날이 해를 가리고 있다. 그렇다면 슬퍼하라, 자연이여! 너의 아들, 너의 친구, 너의 연인이 마지막에 다가간다. 로테, 이건 무엇에도 견줄 수 없는 느낌이야. 그런데도 어스름한 꿈과 가장 가까워.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말이야. 이것이 마지막 아침이다. 마지막! 로테, 나는 이 말을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마지막이라니! 나는 지금 온 힘을 다해 여기 서 있는데, 내일이면 쭉 뻗은 채 맥없이 땅에 누워 있으리라니. 죽는다! 그게 무슨 뜻이지? 봐, 우리는 죽음을 이야기할 때 꿈을 꾸는 거야. 나는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았지만, 인류는 그토록 좁은 테두리에 갇혀 있어서 자기 존재의 시작과 끝을 헤아리지 못해. 아직은 내 것, 당신 것! 당신 것이야, 오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한순간 뒤에는 떨어지고 갈라져서…… 어쩌면 영원히? 아니야, 로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어? 당신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어? 우리는 이렇게 있잖아! 사라진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그건 또 하나의 말, 내 마음에는 아무 느낌도 주지 못하는 빈 소리일 뿐이야. 죽는다, 로테! 차가운 땅에 묻힌다, 그토록 좁게! 그토록 캄캄하게! 의지할 데 없던 내 젊은 날에 나의 전부였던 벗이 있었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나는 운구를 따라가, 사람들이 관을 내리고, 밧줄이 윙 소리를 내며 관 밑에서 빠져나와 다시

튀어 올라오고, 그다음 첫 삽의 흙이 우르르 떨어지고, 겁에 질린 그 궤가 둔한 소리를 되울리고, 점점 더 둔하게, 더 둔하게 울리다가 마침내 다 덮일 때까지 무덤가에 서 있었어! 나는 무덤 옆에 엎어졌고, 사로잡히고 흔들리고 겁에 질려 속이 다 찢겼지만,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죽음! 무덤! 나는 그 말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오, 나를 용서해 줘! 용서해 줘! 어제! 그게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었어야 했는데. 오, 천사여! 처음으로, 처음으로 한 점 의심도 없이 내 가장 깊은 속을 환희의 느낌이 뜨겁게 꿰뚫었어. 로테가 나를 사랑해! 로테가 나를 사랑해! 당신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거룩한 불이 아직 내 입술 위에서 타오르고, 새롭고 따뜻한 환희가 내 가슴속에 있어. 용서해 줘! 용서해 줘!

아, 나는 알았어. 당신은 나를 사랑했어. 처음 나눈 영혼 어린 눈길에서, 처음 맞잡은 손에서 그걸 알았어. 그런데도 다시 떠나 있을 때면, 당신 곁에 있는 알베르트를 볼 때면, 나는 다시 열병 같은 의심에 빠져 기가 꺾였어.

그 고약한 모임에서 당신이 나에게 말 한마디 못 하고 손 한번 내밀지 못했을 때 보내 준 꽃들, 기억나? 오, 나는 그 꽃 앞에 밤새 반을 무릎 꿇고 있었고, 그 꽃들은 당신의 사랑을 내게 봉인해 주었어. 그러나 아! 그 느낌들은 지나가 버렸어, 거룩하고 눈에 보이는 표징 속에 하늘의 충만함을 다해 주어진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느낌이 믿는 이의 영혼에서 차츰 다시 물러가듯이.

이 모든 것은 덧없지만, 어떤 영원도 어제 내가 당신 입술에서 누린 그 타오르는 생명을, 지금 내 안에서 느끼는 그 생명을 끄지 못하리라! 로테가 나를 사랑해! 이 팔이 로테를 안았고, 이 입술이 로테의 입술

위에서 떨었고, 이 입이 로테의 입에 대고 더듬거렸어. 로테는 내 사람이야! 당신은 내 사람이야! 그래, 로테, 영원히.

그런데 알베르트가 당신 남편이라는 게 다 뭐야? 남편이라니!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그 사람 품에서 당신을 내 품으로 빼앗아 오고 싶어 하는 게 바로 죄란 말이야? 죄라고? 좋아, 그 벌은 내가 나 자신에게 내리겠어. 나는 그 죄를 하늘의 환희를 다해 맛보았고, 생명의 향유와 힘을 내 가슴에 빨아들였어. 이 순간부터 당신은 내 사람이야! 내 사람이야, 오 로테! 나는 먼저 가. 내 아버지께, 당신 아버지께 가. 그분께 하소연하면 그분이 당신이 올 때까지 나를 위로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당신을 맞으러 날아가 당신을 붙잡고, 무한하신 분의 얼굴 앞에서 영원한 포옹 속에 당신 곁에 머물겠어.

나는 꿈꾸는 게 아니야, 헛것을 보는 게 아니야! 무덤에 가까워질수록 내게는 더 환해져. 우리는 있을 거야!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당신 어머니를 만날 거야! 나는 그분을 뵙고, 그분을 찾아내고, 아, 그분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 놓겠어! 당신 어머니, 당신과 꼭 닮은 그분 앞에."

열한 시쯤 베르테르는 하인에게 알베르트가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하인은 그렇다고, 알베르트의 말을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대답했고, 그러자 주인은 하인에게 봉하지 않은 쪽지 한 장을 건넸는데, 쪽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계획한 여행에 쓰려 하니 권총을 빌려주시겠습니까?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그 사랑스러운 여인은 지난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는데, 두려워하던 일이, 그것도 미처 예감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못했던 쪽으로 결판이 났기 때문이다. 여느 때는 그토록 맑고 가볍게 흐르던 로테의 피는 열병 같은 격동에 빠졌고, 천 가지 감정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어지럽혔다. 그것은 가슴에 아직 느껴지는 베르테르의 포옹의 불길이었을까? 그의 무모함에

대한 노여움이었을까? 아무 거리낌 없고 자유롭던 순진함과 자기 자신을 근심 없이 믿던 그 시절과 지금의 처지를 견주어 보는 언짢음이었을까? 어떻게 남편을 맞아야 할까, 털어놓아도 아무 거리낄 것 없지만 차마 털어놓을 엄두가 나지 않는 그 장면을 어떻게 남편에게 고백해야 할까? 두 사람은 그토록 오래 서로 입을 다물어 왔는데, 자기가 먼저 그 침묵을 깨고, 그것도 하필 좋지 않은 때에 남편에게 그토록 뜻밖의 일을 털어놓아야 한단 말인가? 로테는 베르테르가 찾아왔다는 소식만으로도 남편이 언짢아할까 벌써 두려웠는데, 이제는 이런 뜻밖의 파국까지! 남편이 자기를 온전히 바른 빛 속에서 보아 주고, 아무 선입견 없이 받아들여 주리라 바랄 수 있을까? 그리고 남편이 자기 영혼 속을 읽어 주기를 바랄 수 있을까? 그러면서도 또, 늘 수정처럼 맑은 유리처럼 터놓고 거리낌 없이 마주 서 왔고, 자기의 어떤 감정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고 숨길 수도 없었던 그 남자 앞에서 꾸밀 수 있을까? 이것저것이 다 근심스러웠고 로테를 난처하게 했으며, 생각은 늘 다시 베르테르에게로 돌아갔다. 로테에게는 잃어버린 사람, 그래도 놓을 수 없는 사람, 안타깝게도 그 자신에게 내맡겨 둘 수밖에 없는 사람, 로테를 잃으면 더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 사람에게로.

그때 로테는 또렷이 깨닫지 못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자리 잡은 그 막힘이 이제 얼마나 무겁게 로테를 짓눌렀는지! 그토록 분별 있고 그토록 착한 사람들이 어떤 남모를 엇갈림 때문에 서로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 저마다 자기가 옳고 상대가 그르다는 생각에 잠겼으며, 관계는 그렇게 얽히고 꼬여서, 모든 것이 걸린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매듭을 풀 수 없게 되었다. 행복한 허물없음이 좀 더 일찍 두 사람을 다시 가깝게 해 주었더라면, 사랑과 너그러움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 되살아나 마음을 열어 주었더라면, 어쩌면 우리 친구는 아직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 또 하나 묘한 사정이 더해졌다. 그의 편지에서 우리가 알듯이, 베르테르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것을 한 번도 숨긴 적이 없었고, 알베르트는 자주 그와 다투었으며, 로테와 남편 사이에도 이따금 그 이야기가 나왔다. 알베르트는 그런 행위를 단호히 싫어했기 때문에, 여느 때 그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종의 날카로움으로, 그런 결심이 진지한지 몹시 의심할 까닭이 있다는 것을 자주 내비쳤고, 그 일을 두고 농담까지 하며 자기의 불신을 로테에게 전하기도 했다. 이것은 슬픈 그림이 떠오를 때면 한편으로는 로테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그 때문에 그 순간 로테를 괴롭히던 걱정을 남편에게 털어놓지 못하게 가로막았다.

알베르트가 돌아왔고, 로테는 어쩔 줄 모르며 서둘러 그를 맞으러 나갔지만, 알베르트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일은 끝나지 않았고, 이웃 고장의 법무관은 고집 세고 속 좁은 사람이었으며, 험한 길도 그를 언짢게 했다.

별일 없었느냐는 그의 물음에 로테는 다급하게 베르테르가 어제저녁에 왔었다고 대답했고, 그가 편지가 왔느냐고 묻자 편지 한 통과 소포 몇 개가 그의 방에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그는 그리로 건너갔고, 로테는 혼자 남았는데,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자가 곁에 있다는 것이 로테의 마음에 새로운 느낌을 주었다. 그의 너그러움과 사랑과 착함을 떠올리자 마음이 한결 가라앉았고, 로테는 그를 따라가고 싶은 은밀한 끌림을 느껴, 일감을 들고 여느 때 곧잘 그랬듯이 그의 방으로 갔다. 그는 소포를 뜯어 읽고 있었는데, 몇몇은 그리 반갑지 않은 내용인 듯했다. 로테가 몇 가지를 묻자 그는 짧게 대답하고는 글을 쓰려고 책상 앞에 섰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 시간을 나란히 있었고, 로테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남편이 아무리 기분이 좋을 때라도 마음에 걸린 것을

털어놓기가 얼마나 힘들지 로테는 느꼈고, 서글픔에 빠졌는데 그것을 감추고 눈물을 삼키려 할수록 그 서글픔은 더욱 불안하게 로테를 조였다.

베르테르의 하인 아이가 나타나자 로테는 몹시 당황했다. 아이는 알베르트에게 쪽지를 건넸고, 알베르트는 차분히 아내 쪽으로 돌아서서 말했다. "권총을 내줘." "잘 다녀오시라고 전해라." 그는 아이에게 말했다. 그 말이 벼락처럼 로테에게 떨어졌고, 로테는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로테는 천천히 벽으로 가서 떨리는 손으로 총을 내리고, 먼지를 닦고 머뭇거렸다. 알베르트가 묻는 듯한 눈길로 재촉하지 않았다면 훨씬 더 오래 망설였을 것이다. 로테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그 불행한 물건을 아이에게 건넸고, 아이가 집을 나가자 일감을 챙겨 이루 말할 수 없는 불안 속에 자기 방으로 갔다. 로테의 가슴은 온갖 끔찍한 일을 예감했다. 로테는 남편의 발밑에 몸을 던져 모든 것을, 어젯밤의 일과 자기 잘못과 예감을 털어놓을 뻔하다가도, 다시 그렇게 해 봐야 아무 출구도 보이지 않았고, 남편을 설득해 베르테르에게 가게 하리라는 희망은 더더욱 품을 수 없었다. 식탁이 차려졌고, 무언가 물으러 왔다가 곧 가려다 그대로 눌러앉은 좋은 친구 하나가 식탁의 대화를 견딜 만하게 해 주었다. 다들 애써 말을 하고, 이것저것 들려주고, 그러다 시름을 잊었다.

아이가 권총을 들고 베르테르에게 왔고, 베르테르는 로테가 건네주었다는 말을 듣자 황홀해하며 권총을 받았고, 빵과 포도주를 가져오게 하고, 아이에게는 가서 밥을 먹으라 이르고는 자리에 앉아 글을 썼다.

"그 권총이 당신 손을 거쳐 왔어. 당신이 먼지를 닦아 주었어. 나는 천 번이고 입을 맞춰. 당신이 만졌으니까! 그리고 하늘의 영이시여, 제 결심을 북돋아 주시는군요. 그리고 로테, 당신은 내게 그 물건을

건네주는구나. 당신 손에서 죽음을 받기를 바랐는데, 아! 이제 받는구나. 오, 나는 아이에게 꼬치꼬치 물어보았어. 당신은 그걸 건넬 때 떨었고, 잘 있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며! 괴로워! 괴로워! 잘 있으라는 말 한마디 없다니! 나를 영원히 당신에게 묶어 놓은 그 순간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마음을 닫아 버린 걸까? 로테, 천 년이 흘러도 그 느낌은 지워지지 않아! 그리고 나는 느껴. 당신을 위해 이렇게 타오르는 사람을 당신은 미워할 수 없다는 걸."

식사가 끝나자 그는 아이에게 남은 짐을 다 꾸리게 하고, 많은 서류를 찢고, 나가서 자잘한 빚을 정리했으며, 집에 돌아왔다가 비가 오는데도 다시 성문 밖으로, 백작의 정원으로 나가 그 일대를 더 헤매다가 밤이 내려앉을 무렵 돌아와 글을 썼다.

"빌헬름, 나는 마지막으로 들과 숲과 하늘을 보았어. 너도 잘 있어! 사랑하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를 위로해 드려, 빌헬름! 하느님께서 어머니와 너를 축복하시기를! 내 일은 다 정리해 두었어. 모두 잘 있기를! 우리는 다시 만날 거야, 더 기쁘게."

"알베르트, 나는 너에게 은혜를 원수로 갚았는데, 너는 나를 용서해 주는구나. 나는 네 집의 평화를 어지럽혔고, 두 사람 사이에 불신을 들여놓았어. 잘 있어! 나는 끝내겠어. 오, 내 죽음으로 두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알베르트! 알베르트! 그 천사를 행복하게 해 줘! 그리고 하느님의 축복이 너에게 머물기를!"

그는 그날 저녁에도 서류를 많이 뒤적여 많은 것을 찢어 난로에 던져 넣고, 빌헬름 앞으로 주소를 적은 꾸러미 몇 개를 봉했다. 그 안에는 짧은 글과 토막 난 생각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몇 편을 나도 보았다. 열 시에 그는 불을 더 지피게 하고 포도주 한 병을 가져오게 한 다음 하인을 자러 보냈는데, 하인의 방은 집안 사람들의 침실과 마찬가지로 집 맨 뒤쪽에 멀리 떨어져 있었다. 하인은 아침 일찍 채비를

하려고 옷을 입은 채로 누웠는데, 주인이 역마가 여섯 시 전에 집 앞에 올 거라고 했기 때문이다.

열한 시가 지나서

내 둘레는 모든 것이 이토록 고요하고, 내 영혼도 이토록 평온해. 하느님, 이 마지막 순간들에 이 따뜻함, 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창가로 가, 소중한 사람. 그리고 바라봐. 사납게 스쳐 달아나는 구름 사이로 영원한 하늘의 별들이 아직 하나둘 보여! 아니, 너희는 떨어지지 않으리라! 영원하신 분이 너희를 가슴에 품고 계셔, 그리고 나도. 북두칠성의 자루 쪽 별들이 보여. 모든 별자리 가운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별이야. 밤에 당신 곁을 떠나 당신 집 문을 나설 때면 그 별이 내 맞은편에 떠 있었어. 얼마나 취한 마음으로 그 별을 자주 바라보았는지, 얼마나 자주 두 손을 들어 그 별을 지금 내 더없는 행복의 표지로, 거룩한 이정표로 삼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오 로테, 무엇인들 당신을 떠올리게 하지 않을까! 당신이 내 둘레를 감싸고 있지 않아? 그리고 나는 아이처럼 만족할 줄 모르고, 거룩한 당신이 만졌던 온갖 자잘한 것을 내 곁으로 끌어모으지 않았어!

다정한 실루엣! 로테, 그걸 당신에게 돌려줄게. 소중히 간직해 줘. 나는 거기에 천 번, 천 번 입을 맞추었고, 나갈 때나 집에 돌아올 때나 천 번 손짓으로 인사를 보냈어. 당신 아버지께 쪽지를 써서 내 주검을 지켜 달라고 부탁드렸어. 교회 묘지 뒤쪽 들판으로 향한 구석에 보리수 두 그루가 있어. 거기서 쉬고 싶어. 그분은 친구를 위해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고, 해 주실 거야. 당신도 부탁드려 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엾은 불행한 사람 곁에 자기 몸을 누이라고 요구하고 싶지는 않아. 아, 차라리 사람들이 나를 길가에나 외딴 골짜기에 묻어 주어서, 사제와 레위 사람은 표시된 돌 앞을 성호를 그으며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은 눈물 한 방울 흘려 주었으면 좋겠어.

자, 로테! 나는 죽음의 도취를 마셔야 할 이 차갑고 끔찍한 잔을 드는데 몸서리치지 않아! 당신이 나에게 건네주었으니, 나는 망설이지 않아. 다! 다! 이렇게 내 삶의 모든 소망과 희망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차갑게, 이렇게 굳은 채 죽음의 청동 문을 두드리다니.

당신을 위해 죽는 행복을 누릴 수 있었더라면! 로테, 당신을 위해 나를 바칠 수 있었더라면! 당신 삶의 평온과 환희를 되찾아 줄 수만 있다면 나는 용감하게, 기쁘게 죽겠어. 그러나 아! 제 사람들을 위해 피를 흘리고, 자기 죽음으로 친구들에게 백 배나 되는 새 생명의 불을 지펴 주는 일은 몇몇 고귀한 이들에게만 허락되었을 뿐이야.

로테, 나는 이 옷을 입은 채 묻히고 싶어. 당신이 만졌고, 거룩하게 해 주었으니까. 당신 아버지께도 그렇게 부탁드렸어. 내 영혼은 관 위를 떠돌 거야. 내 주머니는 뒤지지 말라고 해 줘. 내가 당신 아이들 사이에 있는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당신 가슴에 달려 있던 이 연분홍 리본…… 오, 아이들에게 천 번 입 맞춰 주고 그 불행한 친구의 운명을 들려줘. 사랑스러운 것들! 그 애들이 내 둘레에 우글거려. 아, 내가 얼마나 당신에게 매달렸는지! 첫 순간부터 당신을 놓을 수 없었어! 이 리본은 나와 함께 묻혀야 해. 내 생일에 당신이 나에게 주었지! 내가 그 모든 것을 얼마나 삼키듯 받아들였는지! 아, 그 길이 나를 여기로 데려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어! 마음을 가라앉혀! 부탁이야, 마음을 가라앉혀!

장전되어 있어. 열두 시를 친다! 그래, 그렇게 되라지! 로테! 로테, 잘 있어! 잘 있어!"

이웃 사람 하나가 화약이 번쩍하는 것을 보고 총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그 뒤로 아무 기척도 없었기 때문에 더는 마음에 두지 않았다.

아침 여섯 시에 하인이 등불을 들고 들어온다. 하인은 바닥에 쓰러진 주인과 권총과 피를 본다. 하인은 주인을 부르고 붙잡아 흔든다. 대답이

없다. 주인은 그르렁거리기만 한다. 하인은 의사들에게, 알베르트에게 달려간다. 로테는 문간의 종이 울리는 소리를 듣자 온몸이 떨린다. 로테는 남편을 깨우고, 두 사람은 일어난다. 하인이 울부짖으며 더듬더듬 소식을 전하자, 로테는 알베르트 앞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의사가 그 불행한 사람에게 왔을 때 그는 이미 손쓸 길 없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맥박은 뛰었지만 팔다리는 모두 마비되어 있었다. 그는 오른쪽 눈 위로 머리를 쏘았고, 뇌가 밖으로 튀어나와 있었다. 사람들은 쓸데없는 줄 알면서도 그의 팔에서 피를 뽑았고, 피가 흘렀으며, 그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안락의자 등받이에 묻은 피로 미루어, 그는 책상 앞에 앉은 채 일을 저질렀고, 그런 다음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 경련하며 의자 둘레를 뒹군 것으로 보였다. 그는 기진한 채 창 쪽을 향해 반듯이 누워 있었고, 옷을 다 갖추어 입고 장화를 신었으며, 파란 연미복에 노란 조끼 차림이었다.

집 안과 이웃과 온 시내가 발칵 뒤집혔다. 알베르트가 들어왔다. 사람들은 베르테르를 침대에 눕히고 이마를 붕대로 감아 두었는데, 그의 얼굴은 벌써 죽은 사람 같았고 팔다리 하나 움직이지 않았다. 폐는 아직도 약해졌다가 다시 거세졌다가 하며 무시무시하게 그르렁거렸고, 사람들은 그의 마지막을 기다렸다.

포도주는 한 잔만 마셨다. 책상 위에는 『에밀리아 갈로티』가 펼쳐져 있었다.

알베르트의 망연자실과 로테의 비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

늙은 법무관은 소식을 듣자마자 말을 달려 왔고,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죽어 가는 이에게 입을 맞추었다. 큰아들들도 곧 뒤따라 걸어서 왔다. 아이들은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며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쓰러져 그의 손과 입에 입을 맞추었고, 그가 언제나 가장 아끼던 맏이는 그가 숨을 거둘 때까지 그 입술에 매달려 있다가 사람들에게 억지로 떼어 내졌다. 낮 열두 시에 그는 죽었다. 법무관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손을 써 둔 덕에 소란은 일지 않았다. 밤 열한 시 무렵, 법무관은 그가 스스로 골라 두었던 자리에 그를 묻게 했다. 노인과 아들들이 관을 따라갔다. 알베르트는 그러지 못했다. 사람들은 로테의 목숨을 걱정했다. 수공업자들이 그를 메고 갔다. 성직자는 아무도 따라가지 않았다.

판권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원제 ·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

지은이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

옮긴이 · 에테르 라이브러리

초판 · 1774년, 라이프치히 바이간트 출판사, 지은이 이름 없이. **개정판** · 1787년, 괴셴판 『괴테 저작집』 제1권.

저본 · 1787년 개정판. 함부르크판 괴테 전집 제6권의 본문을 옮겨 적은 퍼블릭도메인 독일어 전자 텍스트. 저본에 빠진 머리말과 몇 줄은 1787년판 본문으로 채웠다. 독일어 원전에서 옮겼다.

대조 · R. D. 보일런 영역(1854). 뜻 확인용으로만 썼다.

분량 · 원문 38,842단어 · 머리말과 세 부 · 436문단(원문과 같음) · 옮긴이 주 없음

저작권 · 지은이가 1832년에 사망해 원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이다.

한국어 번역 · 번역문의 저작권은 에테르 라이브러리에 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 4.0 국제(CC BY-NC 4.0) 조건으로 누구나 읽고 공유할 수 있다.

판 · 1.0판 · 2026년 11월

표지 · 그림과 판짜기 모두 에테르 라이브러리. 그림은 코드로 그린 수채화다.

◆

원저 퍼블릭 도메인 · 한국어 번역 **CC BY-NC 4.0**

에테르 라이브러리 · Ether Library · 총서 0023